

**『4단계 BK21사업』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학 분야)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4199990514632						
사업 분야	인문학	신청분야	동양언어와문학	단위	전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중국어와문학	중문학	일본어와문학	일본문학		
	비중(%)	50%		50%		0%	
학과(학부)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교육연구 단명	국문)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 중일교육연구단						
	영문) Chinese and Japanese Education Research Group: Nurturing Future-Oriented Human Resources to Lead						
교육연구 단장	소 속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REDACTED]				
		영문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국고지원금	366	732	732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평가 대상 기간		2020.9.1.-2023.2.28.(30개월)					

본인은 『4단계 BK21』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확인자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확인자	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트랜스-동아시아 시대 (Trans-East Asian Era)	트랜스 연구 (Trans-Research)	통섭적 창의 인재 (Trans-Intellectual)
	4차 산업혁명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동아시아학 (East Asian Studies)	공존·공영 (Co-Existence / Co-Prosperity)
	트랜스 교육 (Trans-Education)	지역 연대 (Trans-Region)	지식공동체 (Trans-Society)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p>본 학과가 교육과 연구의 모델로 설정한 ‘트랜스-동아시아’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재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3국, 나아가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남북 협력도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간·문명 간·지역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공존과 공영의 모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재난에 대한 성공적 대처 모델이 인류문명사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 발 동아시아학의 역할도 주목되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전문가의 양성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사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본 학과는 아래와 같이 2대 교육 비전을 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트랜스 교육과 트랜스 연구를 통한 통섭적 창의 인재 양성 2. 트랜스-동아시아 교육·연구 모델과 지식의 확산을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 <p>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5대 목표를 설정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rans-Disciplinary: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2. Trans-Knowledge: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3. Trans-National: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 선도 4. Trans-Society: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5. Trans-Koreanology: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p>혼합·병치·접촉·충돌·융합·전환 등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교육과 연구는, 새로운 세계사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적 가치 확산의 기제가 될 것이다.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동아시아 교육·연구는 시스템 구축과 방법론 수립을 통해 ‘통섭적 창의 인재’라는 21세기적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p>		
교육역량 영역	<p>본 학과는 2007년 이래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왔다. 전공강의의 영역별 세분화, 취업에 유리한 전문가 트랙을 연구자 트랙과 별도로 운영, 교수별 LAB 활동의 강화와 각 활동에 어젠다 개념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한편 중일 양 외국어 전공이 결합한 만큼 양 전공의 외국어 인프라에 힘입어 중일뿐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역에 걸쳐 교육의 국제화 활동에 매진해왔다. 4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사업의 미진한 점을 보충하고, 본 학과의 교육 비전과 목표를 구현할 혁신적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적 심화를 도모하고자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통섭적인 교육 방법론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다. 대상 지역 역시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변화된 국내외 정세에 맞춰 신남방, 신북방 등으로 융합적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또 학교 본부 및 단과대학과 공조하여 Core Curriculum을 도입하고, 기초 훈련으로서 논문작성법, AI 관련 과목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본 학과의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융합 교육의 실행 방안으로 Cross-Listings과 Code Sharing을 통해 타과 전공과의 교차 수강, 학점 인정 과목의 확대가 이루어져 대학원생의 선택권이 증진될 것이다. 본부와 공조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DS/AI 기반 강의를 다양화하고 사업단의 모든 활동에 AI 기반 방법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략은 기존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여 영어 논문 작성과정을 개설하고, 학과 내 중국어·일본어 학술 인프라를 타 전공과 교류하며, 웹 기반 국제교류 활동을 다양화할 것이다. 2. 학사 관리: 기존의 안정적이고 충실한 관리를 지속하되, 학석사 연계과정을 확대하고 연구자·전문가 트랙을 실질적으로 특성화시킬 것이다. 기존의 졸업 연한도 석사 1년, 박사 2년씩 단축하여 졸업생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국제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해외석 		

	<p>학 강연회를 정례화하고 분야도 다양화할 것이다. 현재 35% 내외의 외국어 강의는 더 확대하고, 학교 본부와 공조하여 교환 및 파견 제도를 다양화할 것이다. 특히 장기 방문연구를 활성화하며, 공동학위제도를 더욱 확대해 가고자 한다. 그 밖에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여 연구실(LAB)별 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충실하게 개선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강의평가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보완하며, 연구윤리 교육과 논문작성법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갈 것이다.</p> <p>3. 사회문제 해결과 지식 확산: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학원생의 주체역량을 증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공과목 중에 시그니처 과목을 설정하여 Living Lab 방식으로 시민 공동체와 함께하는 실천적 강의 공간을 가꿔 갈 것이다. 전문가 트랙에서는 PBL 과목으로 캡스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산학협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유기적으로 조합해 갈 것이다.</p>
<p>연구역량 영역</p>	<p>동아시아 3국을 비롯한 아세안, 남아시아 등에 대한 연구는 본 학과의 2대 교육 비전과 5대 교육 목표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이다. ‘트랜스’와 ‘지역’ 개념에 입각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 및 심화, 비교연구로의 확장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공동연구 수행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열린 연구의 필요성, 즉 횡적 연구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종적 연구와 횡적 연구의 결합이라는 연구 모델의 정립을 요구한다.</p> <p>1. 연구의 종횡 결합 모델과 방법론 지향: 본 학과는 3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아시아적 DNA의 발굴과 본질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인문학적·사회과학적 연구의 양적 확장과 질적 심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축적된 연구 노하우와 국내외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는 종횡 연구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랜스’와 ‘지역’의 결합이 바로 그것으로, 이러한 연구 대상의 확장과 방법론의 구축은 본 학과의 축적된 연구 성과 없이는 불가능하다. 본 학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개별 연구와 국내외 공동연구의 심화, 연구 대상 지역의 확장을 통한 연구 교류 모델 확립, 선진적인 연구 방법론의 구축 등을 도모할 것이다.</p> <p>2. 다채로운 연구 지원책 마련: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의 구축과 성과 도출을 위해 본 학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의 개발과 논문 게재, 인센티브제와 같은 경쟁 시스템 도입, 국내외 연구과제 수주와 논문으로의 환류, 교내외 유사 LAB 간 트랜스 연구 지원 및 어젠다 개발, 국내외 공동연구 수행, 전공 LAB의 전문성 강화 및 교내외 유사 LAB과의 학술 교류를 통한 통섭적 성과 도출, 학술연구 자료의 기반 확충과 효율적 활용을 비롯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p>
<p>기대 효과</p>	<p>‘트랜스-동아시아’를 교육과 연구 모델로 설정한 계기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국가 또는 이익집단 간의 충돌 문제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의 세기’가 상징하는 지역의 역동성을 각국의 협력과 공존의 방향으로 이끌 교육·연구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본 학과의 교육과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적 시각에 입각한 동아시아 교육·연구 방법론 정립 2. 심화(종적 연구)와 확산(횡적 연구)의 결합이라는 학술 연구 방법론 수립 3. 교육적 효과로서 ‘트랜스 지식인’이라는 21세기적 인재상 형성 4. 사회문제 해결 형 교육 및 연구 성과의 사회 확산과 지식공동체 구축 5. 동아시아 3국 및 문명사 전환 과정에서 한국적 동아시아학의 가치 창조와 발신 <p>최근 일어난 남북협력의 모색, 코로나19 대처 모델 등은 ‘아시아의 세기’로 상징되는 미래문명사적 전환에서 한국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영은 인류 최고의 가치이며, 학술 연구와 교육 역시 이의 일환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한 본 학과의 아시아 연구는 미래 인재상, 학술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과 지식공동체, 새로운 교육·연구 방법론, 한국적 동아시아학 등의 관점에서 혁신적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p>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
미래인재 양성사업
인문사회 분야(교육연구단)
성과평가 보고서

2023. 2.

교 육 부
한국연구재단

보고서 표지

『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단 성과평가 보고서

관리번호	-						
사업 분야	인문학/ 사회과학	신청분야	예)경영	단위	전국/지역	구분	교육연구단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비중(%)						
학과(학부)							
교육연구 단명	국문)						
	영문)						
교육연구 단장	소 속	대학교		대학(원)		학과(부)	
	직 위						
	성명	국문	전화				
			팩스				
		영문	이동전화				
E-mail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국고지원금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평가 대상 기간		2020.9.1.-2023.2.28.(30개월)					
<p>본인은 『4단계 BK21』 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월 일</p>							
작성자	교육연구단장						
확인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확인자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보고서 요약문〉

중심어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정개편	기초공통과목
	이중교육트랙 제도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 개설	디지털 인문학
	연구역량 강화	국제화역량 강화	연구·교육성과 확산(Living LAB)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p>[교육과정개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위한 총 5개 전공체계 수립, 기초공통과목 지정과 개설(총 16과목), Code Sharing의 실시 및 활성화, ‘연구자트랙’ 과 ‘전문가트랙’ 의 이중 트랙 제도 실시,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 개설, 디지털 인문학 지식 강화</p> <p>[우수인재 확보] 우수한 자질의 교원 확충(중국어학 1명, 일본근현대문학 1명), 미국, 일본,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인력 선발,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및 지원</p> <p>[연구지원체계 구축] 체계적 논문지도 및 발표회 개최, 국제학술지 논문 작성과 투고를 위한 ONE-STOP 지원, 논문게재료 지원(회당 10만원까지, 횟수 무제한), 우수성과 발표회 실시, 논문과 학술활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급, 국내·외 연수 지원 등 연구지원 체계 구축</p> <p>[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구축] 사회문제 해결형 비교과 프로그램인 Living LAB 사업을 추진(주제: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 기>),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p> <p>[국제교류 체계 구축]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2023.1.13. 온라인): 9개국 15개 우수 대학 36명의 발표자가 참가, 총 11명의 BK참여대학원생이 발표,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2023.2.9.-2023.2.11. 인도네시아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총 8명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총 22회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온라인)</p>		
교육역량 영역	<p>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과 연구의 환류 체계 구축, 실적 초과 달성</p> <p>[교과과정 개편] 기초공통과목 지정 및 신설.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 개설 등</p> <p>[적극적 연구지원] 연구능력 향상 및 우수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지원·관리</p> <p>[연구 실적 산출] <사업신청서>에 제안하였던 1인당 논문 편수 목표를 초과 달성 목표치: 1차년도 0.89편 달성, 7차년도에 1.16편까지 늘리기 즉, 2020.9.-2023.2(30개월간) 2.33편 달성 달성도: 2020.9.-2021.2.(6개월간) 0.55편, 2021.3.-2022.2. 1.23편, 2022.3.-2023.2. 1편 2020.9.-2023.2(30개월간) 2.78편 달성(0.45편 초과 달성)</p> <p>[지속적인 모니터링]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BK교육 사업> 설문 조사, 교육과정에 반영</p> <p>2.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실적</p> <p>[대학원생 확보] 외국인 학생 비율 약 30% 유지 평가 기간 이전 5학기 대비 평균 41명에서 47명으로 증가</p> <p>[학술대회 개최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 참가 적극 장려, 4개국 이상 대학원생 참여 국제학술대회 다수 개최</p> <p>[연구실 별·연구 어젠다팀 별 LAB 지원] 5팀 채택, 발표 및 논문 성과 창출</p> <p>[진로 및 세미나 지원] 교육 과정을 연구자트랙 vs. 전문가트랙 이원화</p> <p>[취(창)업 현황] 전공 살려 교육 현장 활동</p> <p>3. 대학원생 연구역량</p> <p>[연구 실적] 창의성·혁신성이 보이는 실적, 어젠다 심화, 해당 전공분야 기여 실적 다수 창출</p> <p>[연구 수월성 증진] 국내외 학회·학술지 정보 제공, 인센티브 지급, 논문 첨삭 지도 등</p> <p>4. 신진연구인력 운용</p> <p>[연구 실적] 4단계 BK21사업 신청 당시 총 연구 실적 환산 편수 3단계 당시의 과반 달성 1인당 연구 실적 환산 편수 3.38편으로 3단계의 3.86편 근접</p> <p>[공동연구 추진] 논문 수, 교육연구단 어젠다 전파 활동 증가</p>		

	<p>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관련 논문 게재, 저서 집필 참여 - 트랜스-동아시아에 입각한 교과목 개발 및 개설, 교과목 내용 토대로 수강생 논문 게재 <p>6. 교육의 국제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스-동아시아 인재 양성 위해 세계 우수 대학과 학위교류 협정 체결 - 교내 학술 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22회 개최 - 학과 외국인 교수와의 학술 네트워킹 구축, 외국인 학생의 체계적 관리 상담 - 대학원생 해외 공동연구 참가 및 단기 해외 연수 파견
<p>연구역량 영역</p>	<p>1.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달성도</p> <p>[국제저명학술지 개발 및 투고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 2022년 SCOPUS 등재 -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체계 마련 -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논문Clinic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성과 창출 <p>[인센티브제 등 경쟁시스템]</p> <p>[국내외 각종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지원과 우수논문, 교육으로의 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교수 국내외 연구과제 수주: 4건 - 참여교수 논문 실적: 총 73편, 저역서 실적: 총 18편, 어젠다 관련 연구성과 창출 - 참여교수 연구-교육 환원 ‘고성방가’ 인문교육 프로그램: 총 7건 <p>2. 연구목표 달성 전략에 따른 성과</p> <p>[다양한 국제 교류 장려책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아시아 신진 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주관, 주최 -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고려대학교-인도네시아대학교 학술교류대회(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창설 <p>[교내외 유사 LAB 간 트랜스 연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신청 공모> 실시, 인센티브 지급 -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 관련 프로젝트팀 회의비 지원 → 학술대회 연구발표 총 4건, 논문 발표 1건 등 어젠다 관련 성과 창출 <p>[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LAB 운영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교육 선순환 사례: 총 10건
<p>향후 계획</p>	<p>[교육 및 연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편된 교과과정의 성공적 운영: 기초공통과목, Code Sharing, 비교과 과목 수강 확대 등 - 연구자·전문가 이중 교육 트랙 제도의 지속적 운영 - 연구역량 지속 강화: 연구회를 통한 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활성화 - 어젠다를 확산·발전시키는 연구 성과 산출 독려 -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지원, 어젠다 관련 연구발표 및 확산 독려 <p>[국제화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 활성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을 현실화 <p>[산업사회 기여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Living LAB 사업 추진 및 확산 → 교육·연구 성과의 사회문제 연계 및 확산 노력 다변화 -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확대 - 지역사회와 산업체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목 차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2
1. 교육연구단 구성	2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2
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3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4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7
2.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8
II. 교육역량 영역	18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8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18
1.2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33
2.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실적	38
2.1 평가 대상 기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38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실적	39
2.3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현황	42
3. 대학원생 연구역량	44
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44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실적	60
4. 신진연구인력 운용	63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63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71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71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74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74
6.2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78
III. 연구역량 영역	81
1. 참여교수 연구역량	81
1.1 연구비 수주 실적	81
1.2 연구업적물	81
1.3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 실적	85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90
2.1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실적	90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101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101

<부록> 첨부자료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I. 교육연구단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 구성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2023.2.28.)

성명	한글	영문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원) 중어중문학과(부)

<표 1-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장 변경 현황

연번	성명	교육연구단장 수행 기간 (YYYYMMDD-YYYYMMDD)	변경 사유
1		20200901-20210131	연구년 수행
2		20210201-현재	

단장의 대표적인 연구역량과 교육·행정 성과 및 역량은 다음과 같다.

☐ 연구역량

● 논문: 평가 기간 중 총 10편.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 및 PBL 관련 논문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발전·확산

-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중국문학』 106, 2021.2.)
-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 — K대학 중일어문학과 ‘중국고전문학PBL’ 수업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72, 2021.6. 공동저자)
-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76, 2022.6.)

● 역서: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공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국내학술대회 발표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현재와 미래」(한국중국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11.)

● 국제학술대회 개최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conference> 개최 총괄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어문학교육연구단, 2023.1.13.

- 총 9개국 15개 대학 36명의 대학원생이 연구 성과 발표

- 총 19명의 국내·외 우수 대학의 전임교수 및 연구원이 토론 및 기조 강연

[관련 언론 보도]: 고려대,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개최(한국대학신문 2023.1.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0035>

교육·행정 성과 및 역량

● **문과대학 디지털인문센터 센터장 취임**

- 문과대 신입생 융복합 교과목 <디지털인문학입문 I, II> 개설
- 다양한 유관 분야의 교수자들이 모인 합동 강의 진행
- MOOC를 통해 교내외 어디서나 수강 가능
- 교내외 디지털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융복합 교육 실현
[관련기사] 문과대학, ‘디지털 인문학 입문’ 교과목 신설



● **담당 수업: 전공 심화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트랜스 교과목 개설**

- <동서양의 사랑시>, <동아시아문학지리학> 등

● **석박사 배출: 박사: [redacted] (2022.8.) 석사: [redacted] (2022.2.), [redacted] (2023.2.)**

- [redacted]: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 [redacted]: 고려대 박사과정 진학 / [redacted]: 광남고 중국어 교사 부임(2023.3.)

● **학문의 개방화 / 대중화를 위한 강연**

- ‘당시는 어떻게 정전이 되었나?’ (2020.11.13. 제67기 최고위정책과정 특강)
-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인문학의 자세’ (2022.12.19. 영훈고와 청원여고 학생 대상 특강)
- 유튜브 채널 개국 및 영상 업로드: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유튜브 채널 “트랜스-동아시아 TV” (약칭 “트동TV”)를 개국하여 거버넌스/플랫폼을 구축. [redacted] 단장은 이 채널의 ‘지식나눔’ 코너에 중국고 전문학사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선도

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교수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 참여 여부
1	[redacted]	[redacted]	일본어교육		X	O	O
2	[redacted]	[redacted]	일본문화학		X	O	O
3	[redacted]	[redacted]	중국현대문학		X	X	O
4	[redacted]	[redacted]	성문학 (중국어학)		X	X	O
5	[redacted]	[redacted]	일본고전산문		X	X	O
6	[redacted]	[redacted]	중국시		X	X	O
7	[redacted]	[redacted]	일본 근현대문학		O	X	O

8		일본		X	X	O
9		통사론 (중국어학)		X	X	O
10		일본 근현대문학		X	X	O
11		중국현대문학		X	X	O
12		일본문화학		X	X	O
13		중국소설		X	X	O
14		일본어교육		X	X	O
15		의미론 (일본어학)		X	X	O
16		중국고전문학		X	X	O

1.3 교육연구단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현황

(단위: 명)

평가 대상 기간	총 환산 참여교수 수		
	기존교수 수	신임교수 수	합계
2020.9.1.-2023.2.28.	16.4	0	16.4

<표 1-4>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변동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총 참여교수 수	17	17	16	17	16	
신규 참여교수 수	0	0	0	1	1	신규임용
종료 참여교수 수	0	0	1	0	2	정년퇴직

<표 1-5>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참여/종료	변동 사유	비고
1		2021년 2학기	종료	정년 퇴임	
2		2022년 1학기	참여	신규 임용	2022.3. 임용
3		2022년 2학기	종료	정년 퇴임	
4		2022년 2학기	종료	정년 퇴임	
5		2022년 2학기	참여	신규 임용	2023.2.28. 임용

<표 1-6> 교육연구단 평균 참여대학원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계
5개 학기의 평균	18.6	29	0	47.6

<표 1-7>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1		중국	길림사범대			없음
2		중국	고려대	TOPIK 172		
3		중국	상해사범대			없음
4		일본	간사이대			없음
5		일본	코베여자대			없음
6		중국	란주대			없음
7		중국	광동재경대	TOPIK 216		
8		중국	북경사범대	TOPIK 255		
9		중국	상하이해양대	TOPIK 160		
10		중국	장춘사범대			없음
11		중국	고려대			없음
12		중국	한산사범대	TOPIK 231		
13		중국	하얼빈사범대	TOPIK 235		
14		일본	선문대	TOPIK 278		
15		일본	쓰쿠바대			없음
16		일본	와세다대			없음
17		일본	선문대	TOPIK 6급		
18		일본	아이치학원대			없음
19		일본	고려대			없음
20		중국	대전대			없음
21		중국	흑룡강대			없음
22		중국	중국해양대			없음
23		중국	하이난사범대	TOPIK 255		
24		중국	하얼빈사범대	TOPIK 163		
25		중국	고려대	TOPIK 252		

2.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계획 대비 주요 성과 요약

○ 교육과정 개편

- 총 5개 전공체계 수립: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일본문학·문화>, <중일지역·비교문화>
- 기초공통과목 지정 및 신설(총 16과목), 평가 기간 내 9과목 개설
- Code Sharing의 실시 및 활성화: 총 81명이 56개의 타과 과목 수강(중복계산)
- ‘연구자’ vs. ‘전문가’ 이중 트랙 제도 실시: BK참여대학원생 총 4명 전문가트랙 지원
- 문제탐구/창의과제 수업 개설(각 6과목): 평가 기간 내 5과목 개설
- Data Science 정규과목 신설: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4차산업혁명시대의트랜스-동아시아>, 디지털인문학 강연 개최

○ 우수인재 확보

- 우수 교원 확충: █████ 교수(중국현대문법), █████ 교수(일본 근현대 문학·문화)
- 우수 신진연구인력 선발: 일본, 중국, 미국 우수 대학 학위 취득자 선발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및 지원: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총 25명 재학, 장학금 지급

○ 연구지원체계 구축

- 체계적 논문지도 및 발표회 개최: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전공별 멘토링, 월례연구회 실시
- 국제학술지 논문 출간을 위한 ONE-STOP 지원: 논문 작성부터 투고까지 체계적 지원
- 논문게재료 지원: 회당 10만원까지, 횟수 무제한
- 우수성과 발표회 실시: 어젠다 확장 연구 성과 독려, 포상금 지급
- 인센티브 지급: 논문과 학술활동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내외 장·단기 연수 지원: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2023.2.9.-2023.2.11. 인도네시아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BK참여대학원생 총 8명 발표

○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구축

- Living LAB 사업 추진:<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
-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유튜브 채널 “트랜스-동아시아TV”

○ 국제교류 체계 구축

-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2023.1.13. 온라인)
: 총 9개국 15개 우수 대학 대학원생 36명 참가, BK참여대학원생 총 11명 발표
-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2023.2.9.-2023.2.11. 인도네시아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참여대학원생 총 8명 발표, 인도네시아대학교 인문학부와 MOU 체결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개최
-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개최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개최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총 22회, 온라인): 온라인 기반 학술교류의 기틀을 마련

2.1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아래의 2대 교육 비전과 5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

아래에서는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에 대해 <사업신청서>에서 제시하였던 실행 계획과 평가 기간 내 달성 정도를 요약, 도표화 하여 제시하겠다.

☐ Trans-Disciplinary: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계획 대비 달성도 요약]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동아시아에 관한 트랜스 연구를 통해 ‘통섭적 창의 인재’를 양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적 장치의 수립 — 과감한 학제융합, 어젠다 발굴, 소규모 연구조직 지원, 우수 교원 확보,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국내·외 장·단기 연수 기회 제공, 연구지원 체계 구축 등 — 을 계획하였다.

평가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 중 첫 번째인 Trans-Disciplinary(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에 대한 달성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rans-Disciplinary(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달성도

실행 계획		달성 정도(2020.9.1.-2023.2.28.)
학제융합 및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전공체계 수립 ● Core Curriculum 지정 및 신설 ●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개의 전공체계 수립 :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일본문학·문화>, <중일지역·비교문화> - 총 16개의 기초공통과목 지정 및 신설: 평가 기간 내 총 9과목 개설 - 문제탐구 과목 6개, 창의과제 과목 6개 지정, 운영: 평가 기간 내 총 5과목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Sharing을 통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1명이 56개 타과 과목 수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과 전공 교차 수강, 공통 학점 인정 과목 확대 ● 개방형 과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구조 시스템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과목 총 5개 개설 - <u>연구자트랙과 전문가트랙</u>으로 교육과정 이원화: 전문가 트랙 총 4명 신청 -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물 상세안」 제작·배포: 전문가트랙의 성공적인 시행·정착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젠다(‘트랜스-동아시아’)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 제작·배포 - 우수성과 시상: 어젠다 심화 연구 성과 독려 -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약칭 TEAS conference> 개최: 참여대학원생 11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연구조직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인큐베이터>: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전공별 멘토링, 월 1회 발표회 진행 - 세부 전공별 연구 소모임 - 어젠다 집중 연구 회의비 지원: 총 5팀 지원, 우수 연구 성과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연구 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간 내 총 2명의 우수 신입교원 임용 - ■■■ 교수: 중국현대문법 전공 - ■■■ 교수: 일본 근현대문학·문화, 번역론 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기간 내 총 25명의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장·단기 연수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과 공동으로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참여대학원생 8명, 참여교수 5명, 신진연구인력 1명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지원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게재료 지원: 최대 10만원, 횟수 무제한 - 논문 및 학술활동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국제학술지 논문 작성·투고를 위한 ONE-STOP 시스템 운영 - 국내·외 학회 참가시 등록비 및 출장비 지원

[기초공통과목] 평가 기간 내 기초공통과목 개설 현황

-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 연구교수
- <동아시아일본어문학> ■■■ 교수
-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 교수
- <동아시아문학지리학> ■■■ 교수
- <동아시아언어문화> ■■■ 교수
- <문헌정보와자료조사> ■■■ 교수

<중상급전공일본어>
 <동아시아언어문화>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

강사
 강사
 교수

[문제탐구/창의과제 과목] 평가 기간 내 개설된 문제탐구 과목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교수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교수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교수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 교수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 교수

※ 2023-1학기: 창의과제 과목 중 <일본어학·교육창의과제>() () 강사) 개설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개최] 본 교육연구단은 2023년 1월 13일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고려대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총 9개국 15개 명문대학의 대학원생 36명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트랜스-동아시아’ 라는 공통 주제로 문학, 문화학, 언어학, 지역학 등 동아시아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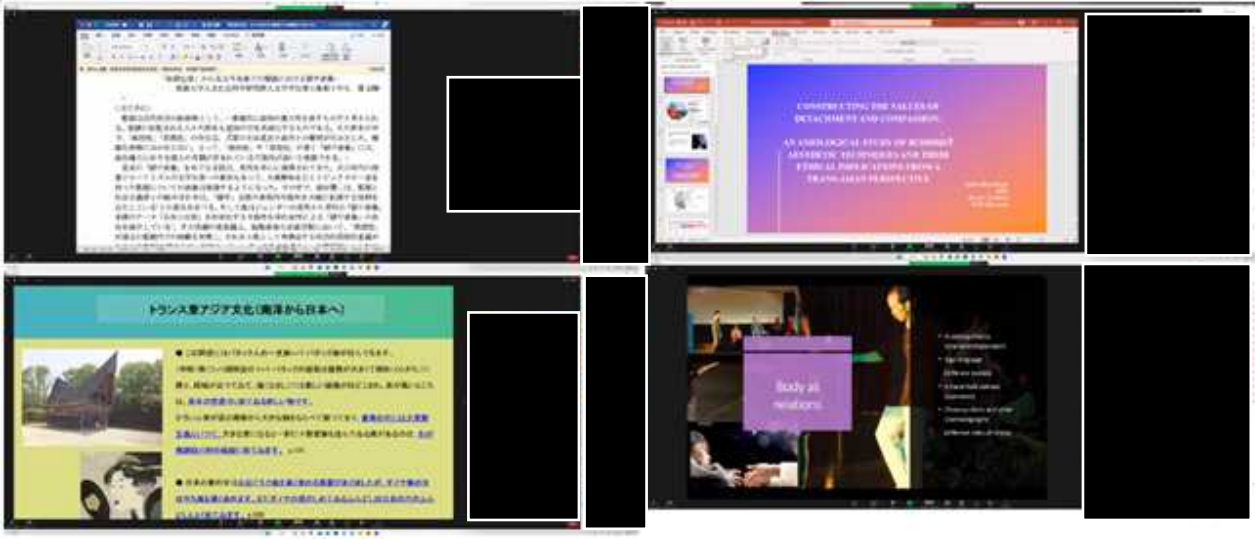
학술대회는 1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각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학회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프로시딩 외에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논문 제요집을 발간하였다.



TEAS 포스터

* 관련 언론 보도

<p>한국대학신문</p>	<p>파이낸셜뉴스</p>	<p>NEWS 1</p>	<p>헤럴드경제</p>



TEAS 발표 장면

Trans-Knowledge: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계획 대비 달성도 요약]

‘Trans-Knowledge’ 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서>에서 Data Science 등의 지식을 활용해 한국적 시각에서 지식을 창출·확산할 것을 계획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은 Data Science 관련 정규과목을 신설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인문학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평가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인 Trans-Knowledge(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의 달성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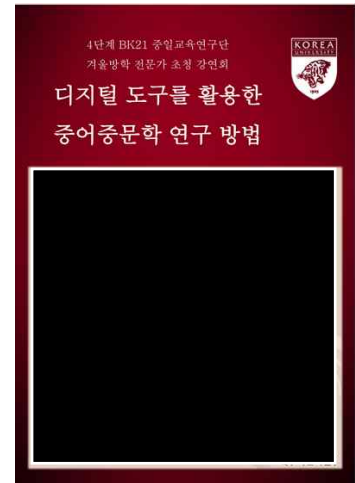
Trans-Knowledge(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달성도

실행 계획	달성 정도
● Data Science를 이용한 동아시아학 연구 관련 수업 개설	-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 <4차산업혁명시대의트랜스-동아시아> 신설, 운영
● Data Science 등의 지식을 활용해 한국적 시각에서 지식을 창출·확산	- 디지털 인문학 전문가 초청강연회: 6회 연속 강연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방법 - 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redacted] 교수 · [redacted] 연구원
	- 텍스트마이닝 시리즈 강연회: 3회 연속 강연 - 연사: 인오피스 [redacted] 대표
	- 인기 유튜버 초청 특강: 3회 연속 강연 - 영상콘텐츠 기획 / 제작 / 편집 / 브랜딩 - 연사: [redacted] 뮤지컬 배우 겸 유튜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 방법] 본 강연을 통하여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습득하였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본 강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회차: 중문 데이터 분석 개론
- 2회차: 중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정규표현식
- 3회차: 중문 언어 분석을 위한 Python(Colab)
- 4회차: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1)
- 5회차: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2)
- 6회차: 중문 언어 분석(Word2vec)

본 강연을 통하여 BK구성원들은 디지털 도구를 각자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Trans-National: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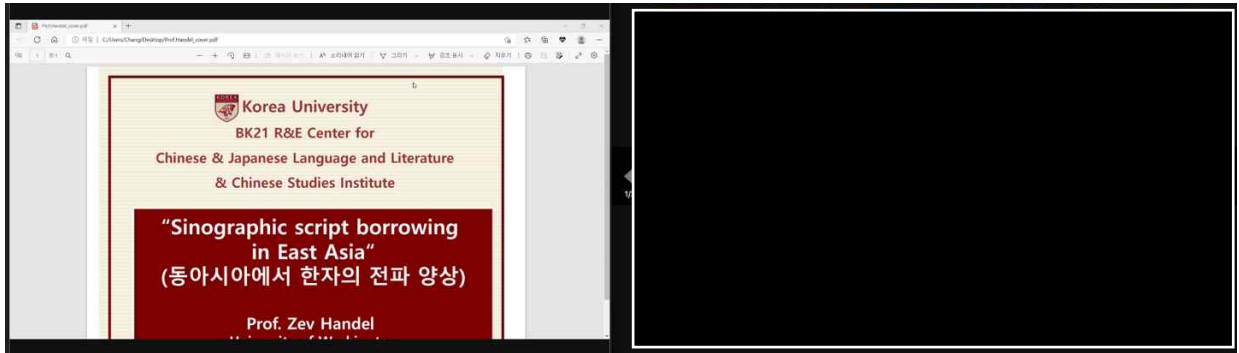
[계획 대비 달성도 요약]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교내 공동연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교수-국외 교수-대학원생)를 위한 제도 구축을 계획하였다. 정규 교과목으로 <영어논문 작성법>을 개설하고, 웹 기반 국제 온라인 수업 방식도 개발하고자 하였다.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에 매진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평가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 중 세 번째인 Trans-National(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선도)의 달성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rans-National(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선도) 달성도

실행 계획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및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2. 인도네시아 대학과 공동으로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개최, 국제공동연구 기틀 마련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22건 개최(온라인). - 교내 공동연구 활발: 총 1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대학원생 공동연구 ○ 어젠다 관련 신진연구인력 간 공동연구 중-일 신진연구인력 공동논문 3편 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논문 작성법> 개설 ● 웹 기반 국제 온라인 수업 방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학술지 논문 지원 ONE-STOP 시스템 운영 - 다양한 온라인 기반 강연회 및 학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선발, 교육 ● 국내외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대학원생 총 25명 선발, 장학금 지원 - 일본, 중국, 미국 유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연구인력 확보, 우수성과 창출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스크린샷

♣ COVID-19로 인하여 국제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국제학회 개최 및 온라인 해외 석학 초청강연회 개최라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활발한 교류를 지속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국제학술 교류 및 공동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웹 기반 국제 온라인 수업 또한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다.

Trans-Society: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계획 대비 달성도 요약]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시그니처’ 과목을 지정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와 산업체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 중 네 번째인 Trans-Society(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의 달성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rans-Society(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달성도

실행 계획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 ‘시그니처’ 과목 지정, 연구성과 확산 ● 사회 문제해결형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와 산업체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문제해결형 비교과 프로그램 Living LAB 추진 -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 주제: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 - 유튜브 채널 “트랜스-동아시아 TV” 개설, 운영

Living LAB 사업은 학부생 연구원,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각계 전문가 등 총 4개의 모듈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학부생 연구원	트동이의 10분 비디오	한·중·일 과거와 현재 교류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한 V-Log 제작
참여대학원생	좌담회 / 소프트 인문학 포럼	한·중·일 삼국 간의 진정한 이해 도모
참여교수	<지식나눔> 시그니처 강의	유튜브 지정 코너에 강의 업로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에 일조
각계 전문가	전문가 초청강연회	각계 전문가 6명을 초청, 중국과 일본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자리 마련

♣ 사업의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유튜브 채널(“트랜스-동아시아 TV”, 약칭 “트동TV”)을 개설, 운영 중이다. [관련 웹사이트: [트동TV - YouTube](#)] COVID-19로 인하여 교육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통로가 좁아진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라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 문제해결형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사회와 산업체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Trans-Koreanology: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계획 대비 달성도 요약]

동아시아에서의 학술연구와 교육은 서구의 시각이 중심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한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PBL(Project-Based Learning) 과목을 신설하고,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주체적 입장에서 동아시아학을 재편하고 종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적 시각에서 동아시아학 연구의 중심지가 될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평가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의 5대 목표 중 다섯 번째인 Trans-Koreanology(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의 달성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rans-Koreanology(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달성도

실행 계획	달성 정도
● 한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PBL과목 신설	- 문제탐구, 창의과제 과목 각 6개 지정 - 2021-2학기부터 지속적 개설·운영 - 평가 기간 내 5과목 개설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 다양한 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Living LAB 사업 추진 - 한·중·일 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해결책 모색
●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conference)〉 개최 -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개최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주관 -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주관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주최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총 22회, 온라인
--	--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개최]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이라는 본 목표의 결정체는 다름 아닌 2023년 1월에 본 교육연구단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conference)**이다.

♣ **본 학술대회의 의의:** 첫째, 본 교육연구단의 그동안의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해 훈련된 총 11명의 참여대학원생이 국제무대에서 본인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귀중한 의견을 들었다. 둘째, 한국은 그동안 동아시아학 연구에 있어 변방에 머물렀던 감이 없지 않았으나, 본 교육연구단이 주최·주관한 본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를 통해 동아시아학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발 동아시아학 연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셋째, 향후 국제학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개최]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로, 온라인 발표와 오프라인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발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교육연구단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총 8명의 BK참여대학원생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학회를 통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인문학부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활발한 학술교류가 기대된다.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주관]

2021.10.16.~17. 비대면 개최(참여교수 3인·신진연구인력 1인·참여대학원생 6인 연구발표
 2022.10.15. 비대면 차세대 포럼 개최(참여대학원생 3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1인·신진연구인력 1인 토론)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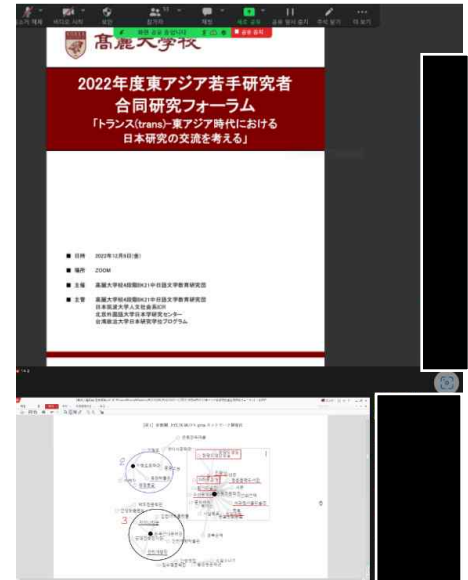
본 포럼은 일본쓰쿠바대학, 북경외국어대학, 대만정치대학과 본 교육연구단이 매년 개최 중이다. 동아시아 일본 연구의 학술교류와 차세대 연구자의 육성을 위해 경계와 세대를 넘은 국제적인 연구 교류 행사이다.

2021.12.4.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3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1인·신진연구인력 1인 토론)
 2022.12.9.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6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5인·신진연구인력 2인 토론)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주최]

2021.11.26.~28. 비대면 개최(참여교수 7인·신진연구인력 1인·참여대학원생 8인 연구발표)
 2022.11.4.~6.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공동 주최

♣ 상술한 바와 같이 지난 2년 반 동안 본 교육연구단이 당초 계획한 제도적 장치가 아래와 같이 상당 부분 완비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시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성과로부터 해외 복수학위제 활성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사회문제 해결형 교과목 확대, 지역사회와 산업체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음 단계의 목표 달성에 안정적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확신한다.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2022.12.9.)

4단계 BK21사업

II. 교육역량 영역

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실적

가. 대학원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운영 계획 대비 달성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 및 보완점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대학원 교육 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① 통섭적 교육 방법론의 수립

- 대학원 Core Curriculum 확대, 기초실력 함양
- Cross-Listings과 Code Sharing 제도 도입, 타전공과 융합 추구
- 온라인 기반 학습 방법론의 다양화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AI 교육기반 완비

- 본부 및 대학원과 협조, 전공영역에 DS / AI 교과목 신설 운영

③ 사회 확산 교과목 신설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다양화

- SDGs 관련 공통과목 신설
- 온·오프라인 ‘시그니처’ 교과목 개설
-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 운영

④ 산학 협력 교과목 신설

- 전문가트랙에 PBL 교과목과 캡스톤 디자인 과목 신설
- 비교과 프로그램 충실화

⑤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교육 대상 지역의 확장, 상대 언어 교차 학습 과목 신설
- 영어논문 작성법 세미나 수강 독려
- 웹 기반 국제 교육교류 다양화

⑥ 입체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한국적 시각의 정립

- 타 전공 교차 수강을 통한 자기 전공 확대
- 교내외 학술행사 진행 체험 및 봉사활동 등 기회 부여

⑦ 본부 채널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 적응, 진로, 교수법, 인문 탐구 방법 습득을 통한 전문성, 의사소통, 리더십 배양

☐ 통섭적 교육 방법론의 수립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Core Curriculum(기초공통과목) 신설 및 지정, Cross-Listings과 Code Sharing 제도 도입을 통한 연구 영역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목표에 대한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다.

[기초공통과목 신설, 지정 및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생이 동아시아 관련 학습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2020-2학기 총 14개의 기초공통과목을 신설 혹은 지정하였다. 이후 두 과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 총 16개의 기초공통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본 학과의 기초공통과목과 평가 기간 내 개설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본 학과의 기초공통과목 및 평가 기간 내 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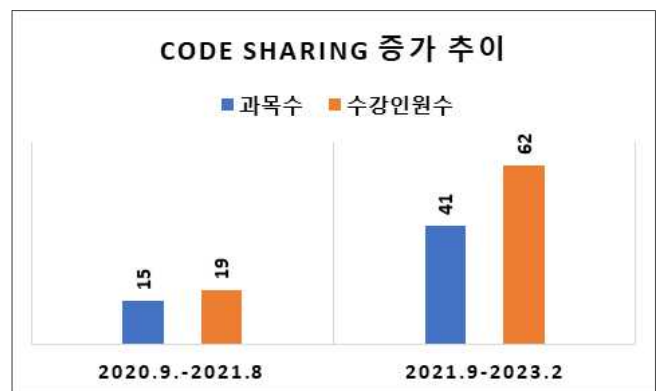
어젠다 관련 교과목	개설	전공 기초 교과목	개설
트랜스동아시아문화론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	○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문헌정보와자료조사	○
동아시아언어문화	○	학술중국어기초	
동아시아문학지리학	○	학술일본어기초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	○	초중급전공일본어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	중상급전공일본어	○
동아시아일본어문학	○	일본어문법론 I	
중일어문학 · 지역학과혁신주체의리더십		일본어교육연구 I	

- 이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문적 기본 소양을 갖추고,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방법론을 습득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기초공통과목의 자세한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전공과목보다 수강생의 수가 많고, 중일 어문학과 대학원생들이 교차로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초공통과목 개설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 <동아시아문학지리학> (■■■■ 교수)은 총 23명이 수강하였다. 전공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문학전공 11명, 일본문학 · 문화전공 4명뿐만 아니라 중일지역 · 비교문화전공, 일본어학 · 교육전공, 중국어학 전공, 국어국문학과 고전문학전공생이 각 2명으로, 다양한 전공생들이 수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 (■■■■ 교수)는 총 20명이 수강하였다. 중국문학전공 8명, 중국어학전공 4명뿐만 아니라 일본문학 · 문화전공 4명, 일본어학 · 교육전공 4명이 수강하여 중-일이 교차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de Sharing을 통한 연구 영역 확대] <중일어문학과 대학원 내규>에 따르면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라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목 또는 기초공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본 학과의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연구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타과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평가 기간 동안 Code Sharing을 통해 총 56과목(중복계산)을 총 81명의 대학원생(중복계산)이 수강하였다. Code Sharing의 빈도수는 4단계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9.-2021.8.에는 총 15개 교과목을 19명이 Code Sharing 한 것에 반해, 2021.9-2023.2.에 들어서는 수강 과목 수와 수강생 수가 모두 현저히 증가하여 총 41개 교과목을 62명이 Code Sharing하였다.



아래의 표는 2022년 Code Sharing을 통해 수강한 과목 및 중일어문학과 소속 대학원생의 수강인원 수를 예시하였다. 본 제도를 통해 본 학과의 대학

원생들이 국어학, 언어학, 교육학, 사학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영화이론 및 비평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이수하고 있다. 이는 Code Sharing 제도를 통하여 대학원생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폭넓은 지식을 쌓고,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대하며,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에 유용한 연구방법론을 습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2022년 Code Sharing 목록 예시(총 25건)

개설 학과	개설 과목	수강인원
교육학과	교육과정연구	1
	교육정치학	1
국어교육학과	고전문학의일반이론	1
	문법교육연구방법론II	1
국어국문학과	현대국어학연구	3
	한문소설연구	1
	국어구문이론연구	1
	경학사연구	1
	동아시아문화교류와한국한문학연구	1
	이중언어학연구	1
	현대문학특수과제연구III	1
국제대학원	한국어중급	2
글로벌 한국어언어· 문화협동과정	한국어학연구	2
독어독문학과	초중급전공독일어	1
	독일어권문화특수과제 I	2
문화유산학협동과정	비교민속학	1
비교문학비교문화협동과정	문학과사회	2
	현대문학이론I	1
사학과	일본사연습	1
언어학과	화용론연구	1
	자연언어처리세미나	1
영상문화학협동과정	영화이론및비평	1
	문화콘텐츠의이론과실제	1
영어교육학과	영어드라마읽기교육	1
한국사학과	개화시대민족운동사II	2

[개방형 과목 지정과 운영]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기존의 중일어문학 관련 전공과목 중 개방형 과목을 별도로 지정하여 모든 국적과 전공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이 전공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개방형 과목**은 모든 국적의 수강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도록 교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매 학기 3과목(중국어학 혹은 일본어학 영역에서 1과목, 중국문학 혹은 일본문학 영역에서 1과목, 중일 비교문화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의 개방형 과목의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기간 내 개방형 과목으로 개설된 수업은 아래와 같다.

<동아시아문학지리학>
 <동아시아언어문화>
 <문헌정보와자료조사>
 <동아시아언어문화>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

교수
 교수
 교수
 강사
 교수

이들 개방형 과목의 수강 현황을 살펴보면, 중일어문학과 대학원생 외에도 국어국문학, 동양사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방형 과목의 취지가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개방형 과목의 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 AI 교육기반 완비

본 교육연구단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AI 교육기반 마련 및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Data Science(DS) & Artificial Intelligence(AI) 정규 교과목 신설, 온라인 기반의 학습 및 토론 공간의 다양화 실현을 계획하였다. 각각의 목표에 대한 수행 실적은 아래와 같다.

[Data Sci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DS / AI) 정규 교과목 신설]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4차산업혁명시대의트랜스-동아시아

본 교육연구단은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 <4차산업혁명시대의트랜스-동아시아> 등의 과목을 신설하였다.

- 2022-2학기 [] 참여교수가 개설한 <4차산업혁명과일본근현대문학>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본 수업에서는 그 논의가 활발한 ‘4차 산업 혁명’ 담론을 이해하고, 이러한 담론이 인문학이나 문학 분야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4차 산업 혁명 담론의 인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과 연관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일본 문학이나 문화 분야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2023-1학기에는 [] 참여교수가 <AI시대의동아시아문학연구방법론>을 개설 중이다. 본 과목의 취지는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본문학/문화 및 한일비교문화와 관련하여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연구 논문 작성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 향후 <4차 산업혁명과 동아시아 지정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동아시아 거버넌스 바로미터>, <중국 문학·문화 연구와 데이터 과학>, <데이터 과학 기반 중국어학 연구방법론>, <데이터 과학 기반 일본어학 연구방법론>, <일본의 과학소설(SF)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 등의 교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문학 관련 시리즈 특강 개설]

본 교육연구단은 위와 같은 DS / AI 정규 교과목 신설 외에도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시리즈로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인문학적 지식과 활용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실질적이고 유용한 디지털 도구 사용 방법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문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관련 전문가 초청강연회가 총 12회 개최되었다: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활용법([] 브이알에듀 대표, 총 2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중어중문학 연구 방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연구원, 총 6회), 디지털 전환시대의 중국어문학 연구([]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총 1회), 텍스트 마이닝 관련 강연회([] 인오피스(사회과학 연구개발업) 대표, 총 3회)가 그것이다.

디지털 인문학 관련 특강 목록

강연자	소속	강연 제목
[Redacted]	브이알에듀 대표	I. 빅데이터와 오픈소스 활용법
		II. 오픈소스를 활용한 실습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I. 중문 데이터 분석 개론
		II. 중문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정규표현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III. 중문 언어 분석을 위한 Python(Colab)
		IV.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1)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V. 중문 언어 분석(형태소 2)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VI. 중문 언어 분석(Word2vec)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디지털 전환시대의 중국어문학 연구
[Redacted]	인오피스 대표	I.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방법과 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II. Semantic Network Analysis를 위한 데이터 정제 및 UCINET의 활용
		III. 일본어 텍스트 마이닝 툴(KHcoder) 활용법

[온라인 기반의 학습 및 토론 공간의 다양화]

COVID-19 확산 이후 온라인을 통한 학습, 토론, 학술발표회 개최는 이제 더 고차원적 도구가 아닌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본 교육연구단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강연회, 학술발표회, 국제학술대회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총 22건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구체적인 강연회 일시/제목/강연자 목록은 아래의 ⑥ 입체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한국적 시각의 정립 참고). 상술한 디지털인문학특강을 포함한 <국내전문가 초청강연회>는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혹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하였다.

온라인 기반의 학습 및 토론 공간의 다양화라는 계획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본 교육연구단이 주최·주관한 여러 온라인 국제학술회의가 있다.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2.12.9. 온라인 개최)와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3.1.13. 온라인 개최)가 그것이다.

☑ 사회 확산 교과목 신설 및 문제해결 프로그램 다양화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SDGs 관련 공통과목 신설, 온·오프라인 ‘시그니처’ 교과목 개설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 운영 등을 계획한 바 있다.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위한 여러 항목 중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는 본 교육연구단의 궁극적 목표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한·중·일간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편견과 혐오 감정을 일소하며, 연구 성과를 사회로 확산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사업신청서>에서 제시한 SDGs 관련 과목(가제: 중일어문학 및 지역학과 혁신 주체의 역량)의 개설은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온·오프라인 ‘시그니처’ 교과목 개설 및 시민과 함께하는 강좌 운영은 현재 본 교육연구단의 유튜브 채널인 “트랜스-동아시아 TV”(약칭 “트동TV”)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트동TV”에 <지식공유>와 <전문가초청강연>이라는 모듈을 마련하였다.

<지식나눔>에서는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가 시민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강의를 차례로 업로드 중이며, 이를 통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전문가초청강연>에는

본 교육연구단이 초청한 총 6명의 강연 영상을 공유, 지식의 사회 확산 및 사회문제해결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과 일본의 언어, 문화, 역사, 정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세부사항은 II.1.2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참조). 향후 이와 같은 사회 기여 및 지식의 대중화 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산학협력 교과목 신설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전문가 트랙 실시, PBL 과목 신설, 캡스톤 디자인 과목 신설 등을 계획하였으며, 달성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실행]

본 교육연구단은 고려대학교 대학원혁신본부의 대학원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1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연구 및 진로 방향에 따라 **연구자 트랙**과 **전문가 트랙**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트랙 선택:** 본 학과 석사 재학생은 학과 내규에 따라 입학 후 2학기가 지난 후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연구자 트랙과 전문가 트랙 가운데 한 트랙을 선택한다.
- **전문가 트랙 이수 과목:** 전문가 트랙 이수 석사과정생의 추가 수료요건 9학점은 다음과 같다. 취득 학점 가운데 6학점은 별표로 제시하는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가운데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3학점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전문가 트랙 추가 수료 지정 영역

문제탐구 과목	창의과제 과목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동아시아문화창의과제
중국어학문제탐구	중국고전문학창의과제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	중국현대문화창의과제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중국어문화창의과제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일본어학·교육창의과제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	일본문학·문화창의과제

- **전문가 트랙 졸업요건:** 외국어 시험은 연구자트랙과 동일하며, 졸업시험은 별도 영역에서 출제된다. 논문 대신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대체실적물을 선택하고, 연구지도학점 과목의 결과물로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결과물을 제출한다.

전문가 트랙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2022년 5월 「**석사학위논문 대체 실적물 상세안**」을 마련하였다. 대체실적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하며, 대체실적물의 최소 분량은 원고지 환산 500매로 한다. 본 「상세안」에서는 각 대체실적물에 대해 가능한 주제, 작성방법 및 타 기관에서 기수행한 참고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창작·번역물	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교재	중국어/일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연구·조사 보고서	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사업신청서	정부 정책이나 기업 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신청서

‘대체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대체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가 트랙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실용적 교육,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초청강연회 참가, 전문가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업적 창출 장려, 유관 기관에 대한 전문 인턴십 제도 지원, 동아시아 관련 국내·외 기업 및 관공서와의 협정을 통한 상호 교류 등이 있다.

전문가 트랙-연구자 트랙 간 상호 전환 가능: 석사과정생의 경우 개인의 진로 설계가 유동적임을 감안, 전문가 트랙 이수 중에도 지도교수와 상담 하에 연구자 트랙으로 전환 가능하다. (석사과정 중 1회에 한함)

운영 현황: 총 4명의 참여대학원생이 전문가 트랙을 신청한 바 있다.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가트랙을 이수하고 창작번역물(제목: 유메노 쿠우사쿠(夢野久作) 추리소설 번역물(A4 230매)을 제출하여 2022-2학기 졸업, 2023년 3월 현재 취업 준비 중이다.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은 현재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대체실적물로 연구조사보고서를 신청하여 작성 중이다. [redacted] 학생은 2022-2학기 연구자 트랙으로 전환, 중일어문학과 석사 수료 후 각각 주한일본대사관과 어학원에 취업하였다.

2022-1학기 전문가 트랙 신청자 명단 및 현황

전공	이름	대체실적물	현황(2023.4. 기준)
일본문학·문화	[redacted]	창작번역물	전문가 트랙 수료 후 취업 준비 중
			전문가 트랙 이수 중
중일지역·비교문화	[redacted]	연구조사 보고서	연구자 트랙으로 전환, 수료 후 취업

[PBL 과목 신설 완료, 캡스톤 디자인 과목 신설 추진 중]

본 교육연구단은 전문가 트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 6개의 문제탐구 과목을 개설하여(☞ 세부 사항은 II.1.1. <표> 전문가 트랙 추가 수료 지정 영역 참조), 운영 중이다. 평가 기간 내 개설된 문제탐구 과목은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redacted]	교수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redacted]	교수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redacted]	교수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	[redacted]	교수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	[redacted]	교수



캡스톤 디자인 과목 신설은 전문가 트랙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신청서>에서 글로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육 대상 지역의 확장, 상대 언어 교차 학습 과목 신설, 영어 논문 작성법 세미나 수강 독려, 웹 기반 국제 교육교류 다양화를 계획, 추진하였다.

[교육 대상 지역의 확장과 상대 언어 교차 학습] 앞서 설명한 16개 기초공통과목의 지정 및 Code Sharing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대상 지역의 확장은 기초공통과목 중 <동아시아언어문화>, <동아시아문화지리학>, <트랜스동아시아문화론> 등의 개설과 수행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상대 언어 교차 학습 또한 모든 전공생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초·중급 전공일본어>, <중·상급 전공일본어> 수강 및 Code Sharing을 통해 가능하다.

[영어논문 작성법 습득]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2022-1학기과 2022-2학기에 각각 1명의 본 학과 대학원생이 <영어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를 수강한 바 있다. 또한, Code Sharing을 통해서도 습득할 수 있다. 일례로 2021-2학기에는 본 학과의 학생 1명이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대학원영어논문쓰기(영강)>를 수강하였다.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국제저명학술지 창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저명학술지 투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다. 이에 본 교육연구단은 신청에서부터 투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1학기에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제전문학술지 투고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교육연구단에서 검토하여 지원이 진행된다. 교양교육원과 연계한 논문Clinic, 국제어학원 번역 서비스 중개, 연구진흥팀을 통한 영문교정 시스템을 거쳐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게재비를 지원한다. (☞ 세부사항은 <https://cjerg.korea.ac.kr/cjlc/board/data.do> 참조)

[웹 기반 국제 교육/교류 다양화] 본 교육연구단은 온라인(ZOOM)으로 총 22회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교육연구단의 주최·주관으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2.12.9. 개최)와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3.1.13. 개최)가 온라인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입체적인 시스템 활용을 통한 한국적 시각의 정립

<사업신청서>에서 제안한 Code Sharing 시행, 기초공통과목 개설, 교내외 학술행사 참여는 이미 활발히 수행 중임을 앞서 설명하였다. 특히 활발한 전문가 초청강연회, 총 22건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를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한국적 시각을 정립하는 바탕을 공고히 하였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트랜스-동아시아 전문가 초청강연회] 2021년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동아시아 지식공동체’ 라는 주제로 국내의 동아시아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총 5회). ‘트랜스-동아시아’ 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확산을 위하여 연구 범위를 동아시아, 더 나아가 동서양으로 확대한 강연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강연 주제는 아래의 표와 같다.

‘경계를 넘나드는 트랜스-동아시아 지식공동체’ 강연 목록

강연자	소속	제목
	숙명여자대학교 중국중문학과 겸임교수	세계를 향해 혁신하는 중국
	순천향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명청 시기 역명전례논쟁의 담론지형과 동서문화 비교 연구
	『유라시아 전문록』 작가, 역사학 박사	유라시아에서 동북아로, 다시 동아시아로
	레드독컬처하우스 부사장 겸 COO	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 국경 없는 덕질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문학과 정의: 동아시아 고전 문학 속의 법과 문학적 상상력

♣ 2022-2학기에는 고려대학교 문과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인 Living LAB 사업에 참여, <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중 총 6회의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통하여 동북아 관계의 과거·현재·미래, 한-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일 문화 교류사, 한·중·일 언어와 문화 교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얻었다. (☞ 강연자와 강연 제목 II. 1.2.나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참조)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총 22건의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독일 등지의 해외 석학을 초청해 동아시아 어문, 문화, 사회, 국제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러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연구의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 한편, 한국적 시각을 정립하는 기회를 공유하였다.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목록은 본 보고서의 III.3.1.①가를 참고.)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참여]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평가 기간 내 참가 지원한 해외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포럼	2020.10.17. 인도네시아 개최, 온라인 2021.10.16.-2021.10.17. 일본 개최, 온라인 2022.10.15. 비대면 차세대 포럼 개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	2020.11.21. 대만 개최, 온라인 2021.12.04. 일본 개최, 온라인 2022.12.9. 본 교육연구단 개최, 온라인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	2021.11.26.~28. 비대면 개최 2022.11.4.~6. 본 교육연구단·북경외국어대학 공동 주최

-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아래의 두 국제 학회가 본 교육연구단 주최·주관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약칭 TEAS conference)>: 총 11명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총 8명의 참여대학원생이 발표

☐ 본부 채널을 통한 다양한 비교과 활동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에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예: 학술논문 작성법, 논문Clinic 등) 컴퓨터 및 통계 활용 방법 등 IT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또한 진행 중이다. 학업 코칭, 진로 설계 및 대학원 생활 전반에 대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각 부처에서 진행된 비교과 프로그램의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다.

주관부서	사업명	참여 인원
교수학습개발원	대학원생 대상 맞춤형 학업코칭 Pro	1
교수학습지원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논문 작성법	6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전략	3
교양교육원	논문Clinic	6
	Academic Advisory	3(1/2)
대학원행정팀	학술연구회지원사업	5(4/1)
	AI를사용한영문이력서및자소서위크숍	1
	외국인 대학원생 학업/생활 멘토링 프로그램	1
	졸업생과의 대화 세미나	2
	2022학년도 여름방학 한국어특강	1
데이터과학원	데이터과학입문	1
	클라우드컴퓨팅입문	1
	인공지능과미래산업특강	3
연구윤리센터	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	50
인권성평등센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16
인재양성팀(경력개발)	자기이해워크숍(인문사회계열)	3(2/1)
학술정보큐레이션부	영어논문 작성 및 학술지 선정 방법	1
	기본논문통계	12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작성법	2
	인문/사회과학 대학원생을 위한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	1
	EBSCO Mobile 앱 활용	1
	EndNote20 이용교육/활용교육	2
	Turnitin 이용교육	1
	연구를 위한 정보탐색 전략	2
	온라인 학위논문 제출 방법	1
학생상담센터	대학원생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	4(2/2)
	대학원생의 스트레스 대처역량 증진을 위한 온라인 상담	1
	대학원생을 위한 자기이해 프로그램	2
	대학원생을 위한 긍정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1
	MBTI 성격유형 기반 내 마음 이해	2(1/1)

이상으로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당초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상술하였다. 학사관리 운영 계획 대비 주요 달성 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석사연계과정 운영] 본 대학원은 <사업신청서>에 계획한 바와 같이 학·석사연계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전형 외에 우수 학부생을 조기 선발, **학부 입학 후 5년 이내에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해 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학·석사연계과정 진입 현황

진입연도-학기	이름	세부 전공
2021-1학기	██████████	중어중문학전공
2022-2학기	██████████	일본어학·교육전공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실행] 본 교육연구단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2-1학기부터 연구자 vs 전문가 과정의 이중 교육 트랙 제도 실행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II.1.1.1)④에 서술하였다.)

[졸업 요건 강화] 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까지 **최소 3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명문화하였다.

[졸업 연한 단축] 본 대학원에서는 본교 차원의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 정책에 부응하여 졸업 연한 단축을 실행하고 있다. 본 학과는 본교의 규정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을 석사과정 4년, 박사과정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 이내의 학위취득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 연한 단축을 학과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 등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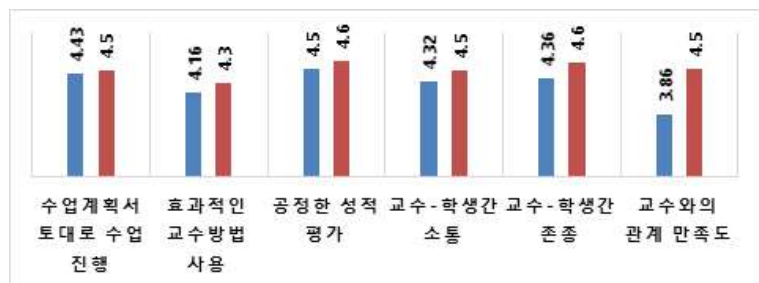
[대학원 교육과정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제도의 완비와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향상된 교육과정의 충실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참여대학원생의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 2월, 참여대학원생 총 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중일어문학과 학생보다 참여대학원생의 교육과정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평가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이 실시한 교과과정 개편 및 BK 차원의 연구지원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반증한다. 본 조사는 총 76명의 대상자 중 49명이 참여하여 64%의 참여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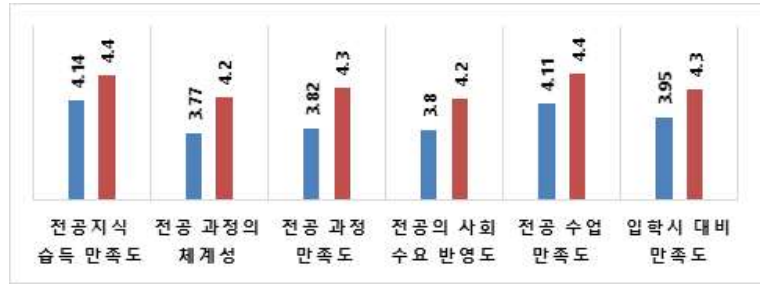
[교수자의 역량 및 학생과의 관계]

모든 항목에서 전체 중일어문학과 학생보다 참여대학원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는 중일어문학과 학생 3.86점(5점 만점)에 비해 참여대학원생은 4.5점으로 0.64점 높게 나타났다. (左: 중일어문학과 전체, 右: 참여대학원생)



[대학원 전공 과정 및 수업 만족도]

전 항목 중일어문학과 학생 조사 결과보다 참여대학원생의 만족도가 적게는 0.26점, 많게는 0.48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공 과정의 체계성’ 과 ‘전공 과정 만족도’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각각 0.43점, 0.48점 높음).



[연구지원 만족도]

‘연구지원의 유용성’ (0.7점 높음), ‘재정적 지원 만족도’ (0.58점 높음) 항목에서 참여 대학원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 본 교육연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학원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다.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대학원 교육과정개편을 통하여 총 16개의 기초공통과목을 지정하고, 6개의 문제탐구와 6개의 창의과제수업을 개설하였다. 아래에서는 전임교수가 담당한 기초공통 및 문제탐구/창의과제 수업의 내용과 성과 및 의의를 간략히 요약한다.

기초공통과목

<동아시아일본어문학> (2021-1학기, [] 교수)

이 교과목에서는 식민지시기 한반도에 거주하던 재조 일본인이 창작한 일본어문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들 재조 일본인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 ▶ 이 수업을 바탕으로 [] 참여대학원생이 「근대국민국가와 식민지주의를 둘러싼 일본의 중세적 세계관 -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일본어 문헌을 중심으로-」를, [] 참여대학원생이 「森崎和江における朝鮮の受容と表出の様相-「対話と無」「南山幻想」によって語られはじめる朝鮮-」를 게재하였다.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 (2021-1학기, [] 교수)

이 교과목에서는 국내 번역된 20세기 초 중국과 일본의 사상 및 문학 관련 서적을 통해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생성 배경을 탐색하였다. 동아시아 현대문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목표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방법론 습득에 기여하였다.

- ▶ 이 수업을 수강한 후 [] 참여대학원생이 「鲁迅杂文的用典原因及方式探析-以『坟』、『华盖集』和『且介亭杂文』为中心」을 게재하였다.

<동아시아문학지리학> (2021-2학기, [] 교수)

이 교과목은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표방한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 이 수업을 통하여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唐詩에서 나타난 南嫌정서 연구 - ‘瘴’자를 중심으로」,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北宋洋州三十景组诗中的空间考察」,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문학작품 속 심상지리 -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를 중심으로 -」를 게재하였다.

<동아시아언어문화> (2022-1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에서는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요 언어의 유형, 계통, 구조 등을 다루었다.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는 담기 어려웠던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것이 이 과목의 의의라 할 수 있다.

▶ 이 수업을 바탕으로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祭·月·元部 운모 변화 분석 - 兩漢에서 魏晉까지」,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慧琳 『一切經音義』에 반영된 경순음화 조건」 등을 게재하였다.

<문헌정보와자료조사> (2022-1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문헌 자료와 정보데이터를 다루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업에서는 문헌 정보와 자료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대학원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연구자료 및 논문을 검색하는 훈련을 진행하였다.

<동아시아문화와뉴미디어> (2022-2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에서는 선정된 영화 전문서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영화문화에 관통하는 창작 특징과 주제 의식을 상호비교 관점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트랜스-동아시아 특징을 가진 영화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 문제탐구 / 창의과제 과목

<동아시아지역연구문제탐구> (2021-2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중일지역비교문화전공의 PBL 유형 과목에 해당하며, 본 교육연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트랙을 시행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 이 수업을 바탕으로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외교 비교 연구 : 동맹의 대체제인가, 아니면 보완제인가?」를, [redacted] 참여대학원생이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무기 이전 비교 연구: 자주국방, 대국 외교, 그리고 해양」을 게재하였다.

<중국현대문학문제탐구> (2022-1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PBL 유형 교과목으로, 수강생들이 중국 현대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일본문학·문화문제탐구> (2022-1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을 고찰하는 등, 전통적 문학연구의 방법론을 뛰어넘어 다양한 시각에서 일본 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국고전문학문제탐구> (2022-2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통속 문학의 개념, 제재, 주제 및 서술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문인 문학과 통속 문학의 특성 및 경계를 탐구하고, 고급 통속 문학의 발전과정을 살핀다.

<일본문학번역문제탐구> (2022-2학기, [redacted] 교수)

이 교과목은 대학원 전문가트랙 PBL 교과목으로 개설되었다. 일본 문학 관련 번역서를 기획하고 번역하여 실제로 번역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개편의 성과 및 의의] 본 교육연구단은 교과과정 개편을 통하여 ‘트랜스-동아시아’로 그

교육 내용과 범주를 확대하였다. PBL 수업을 개설하여 전문가트랙 이수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인문학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안, 교육하고 있다. 그 결과, 중·일 대학원생들의 교차 수강 및 타과 학생의 수강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 지식의 교류 및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성과는 참여대학원생의 다양한 연구성과 도출(논문, 학회 발표, 저역서 등)로 가시화되고 있다.

라.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 실적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양질의 통섭적 교과목 개설] 교과과정 개편을 통하여 총 16개의 기초공통과목, 6개의 문제탐구, 6개의 창의과제수업 개설.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신장,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 세부 사항은 다. 전임교수 대학원 강의 실적 참조)

[대학원생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全)주기적 지원]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과 우수논문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있다.

연구 구상 단계	- 매 학기 <연구계획서> 필수 제출 - LAB의 조직화를 통한 논문 기획 관리
논문 작성 단계	- 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 1:1 멘토링 시스템 - 논문Clinic을 통한 논문 작성 지도
게재·교정 지원	- 논문 게재료 지급 -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를 위한 ONE-STOP 시스템 운영
연구 발표 지원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지속적 연구 기회 부여	- 해외석학초청강연회, 전문가초청강연회 개최 -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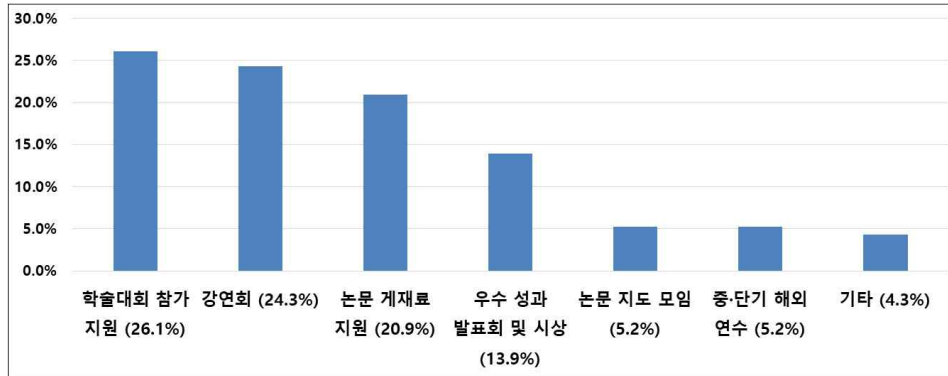
[우수성과 발표회 및 우수연구상 시상]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2021-2학기부터 매 학기 초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여대학원생 중 어젠다를 집중 연구한 논문을 게재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교육연구단 구성원들에게 어젠다를 심화 연구한 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를 각자의 연구에 적용할 기회를 공유하고 있다. 중문 전공자와 일문 전공자를 발표자-토론자로 교차 지정하여 세부전공분야 간의 교류 및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우수성과 발표회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참여대학원생에게는 ‘우수연구상’을 수여하고, 포상금과 장학생 선발 시 특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성과 신청 공모 포스터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본 교육연구단은 최근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BK 교육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결과 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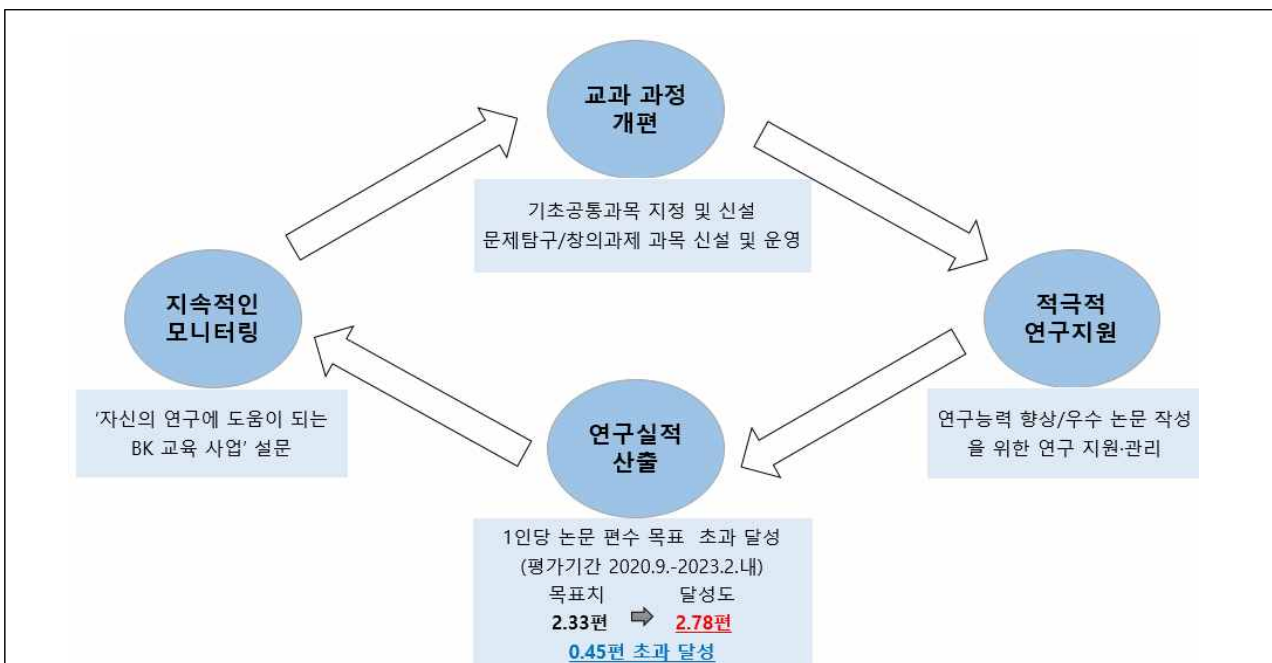
연구단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 중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참가 지원(26.1%),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24.3%), 논문 게재료 지원(20.9%),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연구상 시상(13.9%), 논문지도 모임(인큐베이터[중어중문학과 연구지원 시스템]) 및 월례발표회와 장·단기 해외 연수(각 5.2%) 순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높고,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본 교육연구단은 교과과정 개편, 적극적 연구지원을 통한 다수의 연구실적 산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사업신청서>에 제안하였던 1인당 논문 편수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다.

목표치: 1차년도 0.89편 달성, 7차년도에 1.16편까지 증가: 평가 기간 내 **2.33편**
 달성도: **2.78편 (0.45편 초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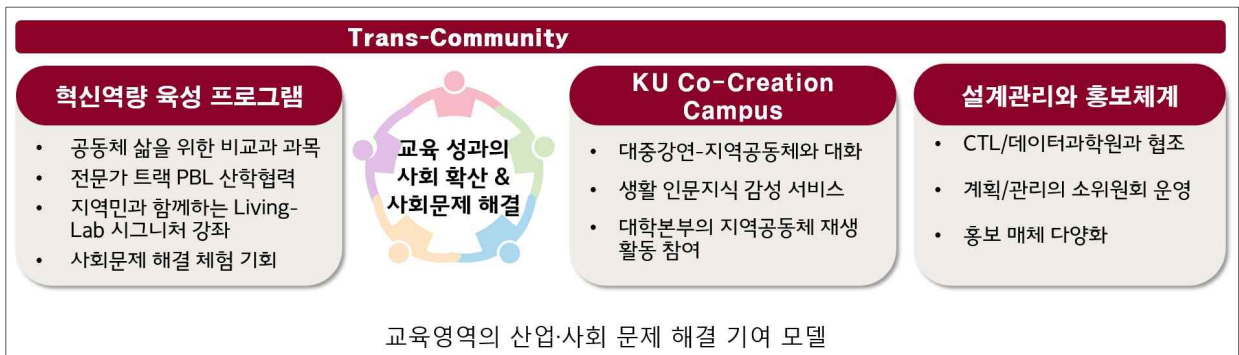


1.2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주요 성과 요약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 역량 육성 프로그램 마련
 - ⇒ 교과 개편 방향 : ① 트랜스 동아시아 사업 아젠다 구현 ② 4차산업시대 대응역량 구비 ③ PBL, 캡스톤 디자인 등 산업 사회 문제해결 모색
 - ⇒ 산업 사회 문제해결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회(총 20회) 운영
- 대학본부 차원의 ‘KU Co-Creation Campus’ 활동의 연계와 참여
 - ⇒ 학부, 대학원, 학교 본부 및 유관 기관과 연계, Living LAB 활동으로 갈등 해소 기제 육성
- 산업·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설계-관리 및 홍보 체계 구축
 - ⇒ 다양한 접근 채널(유튜브 트동TV 등) 확보를 통한 지식 공유 및 거버넌스 기반 조성

[사업 계획]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사업을 구상하며 5대 교육 목표 중 **Trans-Society**를 지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의 보급과 지식공동체 구축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PBL 방식**을 도입하고 일부 **Living LAB 모델**을 구현하는 새로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 대학원생 스스로가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행복을 설계할 줄 알며, 상상력, 다양성,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하는 인문사회학도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과의 유관 연구소와 연계 R&D 활동의 중심이 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 공동체를 잇는 **개방적인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 기간 산업·사회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본 교육연구단이 기획하고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 혁신 역량 육성 프로그램 구축 : 교육과정에서의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본 교육연구단은 당초 **혁신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 기제로서 전공 성과의 사회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그니처** 강의를 운영하여 학술 강좌를 대외에 개방하고 지역 공동체와 학술체험을 공유하는 등 주체적인 학술 봉사 체험 기회 부여하고자 하였다. COVID-19 이후 대중 소통 확보에 대한 제약 사항은 학부와 대학원생 중심의 현장 탐색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시그니처 강좌의 테마 및 사회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를 추구하는 **Living LAB 사업의 변형적 추진**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모색하였다.

[교과과정 개편과 전문가 트랙의 접목] 전문가트랙의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다. 교내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문가 트랙의 실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사업 기간 초기에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에 진력하였으며, 그 결과가 2021-1학기부터 대학원 중일어문학과와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21-1학기에는 개편된 교과목을 기초공통 과목 위주로 시험적으로 운용하였다면, 2021-2학기부터는 전문가 트랙과 연계된 **PBL 유형 과목(문제탐구)**이 차차 개설되어 교육목표와 합치되는 **교육과정이 정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학제를 초월하는 자기 주도형 전공 설계 여건 부여]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과 일본의 언어, 문학 및 비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감각을 두루 지닌 글로벌 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운영 목적의 실현과 아울러 동아시아의 언어, 문학 및 문화 연구의 역량에 대한 대학원생의 자기 주도적 대응 능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Code Sharing을 통하여 **대학원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라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목 또는 기초공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과 운영 내규를 개편하였다. 또한 각 과목에 대한 선수강 요건을 폐지하여 해당 전공 영역에 대한 폭넓은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2021년 입학생부터 적용 중)

[중일어문학과 내규] 전공과목의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석사과정생은 24학점 중 15학점 이상, 박사과정생은 36학점 중 27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석·박사과정생 공히 본 학과에서 개설된 기초공통 6학점과, 일반공통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라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전공과목 또는 기초공통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산업 사회 문제해결 타깃의 전문가 강연회 운영] 본 교육연구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적인 사회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산업·사회의 현안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시야를 공유하는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초청 강연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제반문제해결 능력 함양과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대학원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산업·사회 문제를 적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트랜스-동아시아학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론 학습과 실습을 통해 실제 문제해결 위주의 강연을 운영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 또한 상술한 바 있는 대학본부와 연계한 대학원 혁신을 위한 비교과 운영프로그램 역시 산업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사업 1차년도에 본교 본부부서가 개설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총 54회, 참여비율 54%의 실적을 나타내었고, 2차년도에는 총 114회, 참여율 123%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내었다. 이들 강좌에는 <인공지능과 미래산업 특강>, <영어 논문 작성 및 연구 윤리> 등 연구 역량 강화와 산업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넓히는 폭넓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본부 차원의 KU Co-Creation Campus 활동의 연계와 참여

[대학 본부와 연계한 지식 커뮤니티 형성 활동]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학교 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대학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대화 및 협력, 인문학 성과의 대중 공유를 통한 건전한 지식 생태계의 창출, 그리고 동북아 신냉전과 COVID-19 등 격변하는 글로벌 사회에 대한 성찰적 지혜를 모색하는 등 사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참여교수	교내(외) 협업 기관	지식 커뮤니티 형성 활동
	역사연구소 문과대학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모색: 국민들 간의 이해지평 확대를 위하여>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황 편집,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공식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공개
	Next Normal 위원회 대학정책연구원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 『4회 KU 혁신 포럼』-코로나19 이후 넥스트노멀과 대학의 역할> 행사 좌장 담당
	고령사회연구센터 (롯데건설)	‘초고령 사회 주거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니어 타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업무 협약(MOU)을 체결,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산·학 협력 사례로, 국토일보 외 30여 개의 미디어에 보도
	고령사회연구센터 (GS ITM)	화상 기반 전직 지원 교육 과정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참여, ‘화상기반 B2B 전직 지원 교육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I-HOPE Living LAB 사업 선정] 본 교육연구단은 어젠다 교육과 연구의 노력이 실질적인 산업·사회 문제해결로 이어지고 지식의 대중화 및 확산 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해결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 진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교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인 **I-HOPE Living LAB 사업**(주제: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을 신청, 최종 선정되어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 Living LAB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계된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전문연구진과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및 대중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신청 당시에는 시민사회의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원 개설 강의와 결합하여 시민 사회에 대해 참석 문호를 개방하고, 환류 활동을 통한 지식의 선순환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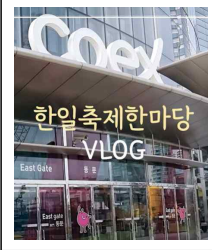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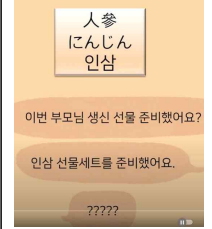
최초 사업 신청 당시 구상한 Living LAB 모델 개념도

[추진 전략 조정과 세분화] 해당 모델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에는 근본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선제적으로 변경하였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패러독스’ 해결을 위한 감정온도 높이기 - 대학원 주도적 지식 창출 활동 조성 - 변경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와 대학원생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창의적 동력 확보 - 본부, 대학원, 학부의 차별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콘텐츠 창출과 성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상호 이해 기반 조성 - 갈등 해소 역량 구축 - 시그니처 강좌 기반 조성 - 학부-대학원 공동 운영 ⇒ 학문 후속 세대 확보

[학부생 연구원 참여형 기획 모델 제시] Living LAB 사업은 한·중·일 삼국에 만연한 혐오의 근원과 확산 과정을 살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 및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실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부와 대학원의 협력적 지식 생태계 구축 모델**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이 활동은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학부와 대학원 소속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이들이 제시했던 기획은 다음과 같다.

팀명	기획 내용	프로그램 성격
대학원 어학팀	중국어 보통화와 방언의 비교	대학원생 인문학 대중화 강연
	한국인과 중국인의 음성인식과 음운체계 비교	
	한·중·일 차이점과 공통점(언어, 문화 특징)	
대학원 문화팀	협한, 협중, 협일 단어의 유형과 인식 조사	학부생 연구원 탐방 활동
학부(일어일문)	탐방 V-Log 및 숏비디오 (한일축제한마당)	
	탐방 V-Log 및 숏비디오 (한일교류인물)	
학부(중어중문)	탐방 V-Log 및 숏비디오 (차이나타운)	
학부(혼합)	탐방 V-Log 및 숏비디오 (시민들의 한·중·일 상호 인식 조사)	



[Tri-Track 추진 전략과 전문가 강연회] 추진 방향을 1. 전문가 초청 강연회(본부), 2 대학원생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3. 학부생 소규모 답사+영상 제작 모임 조직 및 공유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아시아 패러독스 극복을 통한 트랜스-동아시아 감정 온도 높이기>라는 대주제 아래 ①한·중·일 관계의 밀접성, ②한·중·일 협력 관계의 중요성 강조, ③타이완,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 동아시아 시장 개척, ④한중 교류, ⑤한일 교류의 하위 주제를 선정, 아래의 전문가 강연회를 시행하였다.

○ 동북아 관계의 과거·현재·미래

- [redacted] 교수(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redacted] 교수(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중국 100년 활용법 - 위기의 시대 중국 혐오를 넘어

○ 한-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한-일 문화 교류사

- [redacted] 겸임교수(아주대 심리학과): 한국과 일본의 문화 심리: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 [redacted] 초빙연구원(일본 와세다대 한국학연구소): 연대의 기록들— ‘무라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와 조선문화’ 를 기점으로

○ 한·중·일 언어 교류 역사

- [redacted] 명예교수(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조선 사역원의 외국어 교재 역학서, <원본노걸대>를 중심으로
- [redacted] 명예교수(고려대 일어국문학과): 유길준과 서유견문

[성과의 확인과 확산] 해당 강연은 한·중·일의 상호 이해와 감정 회복을 위해 근거 없는 혐오 감정을 일소하고,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한·중·일 간의 상호 연관성 환기, 현 상황 진단,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해당 강연은 후술할 본 교육연구단의 유튜브 채널 “트동TV”에 업로드하여 대중 소통 및 지식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그니처 대중 시민 강의 콘텐츠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 계획의 지향점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산업·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설계-관리 및 홍보 체계 구축

위의 세부 사업 실현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과 학과 내에 기획, 관리, 점검과 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방법론 수립을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운영위원회와의 연계적 추진을 도모하였다.

[교내 기관과 연계한 홈페이지 개편 사업] 먼저 교육연구단 홈페이지(<https://cjerg.korea.ac.kr>)를 개편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사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본교 데이터과학원, 정보전산처의 자문을 통해 본교 통합 홈페이지 플랫폼인 CMS 홈페이지로 개편, 교육연구단 홍보 매체로서 대중화 사업에 맞게 개선하였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관련학회 및 학술지 발간 캘린더, 대학원생들의 협력 연구를 위한 별도 커뮤니티 등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 정보 제공 및 공동 작업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과 대중 활동의 인프라로서 교내 글로벌일본연구원(현 원장 [REDACTED] 교수)과 중국학연구소(현 소장 [REDACTED] 교수)와 제휴, 홍보 및 행사 진행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 각종 강연회와 더불어, Living LAB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강연회 기획 및 대학원-학부생 연계의 거점 제공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구축] 본 교육연구단은 상기 기술한 Living LAB 프로젝트 및 기타 사업의 성과물을 홍보하기 위해 Youtube 채널인 “트동TV” (https://www.youtube.com/@TEATV_KOREA)를 게시, 주요 산출물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지식 대중화 및 공유를 도모**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문을 위해 **전문 크리에이터([REDACTED])**을 초빙하여,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브랜딩 등 향후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한·중·일 감정 온도의 조절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회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모두 채널에 업로드하였다. 현재 해당 채널에는 전문가 강연, 학부생과 대학원생 협력 V-Log, 인문학 지식의 대중 공유([REDACTED] 교수) 등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트동TV 주요 재생 목록

2. 인력양성 현황 및 지원 실적

2.1 평가 대상 기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0년 2학기	20	32	0	52
	2021년 1학기	22	32	0	54
	2021년 2학기	21	30	0	51
	2022년 1학기	16	26	0	42
	2022년 2학기	14	25	0	39
	계	93	145	0	238
배출 (졸업생)	2021년 2월	0	0		0
	2021년 8월	2	0		2
	2022년 2월	3	1		4
	2022년 8월	5	2		7
	2023년 2월	5	4		9
	계	15	7		22

2.2 교육연구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실적

가. 우수 대학원생 확보 실적

- 4단계 BK21사업 이전 5학기(2018-1학기~2020-1학기)에 이어
평가 기간 5학기(2020-2학기~2022-2학기)내 외국인 학생 비율 약 30% 유지
 - 내국인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장학금, 해외연수, 논문 게재료, 연구 인센티브 등 지원
 - 평가 기간 내 1인당 평균 4편의 논문 게재
 - ⇒ 2021 한국중어중문학회 우수논문(), 중국어문학회 우수논문() 등 질적 향상
- 4단계 BK21사업 이전 5학기 대비 평가 기간 5학기 우수 대학원생 확보
평균 41명에서 47명으로 증가

본 교육연구단이 확보한 대학원생은 국내 대학은 물론 북경 대학, 와세다 대학 등 각국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입학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수 외국인 학생도 꾸준히 확보 중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 성장시켰다.

- 은 중국 문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활발히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2022-2학기에는 중국의 시인 이하의 시와 일본의 라이트 노벨을 비교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을 시도하는 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확산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 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본 교육연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현재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본교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은 평가 기간 내 총 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그 중 『중국어문학』 87에 게재된 「丁謂詠物詩研究」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1 한국중어중문학 우수논문>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은 『중국어문학지』 74에 게재한 논문이 연구 내용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국어문학회 2021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나. 우수 대학원생 지원 실적

▣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발표 기회 제공 및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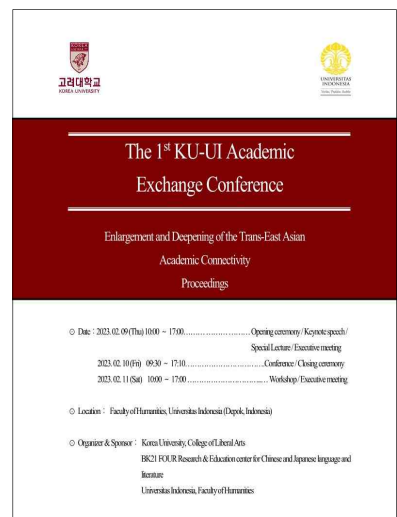
- 4개국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국제학술대회 지속적 개최
 - ⇒ 연구 시야 확장, 연구의 질적 향상, 연구 교류 활성화 효과
 - ⇒ 차후 개최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학교 간의 MOU 체결 등 후속 지원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및 교육 비전을 고려하여 전략적 기획을 통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추진을 목표로 대학원생이 발표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특히 COVID-19 범유행 상황에서도 단기 연수의 일환으로 연구 시야 확장, 연구의 질적 향상,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학원생이 해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적극 장려하였다. 또한 트랜스-동아시아라는 어젠다를 선도하고자 4개국 이상의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수 개최하였으며, 평가 기간 내 개최된 학술대회는 다음과 같다.

국제학술대회명	일정	개최국	진행 형태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2020.10.17.	인도네시아	온라인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 포럼	2020.11.21.	대만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2021.10.16.-17.	일본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제5회 국제학술대회	2021.11.26.-28.	한국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 포럼	2021.12.4.	일본	
	2022.12.9.	한국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3.1.13.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2023.2.9.-11.	인도네시아	온/오프라인

이 중 본 교육연구단의 주도하에 2023년 1월 13일에 개최된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학술대회로, 본교를 포함하여 총 9개국 15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본 학술대회는 평소에는 교류하기 어려웠던 학교의 학생들과 학술적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으로써 참여자들의 연구 시야를 넓히는 데 일조하였다. 학술대회가 종료된 후 확대된 연구 시야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교 대학원생을 주축으로 하여 참가한 대학원생과 함께 차후 개최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현재 구성원이 확정되었으며 이들의 소식을 실을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하였다(<https://cjerg.korea.ac.kr/cjlc/board/teas.do>).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는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로, 온라인 발표와 오프라인 발표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오프라인 발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이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자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가 MOU를 체결하여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을 약속하였다.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포스터

☑ 연구실 별 · 연구 어젠다팀 별 LAB 지원

- 참여교수 포함 총 16명 참여
- 본 학과의 5개 전공 분야 중 <중국문학>, <중국어학>, <일본문학 · 문화> 참여
- 5개 주제 채택 ⇒ 발표 5건, 논문 1건 실적 창출

각종 연구실 별 LAB 활동 및 전공영역을 횡단하는 어젠다팀 별 LAB 활동을 전폭 지원하였다. 4단계 BK21사업에서는 교수·박사과정생·수료생·석사과정생·수료생 간의 유기적인 공동연구를 한층 더 장려하고,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와 관련된 주제로 공동연구를 할 시 LAB 활동을 지원하였다. 2022-1학기 기준, [redacted] 총 5개 팀이 채택되어 지원을 받았다.

[다양한 프로젝트 팀 구성] 본 학과의 5개 전공 분야 중 <중국문학>, <중국어학>, <일본문학 · 문화>

소속 참여대학원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지원받은 팀 중에는 서로 다른 연구실 소속의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곳도 있다. 특히 [redacted] 등, [redacted] 등, [redacted] 등의 연구에는 참여대학원생뿐 아니라 참여교수도 동참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실을 넘어선 교류가 가능해졌다.

[학술대회/학회지에 연구 결과 발표] 지원을 받은 각 팀은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redacted] 등의 연구, [redacted] 등의 연구, [redacted] 등의 연구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한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2023.1.13.)에서 성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redacted]의 연구는 국제학술대회인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2022.12.)과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2023.2.)에서 발표되었으며, [redacted] 발표 내용을 토대로 『인문사회 21』 14(1)(2023.2.)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 논문 게재료 지원

참여대학원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시 논문 게재료를 지원하였다(횟수 무제한, 1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2차년도부터는 게재한 논문이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확산한 우수 연구일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연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3차년도부터는 우수 성과 발표회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지원 내역은 아래 표 참조). 이로 인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었고, 2차년도부터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연구 업적물의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최종 목표치(1.16편)를 초과 달성(1.23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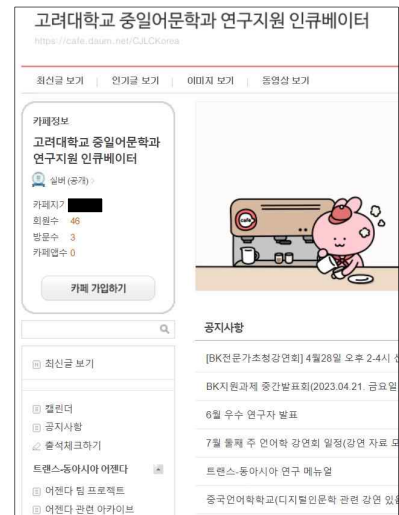
논문 게재료 및 인센티브 지원 내역

	논문 게재료(건)	우수 성과 참여대학원생 발표회 성과급(명)	우수 참여대학원생 성과급(명)
1차년도	11	0	0
2차년도	50	0	10
3차년도	31	6	10

☑ 진로 및 세미나 지원

[연구지원 인큐베이터] 본 교육연구단은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참여대학원생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2021년 3월부터 시행한 대학원생 공동 논문지도 세미나인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연구지원 인큐베이터>에서는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이 전공별 멘토로 참여하여 월 1회 연구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방향 설정과 계획적인 연구 수행을 돕고 있다.

[전문가 트랙 신설] 변화된 대학원 환경과 대학원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에 부응하고자 교육 과정을 연구자 양성 과정인 연구자 트랙과 전문가 양성 과정인 전문가 트랙으로 나누었다. 전문가 트랙은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가 적용되며 2022-1학기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4명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트랙 양성을 위해 문제탐구 과목 6개, 창의과제 과목 6개를 개설하였다.



연구지원 인큐베이터
(cafe.daum.net/CJLCKorea)

2.3 참여대학원생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표 2-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D/C)×100	
		졸업자(A)	비취업자(B)			취(창)업대상자 (C=A-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0	0	0	0	X		
	박사	0	X		0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2	1	0	0			
	박사	0	X		0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3	2	1	0		0	100
	박사	1	X		0		1	
2022년 8월 졸업자	석사	5	2	0	0	3	40	
	박사	2	X		0	2		2
2023년 2월 졸업자	석사	5	X					
	박사	4						

② 참여대학원생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평가 대상 기간)

<표 2-3>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중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연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석사/박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현 직장(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	2022.2.	박사	중일어문학과	중국 Ningbo대학교 인문&미디어학부(전임교원)		
	<p>■은 고려대 중일어문학과에서 중국현대문학을 전공하였으며 2022년 2월 졸업 후 같은 해 9월부터 본인의 전공을 심분 살려 중국 Ningbo대학교 인문&미디어학부 전임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Ningbo대학교는 개혁 개방 중 성장하기 시작한 신형 종합형 대학교로 중국일류대학으로 평가받는 곳이다.</p>						
2	■	2022.8.	박사	중일어문학과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강사) 한양사이버대학교 일본어학과(강사) 서일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강사)		
	<p>■는 일본어학을 전공하였으며 2022년 8월 졸업 후 고려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서일대학교 총 3개 대학교에서 강사로서 <일본어LC I>, <인텐시브일본어 I> 등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한국일어교육학회·언어문화교육연구학회(일본) 공동개최 2022년도 제42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토론을 맡고 2022년에 개최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에서 사회를 맡는 등 학술활동도 활발히 이어나가고 있다.</p>						
3	■	2023.2.	박사	중일어문학과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강사) 한양여자대학교 실무일본어과(강사)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강사)		
	<p>■은 일본어학을 전공하였으며 2021년에 개최된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에서 「恋人間の葛藤場面における言語行動様相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映像媒体の用例を資料として―」를 발표하여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3년 2월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총 3개 대학교에서 강사로서 <교양일본어 I>, <무역실무일본어> 등을 담당하고 있다.</p>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졸업한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15	제출요구량	3
				박사	7		

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참여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학위과정 (석사/박사/ 석박사통합)	참여 대학원생 성명	세부전공분 야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	박사	[REDACTED]	일본 근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대동아권동화총서』, 소환되는 트랜스 동아시아 문 화의 기억 - 『공자님과 거문고 소리(孔子さまと琴の 音)』를 중심으로 -
					③ 비교일본학
					④ 55, pp.177-206
					⑤
					⑥ 2022.9.
					⑦ 10.31634/cjs.2022.55.177
<p>(연구 내용) 1940년대 생성된 『대동아권동화총서』의 제2권으로 간행된 중국 동화집인 『공자님과 거문고 소리』를, 단순히 ‘대동아공영권’ 사상이 반영되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단선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트랜스-동아시아를 회고하며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를 상상한 현재적 의미를 지닌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내용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작품 분석 결과, 일본과 중국의 문화적 유사성이 ‘트랜스-동아시아’에 연유한 것이며,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수용했음을 드러내며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작가의 의식이 동화집에 반영되었음을 밝혀냈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중일어문학과와 중국인 학생과 공동으로 작업하여 전공을 초월한 공동연구로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고전의 원문 해독과 본문과의 대조 작업 그리고 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중국동화집의 특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단일 전공자의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결론을 도출하였다.</p>					
2	박사	[REDACTED]	중국 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새로운 공동체 의식 속 현대적 동아시아 사유 체계의 가능성
					③ 중국학
					④ 77, pp.431-452
					⑤
					⑥ 2021.12.
					⑦ 10.14378/KACS.2021.77.77.20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현대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사유의 현대적 전환을 살펴보고, 이것이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사상, 더 나아가 전 세계 사상의 일부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새로운 개인 주체성이 살아 있는 수평적 사회 질서, 그 위에 건설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근대성과 그 사유 체계라고 보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 사유 체계가 갖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 이후의 전개에 대해 예측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이와 같은 고찰은 트랜스-동아시아라는 어젠다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p>					

3	박사	[REDACTED]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③ 日本學
					④ 54, pp.297-321
					⑤
					⑥ 2021.8.
					⑦ 10.21442/djs.2021.54.13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기존 일본의 해양안정보장이나 해양정책 연구의 연장선으로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행보를 다룬 것이다. 또한 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와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시작한 한국은 향후 동남아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 진출과 협력이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전후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미중 대립이나 중일 대립의 맥락을 동남아시아에서도 발견하고,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의 연구 관점을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한 부분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엿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p>					
4	석사	[REDACTED]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관계 외교 비교 연구 :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
					③ 일본연구논총
					④ 55, pp.9-38
					⑤
					⑥ 2022.6.
					⑦ 10.35368/kjjs.2022..55.001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트랜스 동아시아 시대의 필요성에 정확히 맞는 논문으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북아 3국뿐 아닌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자 안보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 관계를 깊이 해야 하는 지역인 동남아시아까지 그 시야를 넓히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외교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이 다룬 전략적 동반자 개념이란 탈냉전 시기 떠오른 새로운 형태의 관계 설정이라 할 수 있으며, 관계의 성격과 목표가 다층적이기에 다루는 범위가 넓어 국가의 외교 요소를 고루 짚을 수 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한국가의 외교적 이정표가 드러나게 된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논문에서 이루어진, 한·중·일 3국이 아시아의 지역 질서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역인 동남아에 대한 3국 간 비교 연구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또한 트랜스-동아시아 시대에 지역학이라는 세부전공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p>					
5	박사	[REDACTED]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19세기, 새로운 지정학적 공간 한반도의 등장과 중일의 한반도 인식 :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③ 인문사회 21
					④ 21(4), pp.3071-3084
					⑤
					⑥ 2021.8.
					⑦ 10.22143/HSS21.12.4.218
<p>(연구 내용) 한반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정치 구조의 전환기적 상황마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세기 동아시아가 맞이한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19세기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이홍장과 야마가타 아리토모 두 인물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립한 한반도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을 자국의 세력권 아래에 놓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러한 작업은 4단계 BK21사업에서 본 교육연구단이 내건 여젠다에 따라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것이다.</p>					

6	박사	[REDACTED]	일본문화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재해'라고 하는 전시적 상황과 유언비어 : 조선인 학살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③ 인문사회 21
					④ 13(4), pp.3053-3066
					⑤
					⑥ 2022.8.
					⑦ 10.22143/HSS21.13.4.211
<p>(연구 내용) 1923년 발생한 간토대지진을 일종의 전시적 상황으로 보고, 이러한 시각에서 간토대지진 때 유포된 조선인 관련 유언비어를 고찰, 불령선인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문인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조선인 학살사건과 불령선인 담론을 연구하여 다양한 논점들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현재의 긴장된 한일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의 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논문에서 보여준 시각은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1923년 간토대지진 때 재일조선인뿐 아니라 중국인 또한 피해를 입은 기록이 있고, 일본 문인이 쓴 문헌 중에서도 여러 스탠스의 논점들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의 주제는 향후 한·중·일 각 국가에서 당시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비교연구, 공동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다.</p>					
7	박사	[REDACTED]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后冷战时代日本海洋安全战略的演变和中国
					③ 중국학논총
					④ 76, pp.225-255
					⑤
					⑥ 2022.6.
					⑦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동아시아일본학회(2022.5.)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완성한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 해양을 둘러싼 문제는 그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탈냉전 이후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특히 중국과 관련된 요인이 일본의 해양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미래지향적 해양공동체를 구축하여 두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으나,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충돌 역시 빈번하였다. 그 중 중국과 일본의 대립을 다루며 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본 논문은 교류와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중 Trans-Society를 달성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p>					
8	박사	[REDACTED]	일본 근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森崎和江における欠如の深淵 —「外地」日本語と植民地体験がもたらした副作用—
					③ 일어일문학
					④ 90, pp.339-359
					⑤
					⑥ 2021.5.
					⑦ 10.18631/jalali.2021.90.020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식민지 조선 대구에서 탄생한 시인이자 작가 모리사키 가즈에에 대한 연구이다. 모리사키 가즈에는 전쟁 전의 조선과 전후 일본에서 여성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격차를 실감한 인물이다. 즉, 그녀는 시간, 장소, 젠더 등 온갖 경계를 넘어온 월경인(越境人)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정책의 산물이며 역사적 희생자였다고 할 수 있는 식민 2세들이 일본으로 귀환한 뒤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일본의 식민주의가 이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모리사키가 경험한 아시아에서의 시간, 장소 등 다양한 이동과 월경의 양상을 연구한 본 논문은 본 교육연구단이 제시하는 트랜스의 개념을 고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재조일본인뿐 아니라 재일조선인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일본근현대문학이라는 세부전공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트랜스의 개념을 다른 모든 연구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p>					

9	박사	[REDACTED]	중국시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丁謂詠物詩研究
					③ 중국어문학
					④ 87, pp.33-58
					⑤
					⑥ 2021.8.
					⑦ 10.15792/clsyn..87.202108.33
<p>(연구 내용) 정위(丁謂)의 영물시에 관한 연구로, 정위의 시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위의 시가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위는 서곤체 시풍을 구사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서곤파의 시보다 다루는 주제가 더 폭넓었다. 또한 정위의 시는 시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고 시를 통해 무언가에 대해 논의하는 송시의 선구자에 해당하며 이후에 특정 사물을 드높이는 형태의 시가 등장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정위의 시를 심도 있게 고찰하여 중국 시 역사에서 그가 차지한 위치에 대해 논한 것은 중국 시 연구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세부전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본 논문은 2022년 11월에 한국중어중문학 관련 학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중어중문학회가 주관하는 <2021 한국중어중문학 우수논문>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p>					
10	석사	[REDACTED]	중국 고전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魯迅的文學現代化策略研究 — 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
					③ 중국어문학지
					④ 74, pp.101-122
					⑤
					⑥ 2021.3.
					⑦ 10.22786/chll.2021..74.004
<p>(연구 내용) 동아시아 삼국은 같은 문화권으로, ‘귀신’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다. 노신은 ‘귀신’을 활용해 근대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설명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귀신’ 이미지에 대한 노신의 활용 전략을 탐구함으로써 동아시아 삼국의 문학 창작 기법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다. 본 논문은 연구 내용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국어문학회 2021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p>					
11	박사	[REDACTED]	통사론 (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上海話的完整體標記 — 以“仔”和“過”為中心
					③ 중국어문논총
					④ 106, pp.99-121
					⑤
					⑥ 2021.8.
					⑦ 10.26586/chls.2021..106.004
<p>(연구 내용) 상하이 방언의 완전상 표지인 ‘仔’와 ‘過’를 현대 중국어의 ‘了’와 ‘過’와 비교한 연구이다. ‘了’는 동작의 발생 혹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며 ‘過’는 어떤 일이 있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상하이 방언에는 ‘仔’라는 고유한 완료상 표지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仔’와 ‘了’는 문장을 구성하는 조건이 거의 비슷하지만 이들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仔’는 점차 ‘勒’ 등으로 대체되나 이는 현대 중국어의 ‘了’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경험을 나타내는 ‘過’의 경우, 상하이에는 원래 ‘過’, ‘過歇’, ‘歇’ 등 몇 가지 형식이 존재하였으나, 표준어의 영향을 받아 ‘過’ 하나로 줄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하이 방언이 점차 현대 중국어에 동화되고 있다고 논증하였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점점 사라져가는 방언에 주목하여 변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 본 논문은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 연구한 트랜스 연구의 일례로, 통사론(중국어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p>					

12	박사	[REDACTED]	중국 고전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史記』 對孔子的評價及其意義 - 孔子繫年文獻累書現象與司馬遷“尊孔”論研究
					③ 중국어문학지
					④ 79, pp.7-26
					⑤
					⑥ 2022.6.
					⑦ 10.22786/chll.2022..79.001
<p>(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사마천이 『史記』에서 공자를 높이 평가한 방식과 그 목적을 밝혔다. 『史記』는 중국 고전문학과 역사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작품으로써, 동아시아 학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선 연구자들은 공자가 소왕의 신분을 가졌기에 사마천이 공자를 세가에 넣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가져 새로이 논증하였고, 사마천이 공자를 승격시켰으며, 공자가 소왕이 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마천이 공자를 승격시킨 목적은 자신의 사관 가문을 승격시키기 위함에 있었음을 논증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본 논문은 사마천과 공자에 대해 학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을 내세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p>					
13	석사	[REDACTED]	일본어교육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문학작품 속 상상지리 -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를 중심으로-
					③ 일본근대학연구
					④ 76, pp.109-127
					⑤
					⑥ 2022.5.
					⑦ 10.16979/jmak..76.202205.109
<p>(연구 내용) 미야자와 겐지가 말년에 집필한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グスコブドリの伝記)』를 중심으로 상상지리적 관점에서 그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 우선 겐지의 많은 작품에서 무대로 등장하는 ‘이하 토브’가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인 [REDACTED] 교수의 <동아시아문학지리학> 강의의 발표문을 발전시킨 논문으로, 중국문학 전공 교수의 기초공통과목을 수강한 일본문학 전공 학생이 쓴 논문이라는 점에서 세부전공 간의 교류가 경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훌륭히 실현한 결과다.</p>					
14	박사	[REDACTED]	일본문화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창조’와 ‘재건’ 공간으로서의 남양(南洋) 인식 -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의 『가와아카리(河明り)』를 중심으로 -
					③ 인문사회과학연구
					④ 23(1), pp.231-261
					⑤
					⑥ 2022.2.
					⑦ 10.15818/ihss.2022.23.1.231
<p>(연구 내용) 1939년 4월에 발간된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의 『가와아카리(河明り)』의 분석을 통하여 제국 일본의 남양(南洋) 인식을 검토한 것으로, 『가와아카리』에 드러난 남양에 대한 인식과 일본의 싱가포르 점령과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시각을 한·중·일의 주변국까지 확장한 것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한 것이다. 저자는 현재 추가적으로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남양 연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설정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p>					

15	박사	[REDACTED]	일본 근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가네코 미쓰하루(金子光晴)의 남양 체험과 인식 - 『말레이난인기행(マレー蘭印紀行)』을 중심으로-
					③ 일어일문학
					④ 93, pp.209-226
					⑤
					⑥ 2022.2.
					⑦ 10.18631/jalali.2021..93.011
<p>(연구 내용) 가네코 미쓰하루가 유럽 여행에서 경유지로 방문한 남양(南洋) 일대, 지금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 체류한 경험을 담은 여행기 『말레이난인기행(マレー蘭印紀行)』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남양 문학이 폭발적으로 유행한 1940년대의 모운을 여는 작품으로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남양 문학의 정수(精髓)'로 높이 평가받았다. 가네코 미쓰하루는 친중적 성향으로 고대 중국을 소재로 하는 시를 다수 남겼으며, 1937년에는 전쟁 상황과 중국의 참상을 알리는 데 힘썼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연구는 가네코 미쓰하루의 중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첫 번째 논문으로 향후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일은 근대기 중일문학의 상호 교류와 영향을 살피거나 전시기 중국과 동남아시아 및 근대 일본 문학자의 시선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에서 추구하는 '국경을 초월한 연구',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p>					
16	박사	[REDACTED]	의미론 (일본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日本語の「格助詞」の誤用分析 - 「が」「を」「で」「に」を中心に -
					③ 일본학보
					④ 127, pp.139-169
					⑤
					⑥ 2021.5.
					⑦ 10.15532/kaja.2021.05.127.139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본 학과의 박사과정생 1명과 석사과정생 3명이 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2021.2.)에서 공동 발표한 내용을 학술논문으로 완성한 것이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구어에서 범하는 격조사(格助詞) 4개의 오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과 원인을 고찰한 것이며, 선행연구를 넘어서 반복적 자기수정(自己修正)을 통한 실수의 정정 등을 밝혀냈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각 저자는 서로 다른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실의 경계를 초월하여 실적을 창출한 것은 4단계 BK21사업에서 본 교육연구단이 목표로 하는 연구 어젠다 별 LAB 공동연구의 활성화 결과다.</p>					
17	박사	[REDACTED]	일본어교육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法廷における戦略的談話 -インボライトネスの観点から -
					③ 일본학보
					④ 129, pp.115-143
					⑤
					⑥ 2021.11.
					⑦ 10.15532/kaja.2021.11.129.115
<p>(연구 내용) 일본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불손의 표출에 착안하여 불손이 일어나기 쉬운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불손의 발화를 체면 위협의 유형에 따라 행위구속, 자기현시, 부정적 평가, 반대의사·태도, 감정표출로 나누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발화 행위를 화자의 체면위협 의도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분석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4단계 BK21사업에서는 소속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공동연구를 한층 더 장려하고 있다. 두 저자는 서로 다른 LAB 소속으로, 본 연구는 공동연구가 하나의 LAB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LAB과 LAB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p>					

18	박사	[REDACTED]	중국 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丰子恺与蒋彝的人际关系网络
					③ 중국학논총
					④ 71, pp.141-158
					⑤
					⑥ 2021.3.
					⑦ 10.26585/chlab.2021..71.006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중국 문학사 연구의 연장선에서 펑쯔카이(丰子恺)와 장이(蒋彝)의 인적 네트워크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펑쯔카이(丰子恺)와 장이(蒋彝)는 현대문학사상 뚜렷한 개성을 지닌 중요한 산문가이다. 작가 샤몐쑤(夏丏尊), 서양미학이론가 주광첸(朱光潜) 등은 중국 문단에서 이름을 떨쳤지만 이들이 속한 백마호작가군(白马湖作家群)은 잘 알려지지 않아 문학사 속에 묻혀 있다. 또한 장이는 처음 영국에 도착하여 타지의 사람과 환경이 모두 낯설었기 때문에 문예 창작에 몰두하고 마음의 기탁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장이를 둘러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중국 문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고찰한 본 연구로 인해 중국 현대문학사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세부전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p>					
19	박사	[REDACTED]	중국시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李白 詩에서의 虛實 交叉 이미지 연구
					③ 중국문학
					④ 108, pp.113-139
					⑤
					⑥ 2021.8.
					⑦ 10.21192/scil.108..202108.006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이백 시의 허실교차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백이 이미지를 조화한 수법에 어떤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백의 시를 개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그가 '반영'과 '심적 영상'을 활용해 허와 실이 교차하는 이미지를 조화해내는 데서 뛰어난 능력과 이미지의 예술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호방함과 낭만적 시풍이라는 기존의 평가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던 이백의 천재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논문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이후 이백 연구의 또 다른 방향성을 드러냈다고.</p>					
20	박사	[REDACTED]	성운학 (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有關上古漢語重疊式聯綿詞的考察 - 以《廣雅疏證》為中心 -
					③ 중국인문과학
					④ 81, pp.119-140
					⑤
					⑥ 2022.8.
					⑦ 10.35955/JCH.2022.08.81.119
<p>(연구 내용) 고대 중국어의 이음절어 중 연면어(聯綿詞)에 관한 연구로, 실제 문헌 자료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선행연구의 분류 중 일부는 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특히 연면어가 중첩에서 기원하였다는 가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본 논문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연면어 분류의 대표적 연구인데 기존 연구를 답습하지 않고 재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세부전공분야인 성운학(중국어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p>					

21	박사	[REDACTED]	성운학 (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慧琳 《一切經音義》 蟹攝의 음운 체계
					③ 중국어문학
					④ 90, pp.69-89
					⑤
					⑥ 2022.8.
					⑦ 10.15792/clsyn..90.202208.69
<p>(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慧琳의 『一切經音義』의 蟹攝을 분석하여 전기 중고 한어 시기의 음운 체계와 어떠한 다른 측면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음운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전기 중고 한어와 후기 중고 한어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사이 과도기 시기의 작품인 『一切經音義』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성모나 운부의 분할 양상만을 보여주었을 뿐, 각각의 음가를 재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본 논문에서는 전기 중고 한어를 대표하는 『切韻』의 음운 체계와 비교하여 『一切經音義』에는 새로운 음운 현상이 출현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一切經音義』의 蟹攝의 음가를 재구하고 음운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기존의 성운학(중국어학) 연구가 간과하고 있던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점에서 세부전공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p>					
22	박사	[REDACTED]	중국시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孟郊와 韓愈의 ‘눈물’ 소재 시 비교 연구
					③ 중국문학
					④ 113, pp.1-26
					⑤
					⑥ 2022.11.
					⑦ 10.21192/scil.113..202211.001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맹교와 한유의 ‘눈물’ 소재 시를 비교하여 그들의 개성적이고 다양한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들은 눈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별, 감회, 실의, 객수, 회고 등의 감정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두 사람의 시 모두 ‘相思’와 ‘宥怨’의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관직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시의 내용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더 나아가 맹교와 한유의 위상을 재검토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맹교와 한유가 주축이 된 유파를 ‘한맹시파’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맹교가 한유보다 연상으로서 한유보다 훨씬 앞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현한 풍격을 보여주었고 뒤이어 한유가 맹교의 풍격을 배웠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맹한시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사람의 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해석을 답습하지 않은, 새로운 관점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찾을 수 있다.</p>					
23	박사	[REDACTED]	중국 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린위탕 소설에서의 유토피아 세계 — 장편소설 『奇島』를 중심으로
					③ 중국현대문학
					④ 103, pp.33-60
					⑤
					⑥ 2022.12.
					⑦ 10.46487/jmcl.2022.12.103.33
<p>(연구 내용) 린위탕은 자유주의적이고 반(反)공산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마오쩌둥 시기에 중국 문단에서 언급될 수 없었던 작가였지만, 이후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작가로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구되었던 그의 문학 작품을 당시 중국인이 세계와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린위탕의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공상 세계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그는 동서문화를 같은 차원에서 놓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조화시키고자 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리적 가치 측면을 중시하고 인문적 유토피아를 소망하였다. 저자는 그의 소설 『기이한 섬』에 드러난 유토피아적 세계관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동서양 간의 더 활발한 문학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지평을 열어줄 수 있으리라 평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논한 본 논문의 관점은 트랜스-동아시아를 기치로 삼은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에 드러난 가치를 선도하는 것이다.</p>					

24	박사	[REDACTED]	성운학 (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제출요구량	24
					② 상고 幽·覺·終部 운모 변화 분석 - 兩漢에서 隋까지		
					③ 한중언어문화연구		
					④ 67, pp.173-219		
					⑤		
					⑥ 2023.2.		
					⑦ 10.16874/jslckc.2023..67.007		
<p>(연구 내용) 상고부터 중고 시기까지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상고 시기에 동일한 운부에 속해 있던 글자가 중고 시기에는 각기 다른 운에 귀속되는 경우가 흔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상고 운부에서 중고 운에 이르기까지 운모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흐름을 고찰하고 각 시기별로 나누어 음운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상고에는 대략 30개의 운부가 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는 幽·覺·終部로 조사 대상을 제한하였다. 이 세 운부는 상고 시기에 대응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兩漢 시기에 대응 관계가 사라진 것이 본 논문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p> <p>(세부전공분야 기여) 선행연구는 대부분 구체적 음가를 제시하여 분석하지 않았으며 음운 체계 또한 수립하지 않았는데 본 논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음운 체계까지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세부전공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p>							
총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93	제출요구량	24		
		박사	145				
		석박사통합	0				
		계	238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5>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번	학위과정 (석사/박사/ 석박사통합)	참여 대학원생 성명	발표 형식 (구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李贺诗与日本异世界类轻小说的比较分析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2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東亞《詩經》學視闕下“賦比興”義的再關照 —中·韓《詩經》學著作為中心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3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恋人間の葛藤場面における言語行動様相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映像媒体の用例を資料として—
				③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④
				⑤ 2021.12., 일본
4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日本語による日韓ビジネスのトラブルと解決に関する意識調査 —日本人の韓国語能力の差に注目して—
				③ 한국일어교육학회 2021년도 제39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1.4., 한국
5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한국과 일본의 TV뉴스에서 나타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
				③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1.4., 한국
6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ストーリーテリングにおける中国人初級日本語学習者の 回避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の一考察
				③ 한국일본문화학회 제60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1.9., 한국
7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日韓の相談談話に関する考察 -聞き手の発話行為に着目して-
				③ 한국일어교육학회 2021년도 제39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1.4., 한국

8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桃”의 文化意义比较研究 —以跨东亚为中心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9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人口高齢化とトランス東アジア —日・韓・中3国の人口高齢化推移と政策対応—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10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朝鮮・韓国」を内在させた同世代詩人、 森崎和江と茨木のり子の共通と相違の様相 ③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2.2., 한국
11	석사		구두	① [REDACTED] ② ASEAN과 동북아 3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③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④ ⑤ 2023.2., 인도네시아
12	박사		포스터	① [REDACTED] ② 日韓の東南アジアに対するITC分野ODAの比較研究： 「電子政府」事業をめぐる競争と受援国の反応を中心に ③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④ ⑤ 2021.12., 일본
13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东亚视野下的海东青意象研究 —以中韩古代海东青诗歌比较研究为中心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14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在韓日本人女性の植民地経験と記憶 —雑誌『アジア女性交流史研究』における日本人妻の記録を中心に— ③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④ ⑤ 2022.12., 한국
15	석사		구두	① [REDACTED] ② 上海当代性研究 —以《上海之死》与《兰心大剧院》为例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16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July Seventh Poem of East Asia TF-IDF Analysis – Comparative Analytic Results of Tang Quatrain and Haiku on ‘Poetic Components’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17	석사		구두	① [REDACTED] ② Development and Progress of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in Indonesia – Literature section in “The Daily Java(爪哇日報)” of the 1920s and unknown writers ③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④ ⑤ 2023.2., 인도네시아
18	석사		구두	① [REDACTED] ②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남양(南洋)’ 표상 시 연구 — 『국민시가(國民詩歌)』(1941~1942)를 중심으로— ③ 한국일본연구단체 제11회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2.8., 한국
19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東印度諸島物語』から見る戦時期のトランス東アジア文化の発見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20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2010 年以降の日本の海洋安保戦略と中国要因 – 海軍力投射を中心に –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21	석사		구두	① [REDACTED] ② 트ランス아시아적観点から見た韓日の防衛輸出 — 戦略目的と販売方式を中心に — ③ 동아시아若手研究者合同연구포럼 ④ ⑤ 2022.12., 한국
22	박사		구두	① [REDACTED] ② 東北アジア地政学の変化 — 韓国のTHAAD配置問題と地政学的影響を中心に — ③ 동아시아일본연구학회 第5回國際學術大會 ④ ⑤ 2021.11., 한국

23	박사	[REDACTED]	구두	① [REDACTED]		
				② 中韩表未来意义句法标记对照研究 - 以“-겠-”与“要“的语法化途径为中心		
				③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④		
				⑤ 2023.1., 한국		
24	박사	[REDACTED]	구두	① [REDACTED]		
				② 韓·中 相 체계와 결합 제약 비교 연구 - ‘-고 있-’과 ‘着’을 중심으로 -		
				③ 2022년 제1회 韓/中 언어·문화 융·복합 국제학술대회		
				④		
				⑤ 2022.3., 한국		
총 참여대학원생 수			석사	93	제출요구량	24
			박사	145		
			석박사통합	0		
			계	238		

대표실적의 우수성

- 참신한 연구방법으로 창의성과 혁신성 부각
- 한국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 ‘트랜스’ 개념에 입각한 연구 다수 창출
- 어젠다 확산 연구뿐만 아니라 전공 심화 연구 결과 발표
⇒ 해당 학문 분야 발전 기여

가. 실적의 창의성·혁신성

- [REDACTED] - 李贺诗与日本异世界类轻小说的比较分析

본 발표는 일본의 라이트 노벨과 중국 시인 이하의 시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라이트 노벨의 문학의 특성을 근거로 삼아 어떻게 고대 중국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문학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하였다. **라이트 노벨과 중국 시의 비교**라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엿볼 수 있다. 발표자는 이후 연구를 가다듬어 2022년 12월 『中國人文科學』 82집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

나.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와의 부합성

2대 교육 비전

(1) 트랜스 개념의 교육과 연구를 통한 통섭적 창의 인재 양성

- [REDACTED] - 東亞《詩經》學視闕下“賦比興”義的再關照—中·韓《詩經》學著作為中心
- [REDACTED] - 恋人間の葛藤場面における言語行動様相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映像媒体の用例を資料として—
- [REDACTED] - 日本語による日韓ビジネスのトラブルと解決に関する意識調査 -日本人の韓国語能力の

差に注目して-

- [redacted] - 한국과 일본의 TV뉴스에서 나타나는 제3자에 대한 호칭표현
- [redacted] - 스토리테링그における中国人初級日本語学習者の回避ストラテジーについての考察
- [redacted] - 日韓の相談談話に関する考察 -聞き手の発話行為に着目して-

21세기 교육과 연구는 국가 간, 지역 간, 문명 간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돌을 완화하고, 공존과 공영을 위한 협력 시스템의 구축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학문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심화시켜 이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 ▶ [redacted]의 발표는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한일 양국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의 양상을 조사, 분석하였다. 양국의 언어 표현의 특징뿐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더욱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발표 내용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발표를 한 <동아시아 신진 연구자 합동연구포럼>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였다.

(2)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

- [redacted] - “桃”의文化意义比较研究 -以跨东亚为中心
- [redacted] - 人口高齢化とトランス東アジア-日・韓・中3国の人口高齢化推移と政策対応-
- [redacted] - 「朝鮮・韓国」を内在させた同世代詩人, 森崎和江と茨木のり子の共通と相違の様相
- [redacted] - ASEAN과 동북아 3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 [redacted] - 日韓の東南アジアに対するITC分野ODAの比較研究：「電子政府」事業をめぐる競争と受援国の反応を中心に
- [redacted] - 东亚視野下的海东青意象研究 -以中韩古代海东青诗歌比较研究为中心

본 교육연구단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과 범아시아를 넘어선 인류 공존의 가치에 대한 탐색을 가능케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중·일 간에 얽힌 현안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 [redacted]의 발표는 ‘변화하는 ASEAN의 ODA 수용에 더욱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어느 쪽인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대 동남아시아 ODA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전자 정부 사업을 비교하였다. 발표자는 이후 본 발표의 내용을 토대로 2022년 2월 『아시아연구』 25(1)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5대 교육 목표

(1) Trans-Disciplinary : 통섭적 동아시아 연구와 교육 방법론 수행

- [redacted] - 在韓日本人女性の植民地経験と記憶—雑誌『アジア女性交流史研究』における日本人妻の記録を中心に—
- [redacted] - 上海当代性研究—以《上海之死》与《兰心大剧院》为例

본 교육연구단은 동아시아에 대한 트랜스 연구가 가능하도록 어젠다와 관련되는 공동연구를 할 시 LB A 활동을 지원하였다. 총 5개의 주제가 선정되었고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 ▶ [redacted]의 발표는 중국 영화감독 러우예가 연출한 『세터데이 픽션』과 홍잉의 장편소설 『상하이의 죽음』을 트랜스 미디어적 관점으로 비교분석한 발표다. 홍잉과 러우예는 1941년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핍박받는 상하이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홍잉이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통해

당시 상하이를 그려낸 반면, 러우에는 ‘오늘날’의 상하이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2) Trans-Knowledge : 4차 산업혁명 시대 동아시아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 창출과 확산

- [] - July Seventh Poem of East Asia TF-IDF Analysis - Comparative Analytic Results of Tang Quatrain and Haiku on ‘Poetic Components’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연구 방법도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의 발표는 코퍼스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러한 변화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Sou-yun, W aka-Poetry, Voyant Tools 총 3가지의 코퍼스 또는 분석 툴을 활용하여 당나라의 4행시와 일본의 하이쿠를 주도면밀하게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F-IDF 방법은 단어의 빈도와 역 문서 빈도를 사용하여 단어들마다 중요한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동아시아 관점에서 일부 시의 토픽 발전과정과 그 구성원리를 시의 목적인 국가적 변별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연구가설과 데이터 분석 결과 해석, 또한 그 의의를 밝히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Trans-National : 글로벌 심화 전략을 통한 동아시아 교육 및 연구 선도

- [] - Development and Progress of Japanese Language Literature in Indonesia - Literature section in “The Daily Java(爪哇日報)” of the 1920s and unknown writers
- [] - 조선인과 재조일본인의 ‘남양(南洋)’ 표상 시 연구 — 『국민시가(國民詩歌)』(1941~1942)를 중심으로—
- [] - 『東印度諸島物語』から見る戦時期のトランス東アジア文化の発見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전망을 그려내고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해왔다.

- ▶ []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영어로 발표되었으며, 192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발간된 첫 일본어 신문인 『爪哇日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복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트랜스적 시각과 더불어 연구의 시야를 인도네시아까지 확장한 점, 연구 결과를 영어로 발표한 점은 글로벌 연구 심화 전략을 통한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선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Trans-Society : 교육과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지식공동체 구축

- [] - 2010年以降の日本の海洋安保戦略と中国要因 - 海軍力投射を中心に -

한·중·일 3국은 역사적으로나 정치·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의 상호 의존도는 매우 높으나, 자국의 이익을 둘러싼 충돌 역시 빈번하였다.

- ▶ []의 발표는 해양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다오위다오/센카쿠 열도로 대립 중인 중국과 일본의 정책을 살펴보고 일본의 정책이 이전에 비해 공세적으로 변한 것은 중국의 해군력 증가와 행동 패턴이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동아시아의 공존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교류와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공영의 모색은 절실한 학문적 과제이다. 채첩의 발표는 그러한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5) Trans-Koreanology : 통섭적 교육·연구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적 시각 정립

- [] - トランスアジア的観点から見た韓日の防衛輸出—戦略目的と販売方式を中心に
- [] - 東北アジア地政学の変化 —韓国のTHAAD配置問題と地政学的影響を中心に

본 교육연구단은 동아시아 연구의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한국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하였다. 위 두 발표는 한국의 입장에서 타 국가와의 관계를 논한 것으로, 본 목표를 달성한 발표라 할 수 있다.

- ▶ []의 발표는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지정학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 개발의 가속화와 고도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한미 동맹과 일미 동맹의 대응 등에 대해 발표하며 트랜스-동아시아적으로 추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지 전망하였다.

다. 해당 전공분야의 기여

- [] - 中韩表未来意义句法标记对照研究 - 以“-겠-”与“要”的语法化途径为中心
- [] - 韓·中 相 체계와 결합 제약 비교 연구 - ‘-고 있-’ 과 ‘着’ 을 중심으로 -
- ▶ []의 발표는 트랜스-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미래시 표현 방식을 대조하여 양태 표지와 미래 지시 표현의 필연적 의미상의 연관 관계 및 이와 관련된 문법화 특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떻게 트랜스적 관점에서 세계 언어를 고찰하고, 언어 일반적인 사실을 귀납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의 가치를 선도할 뿐 아니라 세부전공분야인 중국어학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 실적

가. 대학원생 학술활동 현황과 목표 대비 달성도

- 3단계 BK21사업 후반기(2017-2019) 참여대학원생 연구 업적물
 - 일반 논문 119편, 국제 저명 학술지 1.5편, 기타 국제학술지 2편, 학술 저서 국어 3편, 총 125.5편
 -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2.67편(연간 0.89편)
- 4단계 BK21사업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양적, 질적 연구 능력 향상 지표화 위해 3단계 대비 130% 이상 목표 상향 조정
 -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1차년도 연간 0.89편부터 최종적으로 1.16편 목표 설정
- 4단계 BK21사업 개시 후 참여대학원생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 1차년도: 0.55편(환산 기준 52명)
 - 2차년도: 1.23편(환산 기준 64명)
 - 3차년도: 1편(환산 기준 54명)
 ⇒ 2차년도부터 최종 목표치(1.16편) 초과 달성
- 양적 증가뿐 아니라 어젠다를 확산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논문 꾸준히 창출
- 3단계 BK21사업 후반기 대비 학술 저서 업적 초과 달성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업적물이 모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연차별 2편 이상 논문 게재 참여대학원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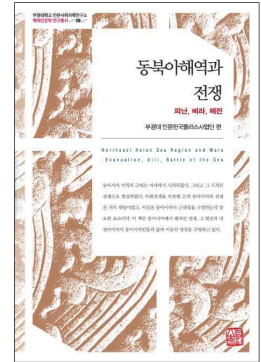
연차	참여대학원생 수	게재 논문 편수별 참여대학원생 수				
		6	5	4	3	2
1차년도	52				1	5
2차년도	64	1	1	6	7	
3차년도	61			3	3	

[어젠다 연구 논문 증가] 특히 2차년도부터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 주제를 다룬 다룬 논문이 증가하였다. 양적으로 논문의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꾸준히 게재되는 등 질적으로도 향상된 연구업적물이 창출되고 있다.

[국제 학술활동 적극 참여] 또한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학술대회 참가가 국제학술지 투고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제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과 같은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였고, 2023년 1월에는 본 교육연구단의 주도하에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를 개최하여 각국의 대학원생이 트랜스-동아시아를 주제로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은 트랜스-동아시아적 시각을 기를 수 있었으며, 넓어진 연구 시야를 활용하여 각자의 전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학술 저서의 폭발적 향상]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학술 저서 업적은 3편으로 논문 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에 비해 본 평가 기간 내 학술 저서 업적은 8편으로 이미 3단계 BK21사업 후반기의 실적을 뛰어넘었다. 평가 기간 내 출판된 저서는 다음과 같다(참여대학원생 굵게 표시).

- [redacted] 외 3인 공저(2020) 『New The 바른 일본어 Step3』, ECKBOOKS
- [redacted] 외 9인 공저, [redacted] 외 3인 역(2021) 『식민지 문화정치와 『경성일보』』, 역락
- [redacted] 외 2인 공저, [redacted] 감수(2021) 『조약으로 본 일본근대사 1 : 청일전쟁으로 가는 길』, 트리펄
- 미키 로후 저, [redacted] 역(2021) 『미키 로후 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 고려대학교 Lab프로그램 일본 영상 콘텐츠를 통한 이문화 코드 탐색팀 저(2021) 『일본문화 쉽게 배우기 애니메이션 편』, BOOKK
- 본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인 [redacted]가 참여
- [redacted] 저, [redacted] 역(2022) 『ありのままの私が好き』, 博英社
- [redacted] 외 2인 공저(2022) 『New The 바른 일본어 Step3』, ECKBOOKS
- [redacted] 외 11인 공저(2022) 『동북아해역과 전쟁 : 피난, 뼈라, 해전』, 소명출판



『동북아해역과 전쟁』

나.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계획 대비 달성도

- 국내외 학회·학술지 통합적 정보 제공
 ⇒ 2차년도부터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업적물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최종 목표치(1.16편) 초과 달성(1.23편)
- 논문Clinic 등 논문 작성 지원 ⇒ 논문 게재 1건 성과 창출
- 어젠다 별 LAB 구성과 활동 지원 ⇒ 발표 5건, 논문 1건 실적 창출
- 인도네시아대학교 MOU 체결 및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전문가 초청강연회 적극적 활용을 통한 대학원생의 글로벌 Networking 구축

☑ 국내외 학회·학술지의 통합적인 정보 제공

전공별 관련 학회와 학술지의 상세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학회 발표와 논문 투고를 독려하였다. 특히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3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와 협업하여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를 개최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발표를 지원하였다. 정보 제공과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지원한 결과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업적물의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는 2차년도부터 사업 신청 시 설정한 최종 목표(1.16편)를 초과 달성하였다.

☑ 해외 학회 참가부터 영어논문 투고까지 ONE-STOP 지원 체계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체계 마련]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 저명학술지 논문의 신청부터 투고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2-1학기에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제전문학술지 투고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교육연구단에서 검토하여 지원하였다. 교양교육원과 연계한 논문Clinic, 국제어학원 번역 서비스 중개, 연구진흥팀을 통한 영문 교정 시스템을 거쳐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게재비를 지원하였다.

[참여대학원생 발표 요지문 번역 지원] 비영어권 대학원생들에게는 국제전문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이 장벽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 참여대학원생의 발표 요지문을 번역하는 등의 지원을 하였다. 일례로 2023년 1월 본 교육연구단이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인 <The First TEAS conf

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에서 참여대학원생의 발표 요지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각각 번역하여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다.

☑ 국제전문지 논문 투고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면 게재료 이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로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훌륭히 수행한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의 발표를 듣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두 번째로 참여대학원생의 한 해 연구 및 학술대회 활동 실적 등을 정리하여 실적이 우수한 상위 10인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였다.

☑ 어젠다 별 LAB 구성과 활동 지원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전공영역, 소속을 횡단하여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참여교수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모집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 5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게재 논문 1건의 실적이 창출되었다.

☑ 대학원생의 글로벌 Networking 지원

대학원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COVID-19로 잠정 연기 혹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방역 상황의 점진적 완화와 더불어 연기·중단되었던 국제 교류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이 진행되었다. 장·단기 해외연수 및 비대면 국제 교류의 점진적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2023년 2월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가 국제학술대회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였다. 본 국제학술대회는 이후에도 국제교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며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가 MOU를 체결하였다.

4단계 BK21사업 개시 이후 COVID-19로 인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외 연수 프로그램 대신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및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내실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를 심화하는 강연뿐 아니라 전공 심화를 위한 강연회도 개최하였다.

☑ 대학 본부 차원의 대학원생 지원 계획

대학 본부에서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대학원생의 진로 상담, 학업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논문 첨삭 지도를 통해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원생을 지원하였다. 교양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논문Clinic과 Academic Advisory에 본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이 교수자로 참여하였다. 논문Clinic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 작성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와 1:1 지도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cademic Advisory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 전반에 걸친 부분을 1:1로 조언 및 지도받을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신진연구인력인 []은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담당 대학원생 1명의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4. 신진연구인력 운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표 2-6>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신진연구인력 수		
	평가 대상 기간 내 총 인원 수	총 참여 개월 수	1인당 평균 참여 개월 수
박사후 과정생	4	62	16
계약교수	4	59	15
계	8	121	15

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가.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 목표 및 비전 실천 위해 학과의 교육·연구 영역과 합치하면서 외국어(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영어) 연구업적 보유 인력 선발
 ⇒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인력 선발
- 청암포스코장학재단 아시아지역전문가 펠로쉽 박사생 전액장학금 수혜() 등 Scopus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주() 등 본 교육연구단 임용 전부터 우수한 성과 보유한 인력 확보

[우수 신진연구인력 유치 노력] 본 교육연구단은 우수 인재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자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성에 합치하는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능동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하이브레인트를 비롯한 채용 관련 사이트, 자체 홈페이지, 교내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게재와 홍보 책자 등을 이용하여 신진연구인력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4단계 BK21사업의 교육 목표 및 비전 실천을 위해 학과의 교육·연구 영역과 합치하면서 외국어(영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국어(영어)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신진연구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엄정하고 심층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 평가 기간 내 확보한 신진연구인력은 누적 8명으로, 모두 국내외 최상위권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름	학위 취득 대학교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오사카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
	북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워싱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도쿄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쓰쿠바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오사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신진연구인력] 은 대학원생 시절 「1930~40年代, 民族谈论的变化与历史剧的‘民族’展示方式的關係」 등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청암포스코장학재단 아시아지역전문가 펠로쉽 박사생 전액장학금을 지원받았다.

[신진연구인력] 은 쓰쿠바 대학에서 RA, TA를 맡았으며, 귀국 후 고려대학교 글로벌일 본연구원 연구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사이버대학) 객원교수로 재직하였다. 본 교육연구단에 임용되기 전부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thical Literary Criticism에서 「Ethical Consciousness in Mishima Yukio’s Middebrown Novel : Focusing on the “Female Abuse” consumed in Popular Culture」를 발표하는 등 각종 국제 및 국내학술대회에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로서 활동하였다. 논문 「Women’s Solidarity and Its Limitations in Kirino Natsuo’s Out : Focusing on Patriarchal Capitalism and the Double Burden on Women」은 Scopus에 등재학술지인 『Forum for World Literature Studies』에 게재되었다. 그 외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 등 역서를 냈으며 ‘대중문화로 소비되는 <여성혐오>에 대한 고찰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중간소설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수주받았다.

나. 우수 신진연구인력 지원 실적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조건 마련

사무실을 청산MK문화관 401호에서 501호로 이전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잠재 능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어젠다 수행의 수월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규정에 의거한 연봉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해외 단기연수/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영역을 해외로 넓히기 위하여 해외 단기 연수비 및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였다. 해외 단기 연수로는 ██████████ 2023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에 사회자로 참가하여서 교통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였다.

[국제학술대회 사회자 지정] COVID-19로 인해 대면을 통한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국제 교류를 추진하였다.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연구포럼>,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등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학술활동과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참여대학원생이 해당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자로 참여하여 학술대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는 세션에 따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신진연구인력은 각자의 외국어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각 세션에서 학술대회를 이끌어나갔다.

☑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 연구 논문 게재비 지원 및 연구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선도 실적 증가, 연구 분야, 방법의 다양성 확대
각 세부전공분야 발전에 기여한 실적 창출
A&HCI 등재 학술지에도 논문 게재(██████████)

○ 1인당 연구 실적 환산 편수: 3단계 3.86편 대비 120% 향상된 4.63편을 7차년도까지 달성 목표

⇒ 평가 기간 기준, 4단계 BK21사업 신청 당시 총 연구 실적 환산 편수 43편의 과반인 27편 창출
평가 기간 기준, 1인당 연구 실적 환산 편수는 3.38편으로 3단계 당시 수치 3.86편에 근접

(1) 연구 실적

- ██████████
 -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인 ██████████ 교수와 공동으로 대학원 중일어문학과에 개설하는 중국고전문학 수업에 PBL 방식 제안하는 「어문계열 대학원 PBL 교과목 설계와 운영 방안 — K대학 중일어문학과 ‘중국고전문학PBL’ 수업을 중심으로」(『중국학논총』 72, 2021.6.) 게재
 - 「중국어 근접상 표지에 관한 고찰」(『한중인문학연구』 68, 2020.9.), 「‘起來’와 ‘V起來’ 구문의 자질 문법 분석」(『한중인문학연구』 70, 2021.3.) 등 전공 지식 심화, 발전시킨 실적 생산
- ██████████
 - 2020년 12월 보고서에서 출판된 『동아시아 재난 서사』에서 공동 저자로서 ‘21세기 재난과 소환되는 ‘Ryunosuke’ ’ 집필

- [redacted]
- 「1920년대 ‘인조인간-로봇’의 수용양상 연구 -구니에다 시로(国枝史郎)의 『인간제조(人間製造)』를 중심으로」(『비교일본학』 50, 2020.12.)를 통해 해당 전공분야의 발전에 기여
- [redacted]
- [redacted]과 공동연구하여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 94, 2022.5.),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중국소설논총』 67, 2022.8.) 게재
- 「글로벌 서브컬처 트렌드로서의 BL과 중국 BL -중국 BL/탐미/순애 연구에 관한 시론」(『중국문화연구』 57, 2022.8.)을 게재하는 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심층 연구한 실적을 꾸준히 창출**
- [redacted]
- [redacted]과 공동연구하여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중국학논총』 76, 2022.6.) 게재
-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焉 yan in Old Chinese : An example of Trans-East Asian linguistic study」(『Language and Linguistics』 23(4), 2022.9.), 「The grammaticalization of verbs of location movement into noun-phrase conjunctions in Archaic Chinese」(『Language and Linguistics』 24(2), 2023.3.)가 **A&HCI 등재학술지에 게재**
- [redacted]
- [redacted]과 공동연구하여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중국학논총』 76, 2022.6.) 게재
-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역이동 -사역 수단을 나타내는 선행동사(V1)를 중심으로-」(『비교일본학』 53, 2021.12.) 등 전공 지식 심화한 실적 생산
- [redacted]
- [redacted]과 공동연구하여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 94, 2022.5.),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중국소설논총』 67, 2022.8.) 게재
- 「老いたく女中>に見る生死の支配力-三島戯曲『朱雀家の滅亡』を中心に-」(『일본언어문화』 61, 2022.12.) 등 전공 심화 논문 다수 생산
- [redacted]
- 「『増補古言梯標註』に増補された言葉について」(『일어일문학연구』 122, 2022.8.), 「『尚古仮字用格』と『増補正誤仮名遣』の和語項目に関する一考察」(『日本語文學』 1(95), 2022.12.)로 **국내 연구자가 희소한 일본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

(2) 학술활동

- [redacted]
- <한국중국소설학회 정기학술발표회 : 공연예술과 중국소설>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서사플랫폼으로서의 선협(仙俠)」, <2022년 중국문화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중 수교 30년 - 한·중 문화의 상호작용>에서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현상으로서의 BL(Boys' Love)과 몇 가지 논점들」을 발표하는 등 **본인의 전공과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융합한 주제를 다수 발표**
- 현재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창의융합교육위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연구위원, 한국중국소설학회 기획간사(현대문학분과),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학술위원, 한국중어중문학회 총무이사, 중국어문연구회 총무이사, 중국학논총 편집이사
- [redacted]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이 주관하고 나고야 대학, 고려대학교, 북경 사범대학, 인도네시아 일본문학학회 등이 후원하는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제9회 온라인 대회 2021>에서

「戦後の日本文学と映画：三島由紀夫の原作映画を中心に」를 발표하는 등 각종 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 피로

- <한국일어일문학회 2021년도 동계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 <한국일본문화학회 제61회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
-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22년도 춘계국제심포지움>,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사회자로 참여
- 현재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에서 출판이사, 한국일본학회 산하 한국일본문화회 학술이사

☑ 교수자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교양교육원 등에서 강의 장려, 매 학기 6학점 내외 강의 담당
 - ⇒ 석탑강의상(), 우수강좌() 수상
 - ⇒ 본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부임()

평가 기간 내 담당한 강의는 아래와 같다.

신진연구인력	담당 강의	비고
[Redacted]	<중급중국어강독 I>, <중급중국어강독 II>	석탑강의상 수상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대학원, [Redacted] 과 공동)	
	<일본소설의이해>, <일본어독해 II>	
	<교양중국어 I>	우수강좌 선정
	<중국의공연예술>, <교양중국어 II>	
	<연구윤리및논문작성법>(대학원, [Redacted] 과 공동)	
	<일본어작문 II>	
	<인텐시브일본어 I>, <기초일본어작문 II>	
	<영상일본어>, <일본어사>	

※ 석탑강의상 : 수강소감 평가 상위 5% / 우수강좌 : 상위 20%

신진연구인력 중 [Redacted]은 본 제도를 통해 다져진 교수자 역량을 바탕으로 2023.3.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아카데미 코디네이터 활동] 4단계 BK21사업이 개시되면 교양교육원의 교양과목과 더불어 아카데미 코디네이터로서 대학원생들의 멘토링과 논문 첨삭 지도를 하여 신진연구인력의 교수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계획하였는데, 그에 따라 교양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신진연구인력이 참가하였다. 그 중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작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논문 작성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각 전공 분야의 전문가와 1:1 지도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체계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 논문Clinic에 신진연구인력인 [Redacted]이 8회에 걸쳐 총 5명을 지도하였고 그 중 1명의 대학원생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되는 성과를 냈다. 그 외 신진연구인력인 [Redacted]가 2회, [Redacted]이 2회, [Redacted]이 1회 참여하였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 전반에 걸친 부분을 1:1로 조언 및 지도받을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서 마련한 Academic Advisory에는 신진연구인력인 [Redacted]이 1회, [Redacted]가 2회, [Redacted]이 1회 참여하였다.

☑ 연구 인프라 제공

신진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여 보다 양질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교 도서관뿐 아

나라 글로벌일본연구원 검색 시스템을 개방하여 동 연구원의 정보자료원에 소장 중인 문헌 및 디지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와 <일본도서 자료 검색 시스템>, <닛케이 텔레콤21>과 각종 사전류 및 자료를 웹상에서 공개하는 레퍼런스 서비스 <재팬놀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학연구소 중국학 자료실 또한 개방하여 중국 관련 각종 단행본, 전집류, 사전류, CD, 관련학술지, 학위논문 등의 열람과 복사를 제공하고 있다.

☐ 연구 교류의 확장 기회 제공

- 단기 강연방식 이외에도 세미나 형식으로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인 교류의 장 마련
⇒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소개 및 확산 효과
- 2021-2학기부터 신진연구인력 간의 학술적 교류와 공동연구 적극적 추진
⇒ 논문 수 증가,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전파 위한 신진연구인력 활동 증가

(1) 학문 교류의 장 마련

- [redacted]
-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최한 <제1회 차세대일본연구자연구회>(2021.7.)에서 「로마자운동으로 보는 아쿠타가와문학」을 발표함으로써 20세기와 21세기 다언어상황에 관한 학문적 교류의 장 마련
- [redacted]
- <한국중국어교육학회 월담회 특강>(2022.5.)에서 ‘트랜스-동아시아 서브컬처 트렌드와 중국의 스토리월드 구축’을 강연하는 등 수차례의 특강 및 초청강연을 통해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소개하고 확산
- Living LAB 사업의 기획 및 실무 책임자를 맡아 학문적 교류를 주도
- [redacted]
- <고려대-쓰쿠바대 국제교류>(2022.2.)에서 ‘동아시아 BL문학과 SF적 트랜스 휴머니즘’을 강연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 홍보
- 고려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文廣)’의 교육프로그램 <고성방가>에서 ‘고마쓰 사쿄의 <일본 침몰>’ (2023.1.)을 강연하는 등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진력

(2) 공동연구 추진

신진연구인력의 전공을 고려하여 [redacted]이 각각 공동으로 연구하였다.

- [redacted]
- 한·중·일의 BL 문학을 분석하여 「동아시아 BL문학 비교 연구」 「동아시아 SF BL 서사 비교 연구」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와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논문 게재
- [redacted]
-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예 : 한·중·일 ‘自己’ 류 어휘 비교」를 공동으로 발표하였고, 이를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라는 논문으로 완성하여 게재
- ♣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 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장/부단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동연구 회의비를 지원하는 등 연구교류의 기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② 우수 신진연구인력의 대표 연구 실적

<표 2-7>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신진연구인력 대표 연구 실적

연번	구분	성명	참여 시작일	실적구분	대표 연구 실적 상세내용
1	박사후 과정생	[REDACTED]	2020. 9.1.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③ 일어일문학
					④ 94, pp.149-169
					⑤ 2022.5.
					⑥ 10.18631/jalali.2022..94.008
					<p>(연구 내용) 동아시아 3국의 BL 콘텐츠와 그 관련 산업의 발전 경향을 분석, 비교하여 한·중·일 각국에서 BL장르가 대중화되는 과정과 그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BL 문화는 한·중·일 3국 공통으로 특수한 수용집단에 의해 한정적이고 배타적으로 수용되어 왔으며, 공개적인 담론으로 논의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BL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소비되며 점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BL은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며 더 광범위한 대중과 접촉하게 되었다. BL의 대중화 경향은 동아시아 3국의 BL 콘텐츠에서 동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동아시아적인 문화현상이며, 각국의 BL 콘텐츠 대중화의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BL 문화 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3국 BL의 대중화 현상이 동시대 서브컬처 영역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REDACTED]은 중국어 문학, 문화, [REDACTED]은 일본어 문학 전공으로, 비록 전공은 서로 다르지만 경계를 허물고 위와 같은 실적을 창출하였다. 실적 창출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던 BL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면에서 연구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엿볼 수 있다.</p>
2	계약교수	[REDACTED]	2021. 10.1.	저널논문	① [REDACTED]
					② 동아시아 SF X BL 서사의 트랜스 -휴머니즘적 상상력과 젠더·섹슈얼리티 실험
					③ 중국소설논총
					④ 67, pp.495-520
					⑤ 2022.8.
					⑥ 10.17004/jrcn.2022..67.021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BL문화의 대중화를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동시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브컬처 트렌드, 일종의 트랜스-동아시아적인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그 다양한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BL 문화가 대중화되고 음지의 서브컬처에서 양지로 점차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힘에 따라, BL은 내용적 장르적 측면, 대중과의 접촉면, 산업생태계 측면 등 다방면으로 그 외연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BL이 확장되고 있는 여러 면모들 중에 특히 ‘BL + X(혹은 X + BL)’의 양상, 즉 BL과 다른 장르적 요소의 결합을 통한 장르 확장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조류와 맞물려 이전과는 또 다른 생명력을 얻고 있는 SF 장르와 BL의 결합을 주목하였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논문은 ‘트랜스-동아시아’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며 전공이 다른 두 저자의 공동연구라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한 것이며,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BL이라는 장르를 소재로 하여 최근 대중화되고 있는 시류를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의 시각에서 영민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것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찾을 수 있다.</p>

3	박사후 과정생	■■■■■	2021. 9.1.	저널논문	① ■■■■■ ②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③ 중국학논총 ④ 76, pp.43-74 ⑤ 2022.6. ⑥		
	<p>(연구 내용) 언어학에서 ‘트랜스’란 특정 언어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해당 언어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 언어와의 관계, 주변 언어로부터의 전파와 영향, 언어 유형학적 보편성과 타당성 등을 살피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트랜스의 개념을 동아시아 언어 연구에 적용하여 탈지역적, 탈경계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한·중·일 3국 언어에 나타난 ‘自己’ 관련 어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중·일 언어에서는 재귀대명사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칭대명사가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自己’ 관련 어휘는 한·중·일이 차이가 있으며, 비록 형태가 같을지라도 언어마다 통사 기능이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다.</p> <p>(비전, 목표와의 부합성) 본 논문은 중국어학과 일본어학을 전공한 신진연구인력이 트랜스-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공동연구한 것이다. 또한 한·중·일 삼국의 언어를 동일선상에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언어에서 ‘自己’ 관련 어휘의 위상을 정리한 것이 본 연구의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p>						
4	계약교수	■■■■■	2021. 9.1.	저널논문	① ■■■■■ ②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焉 yān in Old Chinese : An example of Trans-East Asian linguistic study ③ Language and Linguistics ④ 23(4), pp.601-643 ⑤ 2022.9. ⑥ 10.1075/lali.00117.cha		
	<p>(연구 내용) 본 논문은 상고 한어 허사 焉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동안 焉은 의미상 [於(개사)+此(근칭 지시사)]로 풀이되었다. Kennedy(1940a, b; 1953)가 焉이 [於+*an(3인칭 지시사)]의 합음·합의 사임을 제시한 이후로, *an이 상고 한어 지시사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은 상고 한어 시기 비(非) 한어와의 언어 접촉에 착안하여 焉(*?an으로 재구됨)이 於*?a와 원시 오스트로아시아어의 지시사 *ni?; *nih 혹은 *no?; *noh의 합음·합의사임을 증명하였다. 이들 지시사는 전기 상고 한어 시기(기원전 10세기-6세기) 언어 접촉을 통해 중국어에 차용되었다. 또한, 여러 상고 한어 문헌에 나타난 焉의 용례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焉의 문법화 과정을 규명하였다.</p> <p>(창의성·혁신성) 焉의 기원에 대하여 트랜스-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주변 언어와의 접촉 및 차용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점에서 그 창의성과 혁신성이 충분하다.</p>						
총 신진연구인력 수				박사후과정생	4	제출요구량	2~4
				계약교수	4		
				계	8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8>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참여기간 (YYYYMMDD-YYYYMMDD)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	20200901 -20230228	██████	중국시	교과목 개발 및 개설	
<p>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표방한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선도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동아시아문학지리학>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본 교과목은 중일어문학과에 개설된 기초공통 과목의 하나로서, 동아시아 문학을 지리 환경, 문학가의 지리적 분포, 문학작품의 지리 공간, 문학 경관, 문학 지역 등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문학지리학은 문학을 지리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방법론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문학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리 개념, 이를테면 문학작품의 생산 공간과 문학작품에 묘사된 공간 등을 탐색한 바, 이 과목을 통해 수강한 대학원생들이 문학 연구자로서 공간과 경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학작품과 작가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교과목은 중문 전공 대학원생과 일문 전공 대학원생이 함께 수강하였는데, 그 중 모리타 요시코와 오키노기 에리나는 본 교과목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미야자와 겐지(宮澤賢治)의 문학작품 속 심상지리 -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p>						
2	██████	20200901 -20230228	██████	중국현대문학	교과목 개발 및 개설	
<p>기초공통교과목으로 <동아시아현대문학의지적배경>을 개설하였다. 개설 목적은 중국과 일본에서 현대문학의 발생 배경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과 연구 주제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선도하기 위한 주제다. 본 교과목의 수강생은 중문과 대학원생 외에 국문과 대학원생도 있었는데, 이는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트랜스-동아시아 관련 인재 발굴과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교과목은 중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이론에 대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19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동아시아 현대문학의 지적 배경에 대한 탐색을 진행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현대문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본 교과목은 중일어문학과 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중국현대문학이나 일본현대문학과 같은 분과 학문체계를 넘어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의가 크다.</p>						
3	██████	20200901 -20230228	██████	성운학(중국어 학)	교과목 개발 및 개설	
<p>기초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언어문화>라는 과목을 개설하였다. 본 교과목의 주요 목표는 다방면에 걸친 동아시아 언어 현상의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각국 언어의 과거와 현재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과목을 통해,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사용하는 여러 주요 언어의 유형, 계통, 구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아울러 漢語의 경우 文字의 구조와 변천, 고대 음운, 방언의 분류와 각 방언의 어법적, 어휘적, 음운적 특색을 파악한다. 또한 고대부터 현재까지 漢語와 이웃하는 국가인 한국, 일본, 베트남과의 언어 간의 접촉 관계를 통해 전해진 어휘와 언어 발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본 교과목은 본 교육연구단이 추구하는 트랜스-동아시아학이라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해 향후 아시아학 분야에 종사할 학생들에게 더욱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p>						

	20200901 -20230228		중국현대문학	교과목 개발 및 개설	
4					<p><동아시아와문화와뉴미디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동아시아 영화의 트랜스 양상을 주제로 다루었다. 교재로는 김소영 외(2009) 『아시아 영화의 근대성과 지정학적 미학』, 邱淑婷 편저(2011) 『East Asian cinema and cultural heritage : from China, Hong Kong, Taiwan to Japan and South Korea』, 岩本憲児 편저(2017) 『영화, 대동아를 상상하다』, 이영재 저(2019) 『아시아적 신체 : 냉전 한국·홍콩·일본의 트랜스/내셔널 액션영화』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영화의 창작특징과 주제의식을 상호 비교 고찰하여, 뉴미디어 시대 이 지역 영화의 트랜스 양상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수강생이 트랜스-동아시아 성격이 강한 영화를 선별, 분석하여 논문으로 작성해보는 실습을 하였다. 본 수업은 기초과목으로서, 중문, 일문 및 중일비교 전공들의 교차 수강이 허용되어, 전공 별로 상호 관점을 대조, 토론하기가 용이하였다.</p>
	20200901 -20230228		일본고전산문	저서	979-11-91161-89-2 03800
5					<p>인문역량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기획한 '고성방가'에 참여하여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작품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테마로 온라인 강연을 하였다. 본 강연은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MoonKwang)'이라는 인문학 Lyceum에 공개되어, 다양한 전공의 고려대 문과대학 학생들이 인문교양에 관한 강의로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다. 또한 본 강연 내용은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이 출판한 『사랑과 불륜의 문화사』(2022.4.)에 <겐지모노가타리 : 일본고전 명작의 작품세계와 계승>(pp.49-81)으로 실려 학생들의 교육교재와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저서는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국대학출판협회가 발표한 '2022 올해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p>
	20200901 -20230228		일본	논문	10.15755/jfs.2022.62. 419
6					<p>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외국학연구』 62(2022.12.)에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무기 이전 비교 연구 : 자주국방, 대국 외교, 그리고 해양 안보」라는 논문을 석사과정생인 [redacted]과 공동으로 게재하였다. 한·중·일 3국의 동남아 각국에 대한 무기이전 정책과 이를 둘러싼 양자 간 관계를 개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 분석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중·일 3국이 무기이전을 대외정책 수단으로서 각각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 3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무기 이전 관계는 각각 어떠한 성격을 보이는가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한국은 자주국방을 기조로 하는 안보적 고려, 중국은 대국 외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전략적 고려, 그리고 일본은 FOIP에 입각한 안보적 고려가 두드러졌다. 후자와 관련하여 한국은 대등한 상호의존 관계를 지향한 반면, 중일 양국은 힘의 불균등을 배경으로 다소 위계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대학원 수업 <동아시아 지정학과 안전보장 연구>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p>
	20200901 -20230228		일본근현대문학	교과목 개발 및 개설	
7					<p><동아시아일본어문학> 교과목은 본 교육연구단이 4단계 사업에 진입하면서 기초공통과목으로 중문학과 일문학 전공자 모두를 대상으로 개설한 기초공통과목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쓰인 일본어문학을 예로 트랜스-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문학을 고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다. 특히, 본 교과목에서는 재조일본인 문학의 전개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고 재조일본인 문학을 통해서 '일본문학 연구'라는 범주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에서 창작되었지만 한국문학이 아니고 일본어로 창작되었지만 일본문학이 아닌, 재조일본인들이 창작한 일본어로 쓰인 문학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일국 중심의 문학 개념의 한계를 이해하고 동아시아 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한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조선은 개항과 더불어 많은 일본인들이 한반도로 건너왔고, 1910년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본인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하기 이전까지 한반도에 거주하던 수많은 일본인들에 의해 유통, 수용, 창작되었던 일본어문학을 전체상을 개괄하고, 이들 문학의 시대별 전개 과정을 살피고 본토 일본과도 다른 이들 재조일본인만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였다.</p>

	20200901 -20230228	일본문화학	교과목 개발 및 개설	
8	<p>현대사회에서 대중문화는 트랜스내셔널한 이동과 변용을 세계 각지에서 펼치고 있다. 한국의 K-pop, 영화 드라마,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대중문화도 글로벌로 확산되는 한편 각 지역의 로컬 문맥과 재접속하는 가운데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과 소비 형태, 팬 컬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와 문화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원 교과목 <일문근현대문학연구방법론1>에서는 현대의 최신 미디어 연구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일본 수용과 한국의 일본문화 수요를 두 축으로 삼으면서 트랜스-동아시아적 문화변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추구하였다. 아울러 담당자의 강의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수강생들이 논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수강생들이 일본 근현대문학과 미디어 연구를 연결하는 시각을 획득하고 현재 동아시아 대중문화 세계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였다.</p>			
총 환산 참여교수 수		16.4	제출요구량	4~8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트랜스-동아시아** 및 **트랜스-National**을 지향하는 바, 그간 BK사업을 수행해오면서 교육의 기민한 국제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제화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기간의 상황을 선제적인 국제화 사업의 추진으로 돌파하여, **양적 질적으로 심화된 국제화 교육 여건 조성**과 **실행 실적**을 기록했다.

가. 외국대학과의 학위교류, 외국 연구소 및 대학과의 인적 교류

시행 프로그램 : 펜데믹 상황 하에서 지속적 추진하여 효력 유지

협정 대학/학과	협정 내용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대학원 문화연구과	석사과정 복수학위 교류 협정(DMDP)
일본 와세다대학원 문화연구과	학술교류협정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 인문학원 중문과	
중국 화동사범대학 국제문학윤리비평연구센터	
일본 쓰쿠바 대학	복수 석사 학위 프로그램 TEACH (Transnational European and East Asian Culture and History)
독일 본 대학	

현재의 시행 프로그램은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데믹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시행을 타진하고 있다.

추진 프로그램 : 독일, 타이완 등으로 학술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확대 추진

현재 본교 문과대학과 협정 관계인 **독일 튀빙겐대학(Eberhard Karls Universität in Tübingen)** 한국학과와 **교차 전공 교류를 통한 복수학위제도** 및 2019년에 약식 협약으로 체결한 **국립타이완대학(國立臺灣大學)**과의 **복수학위제** 추진은 사업기간 동안 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부 논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프로그램 : 지정교 추천 박사과정 선발, 연구 영역의 지역적 확대 추진

일본 쓰쿠바 대학의 **지정교 추천에 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선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는 동 대학의 국제일본연구 학위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 교류 및 국제화 역량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

2023년 2월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는 **국제학술대회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의 MOU 체결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트랜스 동아시아학의 학술적 범위를 동남아시아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본 교육연구단은 재학생에게 해외 수학의 문호 기회 확대와, 개별 학위 취득 기간의 절약 및 졸업 이후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점을 위해 복수학위제도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전공 분야가 중국, 일본의 <국학>임을 고려하여 학문 후속 세대의 학술 네트워크 기반 형성을 위해 해외 대학의 본교 복수 학위 취득을 적극 유도하여 상생의 지점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해외 지역의 동아시아 연구의 신진 세대 간의 연결 지점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트랜스 동아시아 학술 역량**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자 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 교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본 교육연구단과 밀접하게 공조 관계를 유지해온 교내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한 공동 발전 도모는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중국학연구소(현 소장 █████ 교수)

본교 청산·MK문화관 4층에 소재하며, 자체 자료실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200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 해외지역유망연구소로 선정되었으며, 일본 사단법인 중국연구소, 중국 천진사회과학원, 북경대학교 정치발전 및 정부관리연구소, 신장사범대학 신장소수민족이중언어교육연구센터, 한국기자협회, 미국 워싱턴대학 동아시아·서아시아센터, 중국 산둥 노동대학 아시아태평양 경제연구소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중국학 총서’, ‘중국문화 시리즈’, ‘해외 중국학 총서’ 등을 출판해왔고, 또 기획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중국 전문기자 양성 프로그램을 한·중 양국에서 개최하였으며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의 중국 현지 체험 연수 프로그램인 KU China Global Leadership Program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국학논총』을 발간하고 있으며, 기존 BK21사업과 공동 학술 행사, 국내·외 학자 초청 프로그램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



본교 청산·MK문화관

- 글로벌일본연구원(현 원장 █████ 교수)

본교 청산·MK문화관 1-3층에 소재하며 광대한 해외 네트워크를 포함한 전반적 연구 인프라를 완비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일본연구』, 국제전문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Scopus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다. 글로벌일본연구원은 일본 도호쿠대학 동북아시아연구센터, 중국 북경대학 일본연구센터, 타이완 타이완대학 일본연구센터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40여 개 일본 및 동아시아 연구기관과 연구학술 교류 MOU를 맺고 정례적인 학술 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일본연구원은 과거 5회에 걸쳐 본교 인문학 분야 연구소 평가에서 ‘최우수연구소’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이후에도 2017년 ‘명예 최우수 연구소’로 선정되어 대학본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글로벌일본연구원은 2005년부터 한국 내의 체계적인 일본문화 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일본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일본총서 시리즈>를 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43권을 간행했으며 그 중 학술서 및 문학작품 번역서는 161권이다.

♣ 본 교육연구단, 중국학연구소, 글로벌일본연구원은 본교 동일 건물(본교 청산·MK문화관) 내 위치하여 상호 협력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 해외학자(전임교수·초빙교수·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본 교육연구단은 세계 석학들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개방적인 초빙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그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사업기간 총 22명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강연 또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사업신청서에서 **대상 지역의 광역화와 교류 인사의 다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미국 및 독일 등의 학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동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 학자와의 심층적 교류 기반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 대한 최신 해외 연구 동향 파악 및 교육연구단과 학과 차원의 국제적 접촉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강연의 주제 또한 기존의 **전공영역에 대한 심화와 아울러 인터넷 문학, 문화지리학, 경영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역 이해** 등 대학원생의 시각 확대와 다양한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하였다.

▣ 학과 외국인 교수와 함께 하는 국제 학술 네트워킹

본 교육연구단에는 사업기간 3명의 외국인 교수, 1명의 중국어 모국어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해외 네트워킹 방면에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외국인 교수별 소속 대학과 학술활동 권역에 대한 네트워킹으로 국내 학자, 대학원생과 연계
- 대학원생의 국제학회 발표, 국제학술지 투고 시 외국어 발표 및 학술 외국어 작문 지도 역할
- 국내 국제학회 참여 및 국내 논문지에 발표, 국내 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토론 활성화로 학과가 국제적인 학술 플랫폼이 되는 데 기여

이들은 유학생의 연구 및 정착 생활, 문화 에티켓 등 유학 생활 전반에 걸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였으며,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학술적 성과를 견인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의 외국어, 외국문화 교육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과 강의,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산업화와 학술 성과의 공유 확산에 기여하였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은 다음 항인 6.2.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및 Ⅲ.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문제해결 실적에서 상세히 기술한다.)

다.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현황 및 계획

본 교육연구단과 중일어문학과는 외국인 유학생의 참여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 포기가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본 교육연구단은 사업기간 **25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으로 선정**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 프로그램과 본교 비교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외국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계획이다.

국내대학 학부,석사	중국대학 학부,석사	일본대학 학부,석사	총계
7	13	5	25

해당 학생들의 출신 대학은 중국 소재 대학 출신(약 5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국내 소재 대학 출신의 학생들이며, 이들 대부분은 본교(고려대) 출신이다. 일본 소재 대학 출신 학생들도 비슷한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기본적 학술 능력을 검증받은 대학 출신으로, 한국어 강의와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이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생 상담 시스템의 체계화

외국인 유학생의 전반적인 연구·생활 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적 시스템과 고려대학교 유관부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비교과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기초 및 학술용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유학생 전용 **한국어 논문작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 중이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게는 교양교육원 주관의 **논문 Clinic**을 필수적으로 신청하여 본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과 심층 멘토링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술용 언어 능력 심화

한국어·모국어 양국 언어를 사용한 논문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해외 발표는 학회 공용어로, 졸업논문은 한국어로, 자국 출판은 모국어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용 언어 능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라. 대학원생의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현황 및 계획

교수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주관 ‘일반공동연구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 과제는 **국내 연구자와 인도네시아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교수의 연구실 소속 참여대학원생인** **가 공동연구에 참여하여 주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국제 교류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국의 공동연구자	상대국/소속기관	연구내용	국제 공동연구 실적	기간
			인도네시아/아이틀랑가 대학, 인도네시아대학,	일본점령기전후 인도네시아어중 언어문학연구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사업	2022.7 -2025.6

마. 참여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실적

대학원 박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단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COVID-19로 잠정 연기 혹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1년간 방역 상황의 점진적 완화와 더불어 연기·중단되었던 국제 교류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이 진행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장·단기 해외연수 및 비대면 국제 교류의 점진적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로, **2023년 2월 본 교육연구단과 인도네시아 대학교 인문학부의 국제학술 교류 프로그램인 <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를 공동 주최하였다. 해당 단기 해외 연수에는 2023.2.9.~11. 동안 참여교수 5인, 신진연구인력 1인, 참여대학원생 8인이 참가하였다.

참여교수(5)	신진 연구인력(1)	참여대학원생(8)

6.2 외국인 교수 현황과 역할

본 교육연구단에는 국내 전임교원 외 정년 및 비정년 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이 참여교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 체류 기간은 소속 대학의 상황에 따라 2년 혹은 3년 동안 재직하는 교환교수가 있고, 본교에서만 재직하는 전임교수가 있다. 학과에서는 부임 후 빠른 시일 내 교내 교육환경에 적응하여 소기의 교육적 역량을 발휘하고 교육연구단 내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내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가. 외국인 교수 현황

☐ 중국 현대어법·화용론 분야 석학 : ████████ 교수

-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에서 중국어교육연구실 주임 역임
- 독일 ZAS, 일본 도쿄대학 재직
- 2017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论动词的弱动态活动动相」: 중국어 동사의 상황 유형과 상(相) 구조 획기적으로 규명 → 중국 현대어법 연구의 큰 성과로 평가
- 제16회 대한민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위원장 → **한중 문화 교류 촉진에 기여**

☐ 일본 팝 컬처 권위자 : ████████ 교수

- 일본기호학회, 일본만화학회, 일본표상문화론학회 정회원으로 활약
- Scopus 등재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사독위원
-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대중문화 전문가 → 문학 연구에 경도되어 있던 일어일문학과와의 연구 지평 확장에 기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특별 세미나 <일본 다시보기> 국제전문과정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 강연 →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

☐ 일본어 교육·담화 분야 전문가 : ████████ 교수

- 일본 『言語文化と日本語教育』, 『人間文化創成科学論叢』 등 학술지 평가위원
- 일본어 교육과 담화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 → 대학원 수업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사업 <문화로 입문해서 기술로 완성하는 취업 일본어> 강좌 개설 → **인력 재교육, 취업 활동에 기여**

나. 역할과 달성 효과

본 교육연구단의 외국인 참여교수는 총 3명이다. 외국인 교수의 교육 분야 역할은 **정규 교과목 강의, 논문 지도, 비교과 특강(워크숍), 외국어 논문 쓰기 지도, 기타 멘토링** 등으로 나뉜다. 연구 분야 역할은 개인 전공 연구를 통한 협력, 국제학회 조직, 기타 해외 협력 분야 연계 담당 등으로 나뉜다.



● **교수**

- <중국어 회화>, <현대중국어문법>, <중국어작문> 등 중국어학 과목 담당
- 상하이 화동사범대학에서 박사과정생 지도한 경험으로 중국현대어법 전공생들의 논문지도
- 논문 6편, 저서 1편,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발표 3건·토론 등 참여 3건
- 중국 연구 네트워크 활용한 해외 학술 발표, 논문지도 및 대외 활동

● **교수**

- <일본근현대문학연구방법론1>, <일본근대평론연구1>, <일본문예장르론> 등 과목 담당
- 팝 컬처의 창조성, 젠더 문제, 전후 일본 만화에 드러나는 주제와 표현의 변천, 소비사회에서의 소녀문화의 변용에 관한 토론 수업 진행
- 논문 6편, 강연 6회,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발표 6건·토론 등 참여 13건
- 최첨단의 학술적 식견과 경험 활용한 학생지도, 일문학 연구의 지평 확장

● **교수**

- <일본어교육과코퍼스언어학1>, <일본어교수법1> 등 과목 담당
- 음성, 표기, 문법 등 일본어학의 기본적 분야에서부터 사회언어학, 일본어 교육에 이르는 일본어학의 제 문제에 관한 연구 실적 수업에서 활용
- 일본어 교육학 분야 학생들에게 격주 간격으로 논문 작성 면담
- 논문 6편, 저서 1편, 국·내외 학술대회 연구발표 1건·토론 등 참여 11건
- 일본어학의 다양한 연구방법론 소개, 연구-교육의 순환 구조

♣ 그밖에 한국 국적 전임교원으로서 유일한 외국어(중국어) 원어민인 **교수**도 학과에서 외국인 교수의 역할을 겸하며 내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객원교원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 왔다. 본 교육연구단의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학과는 향후에도 연구와 교육 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해외 우수 대학 또는 기관의 유능한 학자를 초빙하여 학과 수업에 활용하고, 국내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상호간 학문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초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다.

4단계 BK21 사업

Ⅲ. 연구역량 영역

Ⅲ.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별도 제출/평가)

<표 3-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환산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온라인 탑재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사업 참여 기간 내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온라인 탑재

②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0년)

<표 3-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연번	대표연구업적물 설명
1	<p style="text-align: center;">『국보『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 : 일본 고전문학을 그림으로 읽다』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p> <p> 교수의 저서 『국보『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 : 일본 고전문학을 그림으로 읽다』(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0)는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 원작에 실린 모든 그림과 그림설명문(詞書) 도판을 수록하였으며, 이를 해설한 원문(原文), 석문(釈文), 한국어 번역문, 그림해설을 실고 있다. </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1) 연구 업적물의 주요 내용</p> <p>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繪卷)』는 11세기 초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라는 여성이 쓴 장편소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를 회화화한 작품으로, ‘에마키(繪卷)’란 ‘두루마기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본 저서에서 교수는 『겐지모노가타리』와 국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에 관한 해설, 본문 비교, 기초 지식을 수록함으로써, 일본 고전문학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12세기 옛 그림으로 일본 고전작품을 독해하고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 상징적 코드를 발견하고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p> </div> <div style="flex: 0.5; text-align: center;">  </div> </div> <p>(2) 동아시아 문학과 회화의 융합적 심화 연구에 일조</p> <p>본 저서의 특기할만한 점은 현재까지 한국에서 소개된 바 없는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일본문학과 그림을 연계한 융합적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작품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자가 갖는 기능·그림이 갖는 기능을 서로 활용·공명하면서 텍스트와는 또 다른 새로운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논의와 연구 성과가 미비한 그림첩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p> <p>(3) 학문의 대중화에 기여</p> <p>본 저서의 학문적 수월성은 학계의 결과를 교육 현장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대중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본고전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학술의 깊이를 더해가고 교양의 넓이를 확장시켜가는 저자의 노력으로 본 저서는 한국대학출판협회 ‘2020 올해의 우수도서’ 학술 부문 최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대학지성』(2020년 12월 27일자)을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서 소개되었다. 이렇듯 본 저서는 일본고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대중에 확산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p>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교수가 집필진으로 참여한 『두보전집 10: 두보기주시기시역해(3)』은 기주 시기 두시를 다룬 네 권 중 세 번째 저서로, 한국두시학회 두시독회의 열 번째 역해서이다.



(1) 연구 업적물의 주요 내용

766년 늦봄 장강을 따라 배를 타고 내려가던 두보는 오늘날 중경시(重慶市)에 해당하는 기주(夔州) 지역에 체류하였는데, 창작에 몰두한 두보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동안 평생의 작품 중 약 3분의 1을 이곳에서 남겼다. 본 저서에서는 대력(大曆) 원년(元年) 말(766년)부터 대력 2년 가을까지의 시 81제 105수를 다루었다.

2 (2) 기초학문 저변 확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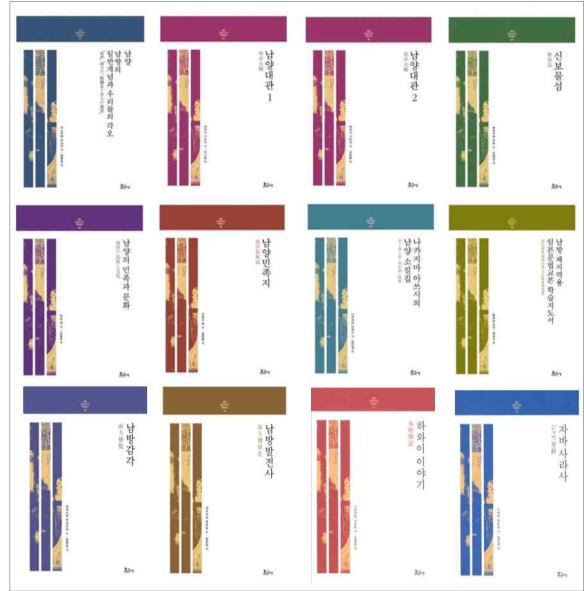
가독성 높은 번역과 충실한 주석의 학술성을 인정받아 본 저서는 2022년 교육부-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었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급함으로써 우수 연구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본 저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되어 기초학문 저변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후속 연구를 이끌어내고 있다.

(3) 연구 업적물의 언론 소개 및 대중적 기여

본 저서의 학문적 수월성은 중국의 역대 역해서의 주석에 더해 역해자들의 공동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여,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색다른 실험을 시도했던 기주 시기의 두시 세계를 대중에 소개하였다는 점에 있다. 『대학지성』(2022년 7월 20일자) 등의 미디어 및 다수의 대중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어 ‘인문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동남아시아 학술총서』
(현재 총13권, 보고서, 2021-2023)

본 저서는 [redacted] 교수를 중심으로 [redacted] [redacted] 참여교수가 참여하여 메이지시대부터 일본이 동남아시아 각지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어떠한 방식을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대한 번역서이다. 이 성과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3

(1)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비전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

일본 연구를 일본 내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연관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방대한 자료를 발굴하여 학계에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이 목표로 하는 탈경계 - 동아시아학을 선도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2) 근대일본 동남아시아 관련 후속 연구에 기여

일본 동남아시아 학술총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즈음하여 2018년과 2019년에 정부 각부서와 국책연구소,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한국의 신남방정책 관련 보고서가 다량으로 간행되는 가운데, 2017년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그 시사점을 찾으려는 논문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 사회와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일본의 학술서나 논문, 보고서 등 자료의 조사와 수집은 물론 대표적인 학술서의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근대 일본 동남아시아 관련 후속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 동아시아 시각 속에서 일본연구 네트워크 형성에 일조

이 연구의 성과로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및 서양의 연구자들과 더불어 <동아시아와 동시대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と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등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함으로써 탈경계와 동아시아라는 시각 속에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1.3 교육연구단의 연구역량 향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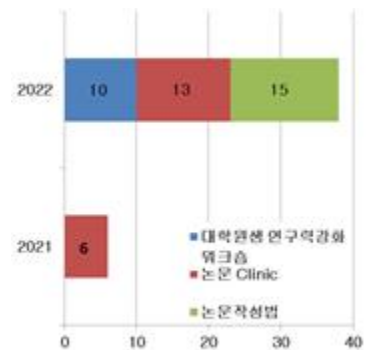
계획 대비 주요 성과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 ⇒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 Scopus 등재
 참여교수 국내외 연구과제 수주 : 4건
 참여교수 연구성과 : 논문 총 73편, 저역서 총 18편, 어젠다 관련 연구성과 창출
 참여교수 연구-교육 환원 ‘고성방가’ 인문교육 프로그램 : 총 7건
- 연구 목표 달성 전략
 - ⇒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창설 : 어젠다 관련 연구성과 촉진, 국제 학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어젠다 관련 트랜스 연구성과 : 학술발표 9건, 논문 4편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공동 연구 성과 창출 : 10건

가.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달성도

☑ 국제저명학술지 개발 및 투고 지원

- 국제학술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 창간 및 운영 : 한·중·일 외 타이완,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의 연구자 등 8개국 저명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 2022년에는 **Scopus에 등재**되어 아시아 학술연구에 특화된 국제학술지로 성장 중
- [] 교수, Scopus 등재지 『**跨境・日本語文学研究**』에 논문 「**韓国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ーのポピュラリティ**」 게재
- 2022년도 1학기에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ONE-STOP 지원 체계 마련
 투고 지원 신청서 제출 → 본 교육연구단에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교양교육원과 연계한 논문Clinic, 국제어학원 번역 서비스 중개, 연구진흥팀을 통한 영문교정 시스템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완료 시 게재비 지원
- 대학원생 논문 작성법 강의 등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 [] 등 참여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인 <대학원생 연구역량강화 워크숍-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국제학술지 논문 투고 전략>을 통하여 국제학술지 논문 작성법 학습
 - [] 참여대학원생, 비교과 프로그램인 논문Clinic을 통하여 『현대문학』에 논문「**빛겨간 이질적 공간: 취추바이(瞿秋白)의 소련 유기(遊記)에 대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접근**」 발표
 - [] 참여대학원생, 석사학위논문「**남양에 관한 아시아 작가들의 문학적 재현과 그 주변**」 제출 등 현재까지 총 19회의 논문Clin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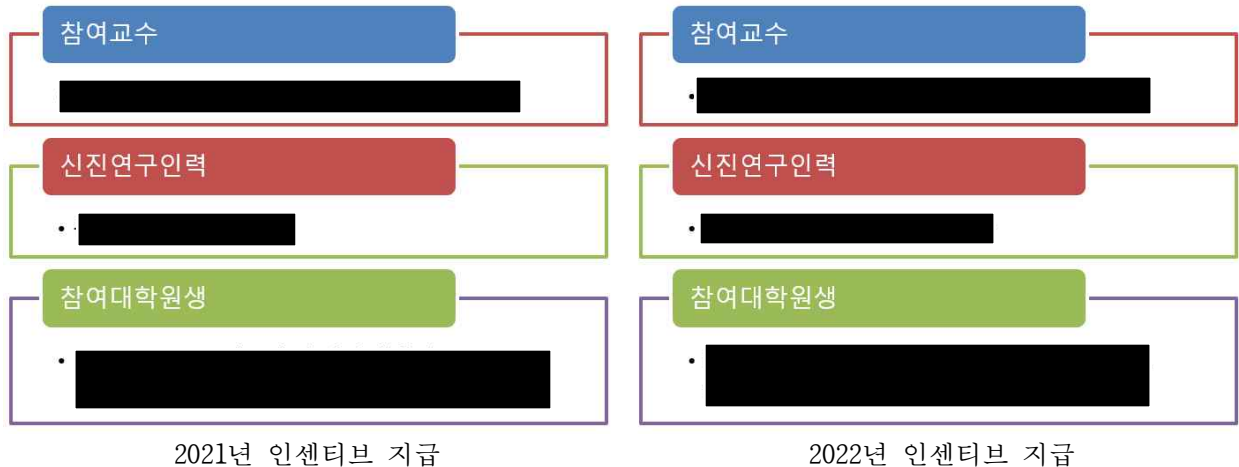


개설 비교과 프로그램

인센티브제 등 경쟁시스템

본 교육연구단은 ‘글로벌 심화 전략’에 따른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지급을 내규에 명기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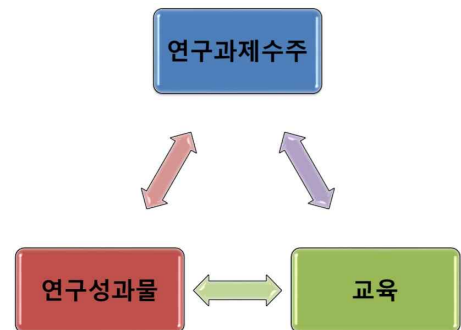
- **참여교수 인센티브 기준** : 논문 실적(국내학술등재지, 해외저명학술지 구분), 저서 실적(단독 저서, 공동 저서 구분), 학술대회 참가 실적(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구분, 발표 및 사회, 토론), 수상 내역, 특강 및 강연회, 학회 및 연구소 활동(2022년 3월부터 교육연구단 보직으로 변경), 담당 수업, 석박사 배출인원 등
-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기준** : 논문 실적(국내학술등재지, 해외저명학술지 구분), 저서 실적(단독 저서, 공동 저서 구분), 학술대회 참가 실적(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구분, 발표 및 사회, 토론), 수상 내역, 특강 및 강연회 등
-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기준** : 논문 실적(국내학술등재지, 해외저명학술지 구분), 저서 실적(단독 저서, 공동 저서, 편서 구분), 역서 실적(학술, 일반 구분), 학술대회 참가 실적(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구분, 발표 및 사회, 토론), 수상 내역, 우수성과 선정(성과수혜, 토론 구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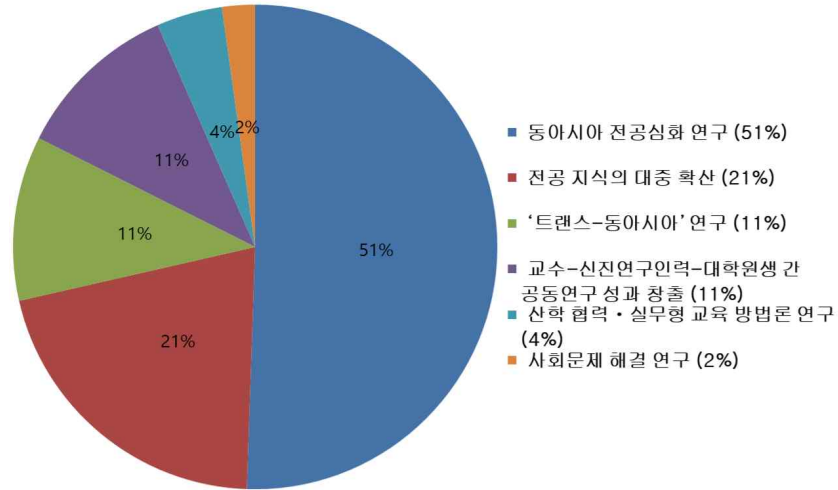
국내외 각종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지원과 우수논문, 교육으로의 환류

연구과제 수주에 따른 우수논문 게재,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연구과제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연구력의 향상뿐 아니라 교육의 내실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교육연구단은 3단계 BK사업 수행 시 참여교수 주도하에 한국연구재단, 정부 및 민간기관, 해외 연구재단의 연구과제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Redacted] (공동연구원) : 2022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일반 공동연구지원사업 (사랑시의 계보학 : 공감 사회를 위한 동서양 사랑시의 상호교차 연구) 선정 및 수행
- [Redacted] (책임연구원) : 2022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일본 점령기 전후 인도네시아 이중언어문학 연구), 2022년 한국연구재단 (인문)명저번역지원사업 (現代史資料—關東大震災と朝鮮人) 선정 및 수행



- [redacted] 책임연구원) : 2021년 공익재단법인 도시바국제교류재단 **도시바재단지원사업**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포럼 제9회 국제학술대회와 <과경/일본어문학연구> 특집호 간행) 선정 및 수행
 ‘트랜스 교육과 트랜스 연구를 통한 통섭적 창의 인재 양성’ 과 ‘트랜스-동아시아 교육 연구 모델과 지식의 확산을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 이라는 2대 교육 비전하에 본 교육연구단은 각 전공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교수의 **논문 실적은 총 73편(Scopus 2편, 국제일반학술지 5편, KCI 66편), 저역서 실적은 총 18편**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분야별 연구 성과

- **동아시아 언어 현상 연구** : [redacted] 교수의 「곽박의 진대 한어 입성운 음운 체계(郭璞의 晉代 漢語入聲韻 음운체계)」(『중국어문논총』 107, 2021.10.) 등 23편
- **동아시아 전통 문화의 심화 연구** : [redacted] 교수의 「일본 국보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源氏物語繪卷)의 스토리 표현에 관한 고찰: 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의 배치와 연결성」(『일본연구』 90, 2021.12.) 등 16편
- **동아시아 근현대 문화의 심화 연구** : [redacted] 교수의 「‘대일통(大一統)’ 이데올로그의 대중문화적 구현: 왕샤오샤이(王小帥) 감독의 영화 『지구천장(地久天長)』의 ‘소일통(小一統)’ 이데올로그 비판」(『중국학논총』 73, 2021.9.) 등 7편
- **해외 학술 교류를 통한 지식의 확산** : [redacted] 교수의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역락, 2021.3. 일본 勉誠出版과 공동출판) 등 저서 2편
- **전공 지식의 대중 확산** : [redacted] 교수의 「서울의 중국어 이름 首爾의 이름 짓기 원칙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와 의미의 창조」(『중국학논총』 69, 2020.9.) 외 [redacted] 교수의 『경성일보문학·문화총서9 탐정소설 누구』(역락, 2021.2.) 등 저역서 16편
-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방법론 제안** : [redacted] 교수의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비교 연구: 동맹의 대체재인가, 아니면 보완재인가?」(『일본연구논총』 55, 2022.6.) 등 10편
- **LAB을 통한 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공동연구 성과 창출** : [redacted] 교수의 「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A Discourse and Big Data Analysis of President Moon Jae-in’s Perception」(『동서연구』 34, 2022.6.) 등 10편
- **산학 협력 교육 방법론 제안** : [redacted] 교수의 「AI 시대 언어학의 핵심 연구 대상은 무엇인가?(语言学在 AI时代的核心研究对象是什么)」(『철학·사상·문화』 34, 2020.11.) 등 2편

- **학습자 중심의 실무형 교육 방법론 제안** : [redacted] 교수의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중국고전시가 수업모형 개발」(『중국학논총』 76, 2022.6.) 등 2편
- **사회문제해결 연구 방법론 제안** : [redacted] 교수의 「“사회적 죽음” 현상 탐색: 휘준 사건을 중심으로(“社死”现象探析: 以霍尊事件为中心)」(『한중사회과학연구』 20, 2022.1.) 등 2편

중국어학, 중국문학, 일본어학·교육, 일본문학·문화, 중일지역·비교문화 분야의 **전공심화는 물론 어젠다 관련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본 교육연구단은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는 물론, 사회과학과의 학제 간 연구까지 수행이 가능한 학술조직으로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참여교수의 수업에서는 물론 문과대학 온라인 플랫폼 ‘고성방가’ 인문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되어 **연구-교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하고 있다.

- [redacted] 교수 <동아시아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redacted] <20세기적 죽음과 탐정소설-에도가와 란포의 탐정소설> 외 [redacted] 교수 등 **총 7건**



작성자 : 고려대학교 / 강연자 : 김수미 교수



나. 연구 목표 달성 전략에 따른 성과

☐ 다양한 국제 교류 장려책을 통한 연구역량 제고

2019년부터 창궐한 COVID-19로 학술계는 국제교류의 장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비대면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연구-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국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東アジア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주관
2021.10.16.~17. 비대면 개최(참여교수 3인 · 신진연구인력 1인 · 참여대학원생 6인 연구발표),
2022.10.15.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3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1인 · 신진연구인력 1인 토론)
- <동아시아 신진연구자 합동 연구 포럼(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주관
2021.12.4.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3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1인 · 신진연구인력 1인 토론),
2022.12.9.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6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5인 · 신진연구인력 2인 토론)
- <동아시아 일본연구자 협의회(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주최
2021.11.26.~28. 비대면 개최(참여교수 7인 · 신진연구인력 1인 · 참여대학원생 8인 연구발표),
2022.11.4.~6. 중국 북경외국어대학 공동 주최(참여교수 1인 참여)

이에 더해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입각한 연구성과를 촉진하고 국제 학술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대학원생들을 위한 신진연구자 국제학술대회를 창설하였다.

-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개최.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등 **총 9개국 15개 명문대학의 대학원생 36인 연구발표**

2023.1.13. 비대면 개최(참여대학원생 11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4인·신진연구인력 4인 토론)
『헤럴드 경제』(2023년 1월 5일자)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 소개, **트랜스 동아시아학의 최신 연구 성과 확인, 세계 대학원생들의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형성**

- <고려대학교-인도네시아대학교 학술교류대회(KU-UI Academic Exchange Conference : Enlargement and Deepening of the Trans-East Asian Academic Connectivity)> 주최.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4개국 대학원생 22인 연구발표
2023.2.9.~11. 비/대면 병행 개최(참여대학원생 8인 연구발표, 참여교수 5인·신진연구인력 1인 토론). 중일 지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발신**

☑ 교내외 유사 LAB간 트랜스 연구 지원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유사 LAB간의 공동 어젠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어젠다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2021년 8월부터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우수성과 신청 공모> 실시. 인센티브 지급
 - []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 「李賀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 등 현재까지 참여대학원생 총 14명 선정
-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 관련 프로젝트 팀 회의비 지원
 - [] 참여대학원생 팀 「전시기 인도네시아 신문매체로 본 트랜스 동아시아의 가능성」, [] 참여대학원생 팀 「트랜스컬처적 관점에서 바라본 찐마오의 글쓰기 전략」 등 총 5팀, 참여대학원생 총 13명 선정 → **어젠다 관련 성과 창출 : 학술대회 연구발표 총 4건, 논문 1편**
- 신진연구인력 어젠다 회의비 지원
 - []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2022.5), []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2022.6) 등 **어젠다 관련 성과 창출 : 학술대회 연구발표 총 5건, 논문 3편**

☑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대학원생 간 LAB 운영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참여대학원생이 참여교수와 신진연구인력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그 연구 수행의 성과물이 논문 및 학술서의 형태로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교육 선순환 사례(총 10건)**는 다음과 같다.

- [] 본 교육연구단의 전 신진연구인력 [] 이 논문 「Facing China Differently and Equall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ese Policy Behaviors」(『Contemporary Chinese Political Economy and Strategic Relations: An International』 6, 2020.9.) 발표 등 공동연구 총 4건
- [], 참여대학원생 [] 이 공동으로 논문 「魯迅的文學現代化策略研究 — 以其筆下的‘鬼’形象為例」(『중국어문학지』 74, 2021.3.) 발표
- [], 참여대학원생 [] 가 논문 「孟郊와 韓愈의 ‘눈물’ 소재 시 비교 연구」(『중국어문학』 113, 2021.11.) 발표 등 공동연구 총 4건
- [] 교수, 전 참여대학원생 [] 가 공동으로 논문 「王力 『同源字典』의 章組 성모 교체 유형 수정」(『중국어문논총』 109, 2022.3.) 발표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실적

<표 3-5>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실적

연번	실적명	참여교수	실적 해당 분야	실적 요약(200자)
1	대중 인문 잡지 『서정시학』 대담 통역, 번역 감수	[REDACTED]	미래/글로벌 대응	2022년 10월 11일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교수와 최동호 교수의 대담은 한일 문화교류 등 한일 관계의 제반 문제 를 주제로 진행했다. 통역은 [REDACTED] (본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이 담당하여 BK 인력 양성의 고도화 에 기여하였다. 대담 내용은 [REDACTED] 교수의 감수를 통해 대중 인문 잡지(『서정시학』 2022년 겨울호)에 게재하여 학문의 대중화와 확산 에 기여했다.
			인력 재교육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2	<2022년 제13회 창원KC 국제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REDACTED]	지역 특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주최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인 김달진문학제에서 <2022년 제13회 창원KC 국제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2022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27회 김달진문학제 행사>에 참가하여 제13회 창원KC국제문학상 수상자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교수의 강연 번역과 통역을 담당하여 한일 문화 교류와 학문의 대중적 소통 에 기여하였다.
			미래/글로벌 대응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3	Living LAB 활동을 통한 유튜브 채널 개국 및 영상 업로드	[REDACTED]	거버넌스 구축	[REDACTED] 교수는 유튜브 채널 ‘트동TV’의 개국을 주도, 거버넌스/플랫폼을 구축 하였다. 이 채널에서는 V-Log와 전문가 초청강연 영상을 업로드하여 동아시아 감정온도를 높이는 문제를 다루며 미래사회와 글로벌 문제에 대한 대응역량을 구비 하도록 하였고, 중국 고전문학사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글로벌 대응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4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2022년 12월 19일 영훈고 / 청원여고	[REDACTED]	미래/글로벌 대응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문학의 영역에서의 능동적 대처와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차원 에서 [REDACTED] 교수는 2022년 12월 19일 영훈고와 청원여고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인문학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학과 고등학교의 협력활동의 일환 이다.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정책 기여	
5	사회문제 관련한 대중미디어 활동	[REDACTED]	정책 기여	2022년 3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제4회 국회미래포럼>에서 미래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 에 대하여 발제하고, 7월 아베 신조 전 일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의 안보인식 및 대외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MBC뉴스데스크 의 <일본 우익의 ‘아이콘’아베> 인터뷰에 응하여 향후 일본 국내와 국제 정세 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미래/글로벌 대응	
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특별세미나 강연	[REDACTED]	인력 재교육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 중앙·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 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 했다. 여기에서는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의 역사와 특징, 글로벌 시장규모, 나아가 만화·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문화의 소비 패턴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다.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미래/글로벌 대응	
7	2022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REDACTED]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사업에 “기초다지기 일본어” 강좌를 개설, 오픈 소스를 통한 대중들의 학술 참여 기회 를 보장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 에 기여하였다. 특히 “문화로 입문해서 기술로 완성하는 취업 일본어”를 주제로 하여 사회 배출 인력의 재교육과 취업 활동 에 기여하였다
			거버넌스 구축	
			인력 재교육	

8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대학이 나아갈 길], 특강	[REDACTED]	지역 특화	2020년 11월 10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대학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립목포대학교가 주최한 인문대학 교수세미나에서 “플립트 클래스 기반 융합형 공통교양 과목의 설계: 고려대 「자유·정의·진리」의 사례”를 주제로 지방 소재 대학의 교육 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정책 기여		
총 환산 참여교수 수			16.4	제출요구량	4~8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산업·사회 문제해결 기여 실적 설명〉

1	대중 인문 잡지 『서정시학』 대담 번역 내용 감수 [redacted] 교수)
---	--

[redacted] 교수는 2022년 10월 11일 창원 KC 국제문학상 수상자인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교수와 국문 학자인 최동호 교수의 대담 내용을 감수했다.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명예교수인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는 일본의 고대가집 ‘만엽집’ 연구의 최고 권위자이다. 그는 특히 나루히토 새 일왕 시대의 연호 ‘레이와(令和)’를 ‘만엽집’의 시에서 찾아 선정하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군국주의가 아니라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세계사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평소 ‘만엽집’에 수록된 상당수 시가가 백제계 도래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해 일본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겸 경남대학교 석좌교수인 최동호 교수는 시집 『황사바람』, 『아침책상』, 『딱따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공놀이하는 달마』, 『불꽃 비단벌레』, 『얼음얼 굴』, 『수원 남문 언덕』, 『제왕나비』, 『황금 가랑잎』 및 시론집 『현대시의 정신사』, 『불확정시대의 문학』, 『한국 현대시의 의식현상학적 연구』, 『평정의 시학을 위하여』, 『삶의 진실과 시적 상상』, 『하나의 道에 이르는 詩學』, 『디지털문화와 생태시학』 등을 저술한 문학가이자 교육자로, 소천문학상, 김환대문학상, 대산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고산 윤선도문학상, 박두진문학상, 유심작품상, 김삿갓문학상, 수원시 시인상, 만해상 대상, 몰도바공화국 작가연맹 문학상, 미국 제니마 문학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한일 두 문학과 학자의 대담은 일본의 대표적인 운문 형식 중 하나인 하이쿠에 대한 대화로부터 출발하여 인간 존재와 그를 둘러싼 세계, 사상에 이르기까지 언설의 심연으로 이어져 갔다. 이 대담의 통역과 정리에는 BK참여 학생인 [redacted]이 담당하였고, 해당 대담 내용은 대중 인문 잡지 계간 『서정시학』 2022년 겨울호(제32권 4호 통권 제96호, <특별대담 나카니시 스스무, 최동호 일본 고대시가와 하이쿠에 대하여>(pp.146-156)에 게재되었다. [redacted] 교수는 해당 대담 내용의 게재 과정에서 최종 감수를 담당했다.

BK참여 학생과 참여교수가 같이 참여하여 BK 학생의 인력양성과 전문화에 도움을 주고 학문의 대중화와 확산에 기여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redacted] 교수는 또한 2022년 10월 11일 문과대학과 본 교육연구단과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의 특별강연회를 주최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고대 문화 교류를 통한 한일 갈등의 문화적 해법 모색과 대학원 과정생들의 학문적 확장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였다.



2	<2022년 제13회 창원KC 국제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	-----------------------------------

■■■■ 교수는 2022년 제13회 창원KC 국제문학상>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달진문학관이 주관하는 창원KC국제문학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국제적으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현역 시인과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학상은 고도의 정신주의 시 세계를 열었던 월하(月下) 김달진 선생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마련된 김달진문학제의 행사 중 하나로, 해당 문학제는 사단법인 시사랑문화인협의회 창원시 김달진문학관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시사랑문화인협의회 영남지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 기준으로 27회째를 맞이했다.

■■■■ 교수는 김구술 교수(협성대 명예교수), 김춘미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유자효 회장(한국시인협회 회장), 박효환 원장(한국문학번역원장)과 함께 5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으며, 2022년 수상자로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 교수를 선정했다.



[종합](#) [포커스경남](#) [사람마당](#) [스포츠](#) [영상](#) [기획연재](#) [월간경남](#)

경남신문 > 문화

[문자크기](#) + - [인쇄](#) [공유](#)

창원KC국제문학상에 日 나카니시 스스무

“학문적 건실함과 융화적 자세, 국경 넘어 귀감”

기사입력 : 2022-10-04 08:04:38

[좋아요 0개](#) [트윗](#)

김구술(협성대 명예교수), 김춘미(고려대 명예교수), 유자효(한국시인협회 회장), 박효환(한국문학번역원장), ■■■■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수상자는 일본에

역대 수상자로 중국의 베이다오, 프랑스의 클로드 뮈샤르, 일본의 아사가와 아키, 미국의 크리스토퍼 메릴 등이 있는 해당 국제문학상의 수상자로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를 선정하면서, 동아시아적 시야에서 행한 비교문학적 연구의 확장성과 평소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의 학문적 건실함과 열린 융화적 자세가 보여준 국경을 넘어 현재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귀감을 평가했다.

또한 ■■■■ 교수는 수상을 위해 방한한 나카니시 스스무 교수의 강연과 대담의 통역에 참여하여, 순탄하지 않은 한일 관계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존을 지켜주는 가운데 평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 교수의 심사위원단 및 활동사항은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다.

경남신문 링크 : (2023.10.4. 보도)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87021>

경남도민일보 링크 : (2022.10.10 보도)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6782>

3	Living LAB 활동을 통한 유튜브 채널 개국 및 영상 업로드 ([REDACTED] 교수)
---	---

트랜스-동아시아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와 관련한 현안 문제로 <동아시아 3국간 감정온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자 유튜브 채널 <트동TV> (https://www.youtube.com/@TEA_TV_KOREA)를 개국하여 거버넌스/플랫폼을 구축하였다. [REDACTED] 교수는 이 과정을 기획하고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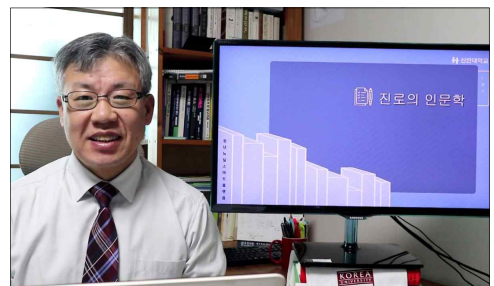
<트동TV>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인문학 및 서베이를 통하여 한·중·일 혐오의 근원을 명확하게 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삼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기획하였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전문가인 학생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한·중·일 언어와 문화, 역사에 대한 영상 공유로 대중의 인식을 재고한다. 둘째, 상대방의 언어, 문화, 역사 등을 이해함으로써 감정 온도를 상승시키고, 호감도를 회복한다. 셋째,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통해 한·중·일 간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 강조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적 유대감, 상호 동질성 회복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통한 한·중·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나아가 한·중·일에 국한하지 않는,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는 트랜스-동아시아 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 모듈과 학부생 모듈로 추진사항을 구성하였고,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참여대학원생 모듈	학부생 연구원 모듈	
중국어 보통화와 방언의 비교	V-Log	숏비디오
한국인과 중국인의 음성인식과 음운체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체험 • 인천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등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일 정서 개선을 위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인물/사건 소개 • 한·중·일 시민 대상 상호 인식 조사
언어와 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한·중·일 차이점과 공통점		
한국사회의 혐중/반일 인식 프레임 조사		

또한 유튜브 채널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문을 위해 전문 크리에이터(한지형)을 초빙하여, 영상콘텐츠 기획, 제작, 브랜딩 등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한 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한·중·일 감정온도의 조절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가 강연회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모두 채널에 업로드 하였다. 아울러 [REDACTED] 참여교수는 이 채널의 ‘지식나눔’ 코너에 중국고전문학사 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여 학문의 개방화/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DACTED] 교수는 또한 의정부시 재정지원사업 <의정부시 청년 뉴딜 스마트 플랫폼 구성 연구>에서 교육프로그램영상 개발에 참여하여 <진로의 인문학> 2차시 강연을 제작하였고, 해당 영상은 2023년 4월 30일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정부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도 조사에서 진로 설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렴하여 <진로의 인문학> 강좌를 개발하였고 [REDACTED] 교수는 여기에 참여하여 해당 콘텐츠를 의정부시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REDACTED] 교수, <진로의 인문학>

4	청소년과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특강([REDACTED])
---	------------------------------------

본 교육연구단의 [REDACTED] 교수는 2022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공동사업, 「5개 대학 고교학점제 캠퍼스 네트워크」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업은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한국의대가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지원 강좌를 개설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하는 고교의 신청을 받아 대학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정규 수업 강의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한 고교 수업 지원을 통한 고교와 대학의 연계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고교 단계에서 진로결정 지원으로 대학 입학 후 중도탈락률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의 주도로 진행된 사업에 본 사업단의 [REDACTED]가 협력한 것이다.

[REDACTED] 교수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인문학의 영역에서의 능동적 대처와 학문의 개방화/대중화 차원에서 2022년 12월 19일 영훈고와 청원여고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인문학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영훈고에서 실시한 강연에는 198명, 청원여고에서 실시한 강연에는 3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4차 산업시대의 변화와 이를 맞이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에 대한 [REDACTED]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REDACTED] 교수는 2022년 12월 21일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문화로 보는 일본어- 町づくり(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해당 강의는 모두 48명의 학생이 수강하였다. 강의와 그룹토의를 통해 이루어진 강연은 다양한 외국어와 문화의 수업에 대한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수요를 만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학교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5	사회문제 관련한 대중미디어 활동 ([redacted] 교수)
---	------------------------------------

본 교육연구단 2022년 3월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제4회 국회미래포럼>에서 미래의 국제질서 전망과 한국의 중장기 외교전략에 대하여 발제 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질서의 격변과 강대국 경쟁의 부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국회와 학계가 함께 미래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외교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redacted] 교수는 이 자리에서 신성호 서울대 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신범식 서울대 교수, 최진우 한양대 교수와 함께 일본의 미래인식과 대전략 및 이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이후,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의 안보인식 및 대외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MBC뉴스데스크의 <일본 우익의 '아이콘' 아베> 인터뷰에 응하여 향후 일본 국내와 국제 정세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일본 우익의 '아이콘' 아베

입력 2022-07-08 19:54 | 수정 2022-07-08 19:54



[REDACTED] 교수는 2021년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중앙 지방공무원 및 및 공사,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세미나 <일본 다시보기> 국제전문과정에서 <일본의 미디어와 문화 콘텐츠>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제화 역량강화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국제 현안과 국정 과제에 관해 국별 혹은 다국적 주제로 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2020년 운영했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고찰한 ‘한반도와 이웃나라들’의 국별 심화 과정으로, 교육생들의 일본 강좌 확대 요청에 따라 개설되었으며, 일본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의와 토론의 시간으로 구성했다.

일본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해 증대를 목표로 중앙·지방 4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 직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7개의 세부 과목을 총 20시간에 걸쳐서 진행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진행된 교육은 각각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디지털 한국 vs 아날로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의 대응,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일 관계,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 지방소멸 대책을 중심으로, 일본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일본 뒤집기-토론으로 구성하였다.

<일본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강의를 담당한 [REDACTED] 교수는 여기에서 일본 만화·애니메이션의 역사와 특징, 글로벌 시장규모, 나아가 만화·애니메이션과 같은 대중문화의 소비 패턴 등에 대해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구하였다.

「일본 다시보기」 국제전문 과정 6/25 ZOOM로 개최

일본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https://www.animatetimes.com/news/details.php?id=1622774270>

7	2022 (K-MOOC)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REDACTED]
---	--

본 교육연구단의 [REDACTED] 교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 사업에 참여, 대중들의 학술 참여 기회를 보상하고, 관련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였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이 사업에는 고려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참여하여 우수한 고등교육 콘텐츠의 제공을 통한 지식 공유와 온라인 기법을 통한 교육활동으로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을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도모해 왔다.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들은 “문화로 입문해서 기술로 완성하는 취업 일본어”를 주제로 하여 다음의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다.

참여교수명	강좌명
[REDACTED]	기술로 고수되기 일본어
	사회로 기초다지기 일본어
	일본취업과 기업문화
	경제로 실력쌓기 일본어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들의 활동은 사회 배출 인력의 재교육과 취업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 사회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을 이해하고, 일본의 경제적 배경지식과 그와 관련된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는 한편 일본 경제의 구성 요소와 그 기본 원리에 대한 기본적 식견을 함양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회화 능력과 포괄적인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 역량을 구비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REDACTED] 교수는 2020년 11월 10일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대학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국립목포대학교가 주최한 인문대학 교수세미나에서 “플립트 클래스 기반 융합형 공통교양 과목의 설계: 고려대 「자유·정의·진리」의 사례”를 주제로 지방 소재 대학의 교육 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당 강의는 고려대학교의 교양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양강의 프로그램 「자유·정의·진리」의 시행 배경과 특징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정의·진리」는 인류 역사의 다양한 지적 성찰 및 실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의·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 전공들 간의 장벽을 넘어 비판적·융합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새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생성하며 타인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플립트 클래스(Flipped Class) 기반의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질문 중심 학습(QBL: Question Based Learning)과 문제 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습자가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교과목은 학생 주도형 토론 중심 수업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망라한 인류 지성사를 통해 비판적·창의적·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정의진리 I>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망라한 인류의 다양한 지적 성찰들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와 세계 인식을 탐구하는 기초 공통교양 과목으로, 1학년 1학기에 운영하며, <자유정의진리 II>는 과학기술이 인간, 사회, 자연과 맺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실천적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심화 공통교양 과목으로, <자유정의진리 I>을 수강한 후에 들을 수 있으며 1학년 2학기에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해당 교과목은 공통 교안에 해당하는 동영상 학습 후 소그룹 협력 토론 및 발표 등의 학습자 중심 활동 진행하는 플립트 클래스 기반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질문 중심 학습(QBL)을 통한 토의·토론 활동 및 문제 중심 학습(PBL)을 통한 문제해결 활동을 바탕으로 비판적·창의적·융합적 사고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 적용, 수강생의 자율수강신청을 통해 학과 혼합형 분반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 간에 전공의 장벽을 넘어선 의사소통의 보장, 다수 분반의 교육 내용, 강의 일정, 평가 기준 등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공통교양 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국내 대학 교양과정 운영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되어 왔다. [REDACTED] 교수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과정의 기획과 시행, 운영의 전반을 주도해 왔으며, 이런 역량은 본 교육연구단의 초기 단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잘 발휘한 바 있다. 국립목포대학에서 시행한 이 강연은 지방대학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특색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교육 과정 수립을 위한 교수세미나에 참고할 귀중한 자료를 제공했다.

[REDACTED] 교수는 그밖에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과의 강의 교류를 통해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양 교육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및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또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 설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확산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20.12.18. 부산대학교에서 “문학 수용 매체로서의 시청각 문화와 중국문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 주제 강연을 통해 인문학 교육과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2021 2월 24일 녹화하여 7월 이후 방영한 고려 사이버대학교 특강 “중국영화와 문화”와 경기도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 “디지털 콘텐츠로 읽는 중국문화” 시리즈 특강 역시 해당 사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본 교육연구단은 외국어문학을 기반으로 국제 학술활동을 특성화 하여 왔으며, 사업 기간 동안 ‘트랜스-동아시아학’을 지향하면서 중국, 일본, 타이완 및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 서양의 연구자들과 활발한 국제학술교류를 심화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왔다.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활동은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국제 초청강연 및 수상, 국제학술지 활동, 국제학술대회 발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적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국제학회 / 학술대회 활동 : 트랜스 동아시아학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1) 국제학술대회 조직 및 위원회 활동 실적

- [] 교수
 - 일본 고전적연구국제콘소시움 (日本古典籍研究国際コンソーシアム) 위원(2020년-현재)
- [] 교수
 - 1회 **트랜스-동아시아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The First TEAS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Graduate students on Trans-East Asian Studies, 약칭 TEAS) > **조직 및 운영** (2023. 1. 13. 본 교육연구단 주최)

해당 학회는 본 교육연구단이 주최한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로, 고려대학교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총 9개국 15개 대학원생 36명이 “트랜스-동아시아”라는 공통 주제 하에 문학, 문화학, 언어학, 지역학 등 동아시아학의 다양한 분야에 관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명의 국내·외 우수 대학의 전임교수 및 연구원이 참가하여 후학을 위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본 쓰쿠바 대학(筑波大学)의 요시하라 유카리(吉原ゆかり) 교수, 대만대학(台灣大學)의 황미아(黃美娥) 교수, 고려대학교 [] 교수의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 교수는 팬데믹 기간 제한된 국제적 학술활동과 교류를 ‘TEAS’의 기획을 통해 돌파하여 본 교육연구단이 선도하고 있는 ‘트랜스 동아시아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학술적 수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앞으로 본 학술대회를 정기적인 국제 대학원생 학술대회로 정착시켜, 세계 각지의 대학에서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하여 대학원생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수는 해당 학술대회의 기획과 조직, 운영 과정 전반을 주도하였고, 해당 학술대회의 개최식 및 제반 활동을 주관하였다.

- [] 교수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한국 측 운영위원(2016년-현재)

● [redacted] 교수

- <중국 절강대학 인문대학원 해외화인 문학과문화 연구센터(浙江大学人文学院海外华人文学与文化研究中心) 해외 위원(2016년-현재)

● [redacted] 교수

-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한국 대표(2013년-현재, 한·중·일·타이완 공동)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 조직위원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2020.11., 한국 주최)

● [redacted] 교수

-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운영위원장(2020.11., 한국 주최)

(2) 국제 초청강연

● [redacted] 교수

- <第三屆韓國中文語法教學研討會>(2021.6., 한국, 한양대학교공자학원)에서 기조강연 「爲什麼要從三個平面看漢語語法?」

(3) 수상

● [redacted] 교수

2021년 [redacted] 교수는 중국 베이징언어문화대학 등이 주관한 <世界漢學家傳播中國語言和文化>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국제 문화 교류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2021년도 CCTSS 우수공헌상(CCTSS: Chinese Culture Translation & Studies Support, 中國文化翻譯研究貢獻)’ 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2021년 1년간 중국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교류의 공로가 두드러지는 18개 국가 23명의 외교관, 학자, 번역가 등에게 수여되었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국제 네트워크가 국내·외에서 공히 인정받는 내실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국제학술대회(세미나·학술대회·학술 심포지엄 등) 발표 실적

사업기간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은 총 21건으로,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기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실적 - (2021.9.-2023.2.)

연번	성명	개최국	발표제목	학술대회명	개최일시
1		비대면	[NIJL 2021 RESOURCES AND COOPERATION FOR THE NEXT DECADE] 韓国における日本古典文学の研究と教育	Virtual 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2021 Annual Conference	2021.3.25.
2		타이완	韓国・文在寅政府の新南方政策と日本・安倍内閣の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FOIP) 構想の比較から得られるもの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0.11.21.
3		일본	韓国における日本研究の動向と展望：外国文学言及から自国文学・文化研究としての日本研究へ	大阪大学グローバル日本学教育研究拠点／「国際日本研究」コンソーシアム共催国際シンポジウム	2020.12.19.
4		일본	冷戦初期以前の韓国における台湾文学認識	東京臺灣文學研究學會(도쿄 대만문학연구회)	2021.7.17.
5		한국	アジアにおける日本語文学・文化の越境と翻訳—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対話—	アジアにおける日本語文学・文化の越境と翻訳—東アジアと東南アジアの対話—	2020.10.16.
6		타이완	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日本研究の交流と東南アジアとの共同研究の可能性	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研究フォーラム	2020.11.21.
7		중국	〈金瓶梅〉韓文譯本初探——以歇後語翻譯為中心	第十六屆(上海)國際『金瓶梅』學術研討會(復旦大學中國語言文學系)	2020.10.31.-2020.11.1.
8		한국	作文の協同推敲過程におけるコメントの役割—日本語学習者によるコメントの検討から—	한국일본학회 제101회 국제학술대회(한국일본학회)	2021.2.6.
9		한국	論現代漢語助動詞的詞義	第22屆Asian文化學會學術大會(Asian文化學會、東國大學東西思想研究所主辦)	2020.12.
10		일본	マンガ家表象と自己表現の交差する場——永島慎二と『COM』の時代	東アジアと同時代日本語文学フォーラム 第9回 オンライン大会 2021	2021.10.
11		일본	韓国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ーのポピュラリティー	제9회 동아시아동시대일본어문학연구포럼	2021.10.
12		대만	『情史』 「情鬼」類作品探析	明清文學的常異與裂變——第六屆中國古典文學國際學術研討會(東吳大學中國文學系)	2021.10.

13		일본	評価の高い作文はどのように修正されたか：「韓国と日本」をテーマとする作文の分析から	2021년도 日中韓삼국 일본언어문화에 관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2021.11.
14		한국	エッセイ形式の震災マンガにおける「3. 1 1」表象の両義性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會	2021.11.
15		한국	在朝日本人の変格探偵小説：「顛倒」への欲望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會	2021.11.
16		한국	Eメールに見られる「言いさし表現」の特徴－韓・中・英の日本語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データに基づいて－	2021 東アジア日本研究者協議会 第5回国際學術大會	2021.11.
17		일본	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見られる断りのストラテジー－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じて－	2021年度東アジア若手研究者合同 研究フォーラム	2021.12.
18		한국	意見陳述の終結部における聞き手の反応：学習者の日本語熟達度による比較から	한국일본학회 제103회 국제학술대회	2022.2.
19		독일	The Epidemic of Poisonous Women and Germination of Desire for the Modern in Meiji Japan	Captivating Criminality 8: Crime Fiction, Femininities, Masculinities	2022.6.
20		싱가포르	現代漢語周遍性主語中周遍義的形成原因	第二十二屆中國語言與文化國際學術研討會（新加坡新躍社科大學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2022.7.
21		이탈리아	현대중국어 동결식의 문형 분포와 교육적 고찰 - 문법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제14회 국제한국어응용학회 국제학술대회	2023.2.

☐ 국제 학술지 관련 활동

참여교수	학술지명	직책	참여기간
[Redacted]	『平安朝文学研究』	이사	2012~현재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	2014~현재
	『文化研究國際學報』	해외고문	2012~현재
	“唐獎”(The Tang Prize)	심사위원	2023~현재
	『東アジアの思想と文化』	편집위원	2013~현재
	『跨境・日本語文学研究』	편집위원장	2014~현재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Literature (A&HCD)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2017~현재
[Redacted]	『跨境/日本語文学研究』	사독위원	2017~현재

☐ 대표 국제 저술 활동 실적

본 교육연구단의 교수들은 미국·중국·일본 및 타이완 등지에서 국제 저술 활동에 참여하여 학문적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관련 저술 활동 실적으로 [Redacted], [Redacted] 공저 『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勉誠出版, 2021.3.)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과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国文学研究資料館)이 2014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기초하여, 도쿄(東京)와 서울을 왕복하면서 공동주최한 포럼(주제: 「동아시아의 지식 교류(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의 결과물이다. 본 저서는 2021년 3월 한국역락 출판사에서 한국어판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ISBN : 9791162447123)로 공동 출판되었다. 각 챕터는 각



포럼의 부제였던 제1회 <서책과 문화>, 제2회 <기록과 기억>, 제3회 <도시라는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저서는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교류라는 키워드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공동출판한 저서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비전에 부합하는 연구성과이다.

또한 [Redacted] 교수의 『從事件鏈框架到漢語動詞的動相結構』(上海: 學林出版社, 2022, ISBN : 9787548618201)가 있다. 이는 중국 ‘국가사회과학기금일반프로젝트(国家社会科学基金一般项目)’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중국어의 언어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이다.

②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소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국의 공동연구자			
1	[Redacted]	迫田久美子, 永田良太	일본/국립국어연구소, 히로시마 대학	「初・中級日本語学習者のEメール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の使用実態-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して-」(『日本語文學』91, 2021.12.)	10.18704/kjll.2021.12.91.109
2		Antonius R. Pujo, Rouli Esther	인도네시아/아를랑가 대학(Universitas Airlangga),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	일본점령기전후인도네시아어중언어문학연구	-
3		加藤清方	일본/도쿄 가쿠게이 대학	『문화로보는일본어(文化で見る日本語)』(술과학, 2021.6.)	979-11-8712-4849(1187124842)
4		MarcellaMARIOTTI, 落合由治, 荻野綱男, 浅原正幸, 小野正樹, 戸田貴子, 宮崎佳典, VuongHongDuc, 谷誠司,	이탈리아/베네치아카오스카리대학, 타이완/단장대학, 일본/일본대학, 국립국어연구소 쓰쿠바대학, 와세다대학, 시즈오카대학, 시즈오카대학, 도쿄하대학	『정보화시대의일본어·일본어교육연구』(보고사, 2021.7.)	979-11-6587-195-6
5		石井奈保美, 유춘미, 이영기, 고선경, 村田佳壽子, 문희진	일본/일본국제교류기금, 도쿄한국문화원, TVSnext, 홋카이도대학, 일본방송대학, 아이치가쿠인대학,	『알면 다르게 보이는일본문화』(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7.)	978-89-20-04036-8 03370
총 환산 참여교수 수			16.4	제출요구량	5~16.4

③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본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사업 기간 동안 본 교육연구단의 주도로 제반 트랜스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 광역화된 연구 네트워킹의 지속적인 강화와 연구역량 확장

트랜스-동아시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해외 연구자와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네트워킹 성과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한국·중국·일본·타이완·미국·유럽 등 동아시아학 관련 연구자와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연구자 및 해외 대학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학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공헌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대만문학 해외강연 시리즈] 2022년 6월 [redacted] 교수의 주도로 대만의 한학연구중심(漢學研究中心)과 대만문학학회(臺灣文學學會)가 공동 주관하고 세계 8개 우수 대학이 파트너로서 공동 주최한 대규모 학술 및 대중강연 활동 <Gateways to the World, 前進世界: 臺灣文學海外講座系列>에 참여하였다. 본 활동에는 국내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려대학교 본 교육연구단이 파트너로 초청되었으며, 각 대학이 세계 석학과 저명 작가 등을 초청하여 시리즈 강연을 구성하여 학계와 대중에게 개방하였다. [redacted] 교수는 한국 측 좌장(Moderator)으로서 국제 교류 네트워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본 활동의 결과는 한학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서 홍보되어 국제적으로 전파되었다.

<Gateways to the World, 前進世界: 臺灣文學海外講座系列>



국제 포스터 및 본 교육연구단 주최 강연 포스터

[글로벌일본연구원 심포지움] 2022년 8월 [redacted] 교수는 다국적 기업 도시바(Toshiba, 東芝)의 공익재단법인인 도시바국제교류재단과 교류하여 국제 산학협력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도시바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여행)하는 일본어문학>이라는 주제로 2022년 9월 2일 <2022년 고려대학 글로벌일본연구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Japanese Studies)의 교수 Araki Hiroshi(荒木浩)의 기조강연과 함께,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redacted]를 포함한 교수 7명이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

(2) 세계적 석학의 개방적 초빙으로 동아시아학 허브 구축

☑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평가기간 총 22회에 이르는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석학 초청강연회는 대학원생에게 동아시아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폭넓은 연구 시야,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체험하는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장되고 개방된 비대면 강연 방식을 통해 인류애, 세계문학, 동남아시아 연결성, 디지털인문학 등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를 확장하는 시리즈형 석학·전문가 초청강연을 기획 및 개최하여 학술교류의 질적·양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초청 해외석학 소속 국가 분포

평가 기간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 22건

연번	강연자	소속	제목	일시
1	조숙자	Arizona State University(미국)	인류세 세대의 동아시아 연구, 그 과제와 전망 East Asian Studies in the Anthropocene Age	2020.11.26.
2	김정민	亜細亜大学(일본)	해외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일본 소재 대학에서 외국인 교원의 경력형성과 연구(日本の大学における外国人教員のキャリア形成と研究)」	2020.12.24.
3	張英進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미국)	엔렌커와 세계 문학 시각으로 본 중국 현대 문학(閔連科與世界文學視野中的中國現代文學)	2021.1.13.
4	鄧思穎	香港中文大學(홍콩)	홍콩 중국어와 세계 화인 중국어의 어휘 연구 (香港中文與全球華語詞匯的研究)	2021.1.21.
5	張健	香港中文大學(홍콩)	‘시언지’와 중국 전통 시학 詩言志與中國傳統詩學	2021.1.28.
6	송희찬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태국)	태국을 중심으로 본 동남아의 이해: 연결성을 중심으로	2021.3.25.
7	查屏球	復旦大學(중국)	정원 문풍의 상탕 - 정원 학술 조류와 정원 문풍의 관계 (貞元之風尚蕩-論貞元學潮與貞元文風之關係)	2021.4.22.
8	張洪明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미국)	3운율 계층 단위와 그 기초 3韻律層級單位及其基礎	2021.5.6.
9	李飛躍	清華大學(중국)	중국 고전문화 연구의 디지털 인문 실천 (中國古典文化研究中的數字人文實踐)	2021.6.24.
10	肖映萱	山東大學(중국)	중국 여성지향 인터넷 문학과 동아시아 여성지향 문화 中國‘女性向’網絡文學與東亞‘女性向’文化	2021.8.5.
11	송희찬	Chulalongkorn University Sasin 경영대학원(태국)	태국과 주변국들 관계로 본 동남아	2021.9.23.

12	윤지원	Stony Brook University Dept. of Linguistics(미국)	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최근 동향: 의문부정사와 부정극어를 중심으로	2021.10.22.
13	孙景涛	香港科技大學 人文學部(홍콩)	성조양극분화 이론과 북경어의 불규칙적 성조 변화 聲調兩級分化理論與北京話不規則的聲調演變	2021.11.4.
14	曾大兴	廣州大學 人文學院(중국)	문학지리학의 연구방법 文學地理學的研究方法	2021.11.19.
15	山口守	日本大学(일본)	시노폰 문학의 책략성과 음성 문제 巴別之後: 華語語系文學 (Sinophone Literature) 的策略性及聲音問題	2021.11.26.
16	丛治辰	北京大學(중국)	‘철서삼검객’ 그리고 오늘날 중국의 심미취향 구성과 그 연원 鐵西三劍客”與當下中國審美趣味的構成與淵源	2021.12.10.
17	錢志安	香港教育大學(홍콩)	중국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 중국어 방언의 역할-이중목적어 구문을 일례로 漢語方言在漢語語法研究中的角色: 以雙賓句為例	2021.12.23.
18	주현주	目白大学 外国語学部(일본)	해외 대학의 한국인 ‘일본어학·교육’ 석학 교수의 연구와 도전: ‘일본어학·교육’ 연구 분야의 진로 탐색을 위한 경력 개발	2022.2.11.
19	甘耀明	저명 작가(대만)	대만의 역사, 자연인문과 나의 문학 세계 台灣歷史·自然人文與我的文學世界	2022.6.9.
20	曾育勤	University of Tübingen Modern Taiwan Studies, Dept. of Chinese Studies(독일)	트랜스-아시아적 모빌리티와 젠더: 대만을 사례로 Trans-Asia Mobilities and Gender: migration to and from Taiwan	2022.6.17.
21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t. of Asian languages & literature(미국)	동아시아에서의 한자 차용 및 전과 양상 Sinographic script borrowing In East Asia	2022.7.14.
22	王红霞	四川師範大學(중국)	중한고대문학교류를 말한다: 이백과 두보를 사례로 中韓古代文學交流漫談—以李白和杜甫為例	2022.10.14.

☒ 특별 강연회

본 교육연구단에서는 연구단이 주도한 해외석학 초청강연회와 별도로 교내 기관과 협력한 특별 강연회도 주도적으로 주최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2022년 10월 11일 나카니시 스스무 오사카여대 명예교수를 초청하여, 만요슈에 대하여(『万葉集』について)란 제목으로 특별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본 교육연구단은 향후 다양한 해외 학술 교류를 통해 해외 학자와 참여교수, 대학원생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4단계 BK21 사업

Ⅲ.1.2.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대표업적물 : <표3-2> 사업 참여 기간 내 참여교수 대표업적물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	[REDACTED]	20200901	20230228	11775130	일본어교육	저널논문	[REDACTED]	의견 표명	Discussion
							②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意見表明の話末の相一緩和機能ときかけ機能に着目して—	발화말	Final Segments of utterance
							③ 일본어학연구	완화기능	Mitigating function
							④72, pp.43-64	작용기능	Conative function
							⑤	발화 공유	Sharing of the utterance
							⑥ 2022.6.		
							⑦ 10.14817/jlak.2022.72.43		
<p>트랜스-동아시아 시대에는 각 언어 화자에 의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달성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주장 방식은 각 언어마다 다른 특징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구조 해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그 중 일본어 모어(母語) 화자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 표명의 구조를 해명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견교환 속 모어 화자에 의한 발화말 구성요소의 출현 경향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특히 발화말의 요소가 갖는 발화를 완화하는 기능과 듣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에 주목했다. 교과서의 설명과 그에 따른 지도로는 학습자가 충분히 발화 말 표현을 습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모국어 화자의 의견표명이 어떻게 발화되고 있는지를 발화말 양상에 주목하여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어 모어 화자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의견표명의 발화말 표현을 선택하고 있음을 추찰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의견표명의 특징을 밝힐 뿐만 아니라 논문 결과를 실제 일본어 교육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하는 등 교육과 연구 영역이 융합된 논문으로 학문적 성과와 의의를 가진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	[Redacted]	20200901	20230228	11775130	일본어교육	저널논문	① [Redacted]	회화 수업	Conversation classes
							② 日本語話授業における協習導入の可能性 - 質問回答タスクの分析から -	협동 학습	Peer learning
							③ 일본어교육연구	질문-응답 과제	Question-answering
							④ 56, pp.67-86	언어지식	Linguistic knowledge
							⑤	언어 운용	Linguistic performance
							⑥ 2021.8.		
							⑦ 10.21808/KJE.56.05		
<p>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해외 일본어 교육환경(JFL 환경)에서도 학습자가 다양화되고 있다. 학습자들이 가진 지식자원을 수업에 활용해 학습자 중심의 교실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교육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회화 수업에서 어떠한 학습 영역에서 학습자의 협동학습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일본어 회화에 관한 의문을 학습자가 협동해서 해결하는 '질문-응답 과제'에서 질문 및 답변 경향을 살펴보았다. 문항은 문법과 어휘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어나 발음 등 회화에 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한 상대와 말하는 방법, 말하기 학습법 등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답변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은 문법지식의 영역이며, 특히 가정표현 등 직역이 어려운 것에 대해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협동학습의 실현성이 높은 항목으로 ①어휘, ②학습자의 경험에 근거한 지식, ③학습전략을 추출하여 지도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어 회화에 관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부각시켜 협동학습과 교사 지도 방향을 탐색하여, 일본어학과 교육 관련 전공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3	[Redacted]	20200901	20230228	11506203	일본문화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한일관계	Korea-Japan relations
							② 多元的なアイデンティティと感情の交錯—「鬼滅の刃」と韓のマンガアニメ受容—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③ 일본학보	트랜스내셔널 문화이동	Transnational cultural migration
							④ 131, pp.79-99	글로벌리즘	Globalism
							⑤	귀멸의 칼날	Demon Slayer
							⑥ 2022.5.		
							⑦ 10.15532/kaja.2022.05.131.79		
<p>최근 만화-애니메이션은 글로벌 규모로 인기를 확장해 감성적인 소비를 통한 캐릭터에 대한 몰입이나 일러스트나 코스프레, 콘텐츠의 2차 창작, 인터넷을 통하여 사회, 정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둔 향락적인 콘텐츠 수용이나 팬 문화를 낳는 촉매로써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만화 애니메이션은 때때로 감정적인 반발이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와의 충돌을 낳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글로벌로 확산되는 일본 대중문화와 지역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충돌을 보여주는 범례적인 사례로 '귀멸의 칼날'의 한국 수용을 거론하고, '귀멸의 칼날'이 한국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어떤 비판적인 담론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귀멸의 칼날'이 수용자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 사회와 역사,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가시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이 작품이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수용사에서 특이한 문화현상이었음을 밝혀냈다. 본 논문은 일본 대중문화, 특히 OTT 플랫폼의 발달과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 수용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 일본문화학 세부전공분야에 기여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4	[REDACTED]	20200901	20230228	11506203	일본문화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동일본 대지진	Great East Japan Earthquake
							② 3.11をめぐるエッセイマンガの義性	에세이 만화	Essay manga
							③ 일본언어문화	재난 서사	Disaster narrative
							④ 61, pp.131-155	시민 미디어	Citizen media
							⑤	문화 산업	Cultural industry
							⑥ 2022.12.		
							⑦ 10.17314/jjlc.2022..61.007		
<p>인류세와 기후변화가 일상적인 화제가 되면서 글로벌리즘이 환경파괴와 나눌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동아시아를 넘어선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지진, 홍수, 쓰나미 등 천재지변과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재, 심지어 COVID-19처럼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재난가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 그와 동시에, 그러한 재난의 기록이나 서사의 연구는 보다 중요성을 더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대 일본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난이 동일본 대지진이다. 본 논문은 특히 만화라는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미디어 중에서도 에세이 만화라는 장르에 주목하여 그것이 동일본 대지진='3.11'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표상해 나갔는지 그 내실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3.11'에서 에세이 만화가 기억과 망각, 기호성과 기록성, 개별성과 일반성, 시민 미디어와 문화 산업, 타인에 대한 전달과 타인의 승인 등 자기 표현과 재난의 기록 등 문화 생산의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 양의 표상의 장임을 밝혔다. 3.11이라는 재해 표상과 문화산업을 분석하는 본 논문은 재난과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크며, 이러한 성과는 관련 분야의 후속연구에 유의미한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5	[REDACTED]	20200901	20220831	10972010	통사론(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의미	meaning
							② 三方面看意的化	관습화	conventionalization
							③ 한중인문학연구	부호화	formation of signification
							④ 68, pp.93-122	관습화의 안정화 정도	degree of stability of conventionalization
							⑤	관습화의 확장 범위	expanded range of conventionalization
							⑥ 2021.6.		
							⑦ 10.26528/kochih.2020.68.461		
<p>과정과 결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미 관습화는 다양한 종류, 다양한 단계상에서의 의미 표현 단위가 부호화 또는 재부호화 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의미 관습화는 부호에서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가 고착화되었는가 여부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1. 의미 관습화의 안정화 정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부호의 고착화 정도와 그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2. 의미 관습화의 확장 범위. 이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부호가 하나의 단계상에서 의미 표현 종류를 증강하는 능력과 그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3. 의미 관습화의 표현 등급. 이는 실질적으로는 부호의 조합체가 더 높은 단계에서 재부호화되는 능력과 그 특징에 관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세 가지 측면의 현상을 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본 논문은 의미관습화의 정도를 세 단계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어학 세부전공분야의 심화연구에 기여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6	[REDACTED]	20200901	20220831	10972010	통사론(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언어학	linguistics
							② 言在AI代的核心对象是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③ 철학·사상·문화	자연언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④ 34, pp.73-92	의미	meaning
							⑤	화용의미	pragmatic meaning
							⑥ 2020.11.		
							⑦ 10.33639/ptc.2020.34.004		
<p>AI 시대에 자연언어처리는 인공지능의 몇 가지 중요한 연구영역 중 하나이다. 언어학자는 AI 시대에 인공지능연구 특히 자연언어의 컴퓨터 처리의 연구에 큰 공헌을 세우려면 장점을 발양하고 단점을 피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연구에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언어의미에 관련된 발생, 구조, 층차와 이해 등 방면의 이론 설명과 이론 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AI 시대에는 의미가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화용의미연구에 대한 절실함도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화용의미를 의미연구의 핵심위치에 두어야 한다. 요컨대 언어학자는 반드시 진지하게 이전의 긍정 및 부정적인 양방면의 경험을 총괄해야 하며 정확한 연구 의사를 파악하여 알맞은 연구방향을 찾아내야 한다. 단어와 말은 사유 활동의 매개체이며, 말의 의미는 각종 사유 활동의 결과를 반영, 탑재, 전달하므로 자연어 처리는 반드시 인공지능 연구의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하는 본 논문은 AI시대 언어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야의 연구물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7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45567	중국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루쉰	Lu Xun
							② 문학과 정치의 기로-마오쩌둥(毛澤東) 혁명의 현실적 승리와 루쉰(魯迅) 혁명의 형이상학적 승리	마오쩌둥	Mao Zedong
							③ 중국학논총	문학	Literature
							④ 69, pp.81-102	정치	Politics
							⑤	혁명	Revolution
							⑥ 2020.9.		
							⑦		
<p>루쉰은 중국인의 사상 개조와 문화혁명을 주장하지만, 작가의 정치 참여나 문예의 순수성을 공히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중국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쩌둥과 같은 정치혁명가들은 문학을 이용하여 혁명을 촉진하고 완성한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정치혁명과 문학을 통한 사상혁명이라는 루쉰의 방향은 세계의 가시화라는 교차점을 통과하면 상반된 길을 가게 마련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마오쩌둥이 루쉰을 혁명가, 사상가, 문학가라고 평가한 것은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언어와 사물의 관계를 음미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어주기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려는 자가 문학가이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학가라는 존재 자체가 혁명가이자 사상가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국현대문학 전반에 가해진 정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점검하고 있어 기존의 텍스트 분석 중심의 문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8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45567	중국문화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지구천장 (地久天長)>>	『So Long, My Son』
							② '대일통(大一統) 이데올로기의 대중문화적 구현 - 왕소오쉬이(王小帥) 감독의 영화 『地久天長』의 '소일통(小一統) 이데올로기 비판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③ 중국학논총	대일통	Grand Unification
							④ 73, pp.159-181	해피엔딩	Happy Ending
							⑤	정치 전략	Political Strategy
							⑥ 2021.9.		
							⑦		
<p>본 논문은 영화<<지구천장 (地久天長)>>을 통해 21세기 중국의 정치와 영화산업의 관계를 대일통(大一統)의 꿈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대중문화의 파급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통치 이데올로그와 상반되는 여론의 형성 때문이다. 문화대혁명·上山下鄉·산아제한정책·개혁개방 등과 같은 민감한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地久天長』과 같은 작품은 정치 이데올로그에 근접해 있다. 정치권력에 대한 암묵적 비판 여론의 형성을 낳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문화정책,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리라는 미명 하에 통치의 정당성과 역사적 과오를 포장하는 미학적 수단을 찾는다. 자본의 기획에 포획된 영화는 권력의 용이한 포획 대상이 되며, 자본과 권력 양자에 포획된 영화는 대중의 감성을 포섭함으로써 내장된 권력의 이데올로그를 無言으로 전파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렇듯 본 논문은 문학, 문화와 정치 이데올로그를 결부시켜 분석함으로써 문학연구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음에 그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9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15746	성운학(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동원사전(同源字典)>>	Dictionary of Cognate Words
							② 王力<同源字典>의 韋組 성모 교체 유형 수정	동원어	Cognate words
							③ 중국어문논총	상고한어음운	Old Chinese phonology
							④ 109, pp.1-38	쌍성	Alliteration
							⑤	방뉴	Side button
							⑥ 2022.4.		
							⑦		
<p>王力の <<同源字典>>』(1982)은 漢語 가운데 동원어를 표기한 글자들을 동원자로 칭하고 上古 韻部와 성모 별로 분류해 수록한 사전이다. 그의 분류 가운데 성모 부분은 쌍성, 방뉴, 인류로 분류한 바 있으나 여러 예에서 해성, 통가 등의 현상이 있음에도 성모에 공통 분절이 없음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했다. 王力の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상고한어의 성모를 단일성모로 전제해 분류를 시도한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고한어복자음 성모설을 채택해 이 체계에 부합하는 성모를 중심으로 재분류해 기존의 분류를 초월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생성하게 된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성모 뿐만 아니라 중고 시기에 성모의 일부가 되거나 모음성 개음으로 변화하게 될 자음으로 구성된 상고한어의 개음도 포괄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으며 일부 개음이 성모 접촉에 관여했음을 확인한 본 논문은 성운학의 후속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0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15746	성운학(중국어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서막(徐邈)	Xu Miao
							② 徐邈의 陰聲韻 음운체계	음성운(陰聲韻)	Yinsheng rime
							③ 중국어문논총	음주(音注)	Sound gloss
							④ 112, pp.1-52	중고중국어	Middle Chinese
							⑤	상고중국어	Old Chinese
							⑥ 2023.1.		
							⑦		
<p>《經典釋文》은 陸德明(A.D. 550년?-630년)이 편찬한 주석서로, 그 안에는 14종의 經典에 출현한 난해한 어휘에 대해 여러 주석가들이 기록한 音注와 義訓[音義]이 수록되어 있다. 陸德明 자신이 각 어휘의 가장 앞에 음주를 기록했으며 그 이외에는 다른 학자들의 음주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가 徐邈(A.D. 343년-397년, 東晉)으로 그간 한국에서는 그가 기록한 음주의 음운체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徐邈이 인식한 음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그가 인식한 음계가 상고한어에서 중고한어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의 음계를 반영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고한어와 중고한어의 구체적 음계를 활용해 서막의 음주가 반영하는 음계 가운데 모음이나 모음류로 끝나는 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음성운의 음계를 수립했다. 이와 같이 구체적 음계를 수립한 예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전무한 것으로 음계 수립을 통해 구체적 음변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공헌할 것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1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80673	일본고전산문	저널논문	① [REDACTED]	국보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源氏物語)	"Genji Monogatari Emaki"
							② 일본 국보 『겐지모노가타리 에마키(源氏物語)』의 스토리 표현에 관한 고찰—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의 배치와 연결성—	시기산엔기에마키(信貴山起)	"Shigisan Engi Emaki"
							③ 일본연구	고토바가키(詞書)	Kotobagaki
							④ 90, pp.39-63	회화()	pictures
							⑤	스토리 표현	expression of story
							⑥ 2021.12.		
							⑦ 10.15733/jast.2021.90.39		
<p>본 논문은 종래 단락식 에마키로 분류되었던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源氏物語)』를 대상으로 고토바가키(詞書)와 그림이 어떻게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스토리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지 고찰한 것으로 기존 연속식 에마키, 단락식 에마키의 구분법에 의해 간과되기 쉬운 『겐지모노가타리에마키』의 본래의 특성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본 작품의 풍부한 스토리 표현방법양식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그림과 고전소설, 설화 등에 나타난 스토리의 흐름이나 시간표현의 문제를 연동해서 살펴본 방법론은 그림(회화)와 문학을 접목한 융합적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융합적 연구성과는 현재 한국에서 학계 발표 뿐 아니라 수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2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80673	일본고전산문	저서	① [REDACTED]	동아시아	East asian
							② 한국「동아시아의 지식 교류」/ 일본「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	지식의 교류	Exchange of knowledge
							③ 한국 역락 출판(亦出版)/ 일본 벤세이 출판(勉誠出版)	문화	culture
							④ 9791162447123 pp.9-12, 83-95	기록과 기억	Records and memories
							⑤	도시	city
							⑥ 2021.3.		
							⑦		
							<p>본 저서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과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文究資料館)이 2014년에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기초하여, 도쿄(東京)와 서울을 왕복하면서 공동주최한 포럼(주제: 「동아시아의 지식 교류(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의 귀중한 성과물이다. 각 챕터는 각 포럼의 부제였던 제1회 <서책과 문화>, 제2회 <기록과 기억>, 제3회 <도시라는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3월 한국(『동아시아 지식의 교류』 역락 2021. 3)과 일본(『東アジアにおける知の往還』(勉誠出版, 2021.3)에서 각각 한국어와 일본어로 공동 출판되었다. 본 저서는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교류라는 키워드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공동출판한 저서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트랜스-동아시아 교육과 연구를 통한 지역 연대의 가치 모색이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교육비전에 부합하는 연구성과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3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30204	중국시	저널논문	① [REDACTED]	전산비평	Computational criticism
							② AI 시대 중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탐색	빅데이터	Big data
							③ 중국문학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④ 106, pp.1-28	기계번역	Machine translation
							⑤	정보시각화	Information visualization
							⑥ 2021.2.		
							⑦		
<p>본 논문은 'AI 시대'에 대응해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해볼 다섯 가지 분야를 검토한 것이다. 전산비평은 코퍼스 문체론으로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고찰이나 어휘 수준의 탐색에서 모두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빅데이터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발굴하고자 할 때 유용해 보인다. 네트워크 분석과 연결 지을 때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인공지능은 'Word2Vec'과 같은 텍스트 처리 모델을 이용해 共起語 분석에서 장점을 발휘한다. 문장 유사도 분석을 응용하면 異本 텍스트 간의 비교나 작가들의 계보 작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계번역은 현대어로 된 2차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각화 분야에서는 'GIS 기반 문학지도'와 '인포그래픽' 등에 대해 더 활발한 탐색과 시도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AI'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중국 고전문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의 고전문학 연구의 후속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4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30204	중국시	저널논문	[REDACTED]	사랑시	love poetry
							② 중국 고대의 '사랑' 개념과 사랑시의 주제 — 先秦에서 唐代까지의 사랑시를 중심으로	토픽 모델링	topic modeling
							③ 중국어문논총	문서빈도-역문서빈도	TF-IDF
							④ 111, pp.315-344	전형성	typicality
							⑤	정서	emotion
							⑥ 2022.10.		
							⑦		
<p>중국의 고대문학이 현대문학이나 서양문학과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 가운데 특히 사랑시 영역이 그러하다. 사랑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사랑시의 창작 양상까지 여러모로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先秦에서 唐代까지 창작된 중국의 사랑시를 분석해 중국 고대의 사랑 개념, 사랑시의 주요 주제, 시대별 사랑시의 전형성과 정서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표작 선정과 시어에 대한 TF-IDF 지수 분석을 통한 토픽 모델링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여 고전문학 연구의 혁신성을 담보하였으며, 그 결과 중국 고대 사랑시의 주제는 先秦에서 唐代로 이행하면서 '열애'보다는 '이별'의 주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그리움'을 뜻하는 시어 '思'가 중국 고대 사랑시의 특징적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랑시의 하위 주제로 '이별'과 '근심'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용어 빈도-역문서 빈도로 詩語의 빈도를 분석해 시의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인 TF-IDF 지수 분석을 통한 연구로 기존의 중국 고전문학 연구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5	[REDACTED]	20200901	20220831	10007211	극문학(일본문학)	저널논문	[REDACTED]	제아미	Zeami
							② 노(能) 작품 속의 달빛의 역할	달빛	Moonlight
							③ 일본학보	집심	Attachment
							④ 127, pp.251-267	이즈쓰	Izutsu
							⑤	도루	Toru
							⑥ 2021.5.		
							⑦ 10.15532/kaja.2021.05.127.251		
							<p>본 연구는 2020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제아미의 노(能) 작품에서 주인공의 불교적 구제의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는 형태로 설정된 달빛에 주목하여, 작품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하였다. 주인공들이 품었던 집심(執心)을 해소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달빛의 영향이 컸으며, 불교적인 구제까지는 이루지 못했음지라도 주인공들은 제각기 나름의 원하던 바를 이루고 있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달빛에 주목하여 구제와 집심의 문제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노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여 일본 극문학 세부전공분야에 기여하고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6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9969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한국	Korea
							② 한중일 3국의 대 동남아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비교 연구	중국	China
							③ 일본연구논총	일본	Japan
							④ 55, pp.9-38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s
							⑤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⑥ 2022.6.		
							⑦ 10.35368/kjjs.2022..55.001		
<p>지난 20년 동안 한·중·일 3국은 모두 아세안 및 동남아 각국과의 제휴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다름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다. 분석 결과 한·중·일 3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공통점으로는 공동선언 및 협력 메커니즘의 일반적인 요소들의 존재, 정치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지역 구상의 결합, 경제와 안보의 기능주의적 접근, 대외적 이슈에 대한 관점 수렴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주된 차이점은 안보협력과 지역질서, 그리고 전략적 고려에 관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일반적인 관행으로 정착하고 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향후 역내의 균형과 안정, 그리고 경제통합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정치외교적, 경제적 연결성을 면밀히 논증했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7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9969	일본	저널논문	① [REDACTED]	문재인	Moon Jae-in
							② South Korea's Evolving Balanced Diplomacy and China	한국	South Korea
							③ 동서연구	균형외교	Balanced Diplomacy
							④ 34(2), pp.199-234	한중관계	Korea-China Relations
							⑤	미중 경쟁	US-China Competition
							⑥ 2022.6.		
							⑦ 10.29274/ews.2022.34.2.199		
<p>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어떠한 전략 하에 '균형 외교'를 유지해 왔는가? 본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중국 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으로 담론 및 빅데이터 분석을 주로 활용했다. 분석의 결과는 외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문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국익 측면에서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확보, 미중 경쟁에 대한 외교적, 안보적 자율성 유지, 각종 경제적 위협에 대한 헤징, 국내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사이의 대립 극복을 시도했다. 균형의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그의 인식에서 강대국 간 권력 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 미중 경쟁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의외의 상대적 무관심, 자국의 국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열악한 권력배분 구조를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중관계의 일단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하려는 본 연구는 본 교육연구단의 트랜스-동아시아라는 연구 어젠다를 선도하는 연구성과라 자부한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8	[REDACTED]	20220301	20230228	11744175	통사론(중국어학)	저널논문	[REDACTED]	동결식	VRC (Verb Resultative Compounds)
							② 현대중국어 동결식의 문형 분포와 의미 구조 — 《動詞-結果補語搭配詞典》에 대한 정량 분석을 기반으로	사동/상태변화	causal/change of state
							③ 중국어문논총	타동/자동	transitive/intransitive
							④ 112, pp.53-77	문형분포	sentence distribution
							⑤	정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⑥ 2023.1.		
							⑦		
							<p>전통적으로 동결식(Verb Resultative Compounds/VRC)은 사동의 의미를 타동의 통사구조, 즉 SVCO로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동사-결과보어 결합 사전 『動詞-結果補語搭配詞典』에 수록된 예문을 중심으로 한 정량 분석 결과, 동결식의 기본적인 의미-통사구조는 변화의 자동구조 SVC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어 결과보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한·중·일 주변 언어 및 세계 언어와의 비교, 대조 연구의 심화 진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19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36846	일본근현대문학	저널논문	① [REDACTED]	대중문학	Popular Culture
							② 韓における日本ミステリのポピュラリティ	일본 미스터리 소설	Japanese Mystery novels
							③ 跨境/日本語文究	번역	Translation
							④ 13, pp.39-51	인기	Popularity
							⑤	독자수용	Reader Reception
							⑥ 2021.12.		
							⑦		
<p>본 논문은 194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10년 단위로 당시의 한국 출판계와 사회상을 고찰한 연구이다. 추리소설이라는 대중문학 장르가 근대 초기 서양에서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식민지기, 조선은 일본을 통해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수용하고 1930년에 이르러서는 대중문학의 한 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근대 초기 대중문학의 수용 양상이 해방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본 대중소설을 번역 수용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상이 2020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정량적으로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10년 단위의 수용 양상을 당시의 한국 출판계와 독서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분석하였다.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의 추리소설이 일본을 넘어 한국으로 트랜스해 온 과정을 살펴보고 대중문학 문화가 국경과 문화권의 경계를 넘어 수용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는 본 논문은, '트랜스-동아시아'라는 본 교육연구단의 연구 어젠다를 발전시킨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0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36846	일본근현대문학	번역서	[REDACTED]	경성일보	Keijo-Nippo
							② 경성일보문학문화총서9 탐정소설누구	탐정소설	detective stories
							③ 역락	번역	translation
							④ 979116244514304800	식민지기	colonial era
							⑤	신문 연재 소설	Newspaper serial novel
							⑥ 2021.2.		
							⑦		
<p>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일제강점기 가장 핵심적인 거대 미디어였던 『경성일보』는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식, 인적 교류, 문학, 예술, 학문, 식민지 통치, 법률, 국책선전 등 모든 식민지 학지(學知)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최대의 공간이었다. 본 번역서는 이와 같은 『경성일보』에 게재된 에밀 가보리오의 『서류 113』을 후세 생이라는 재조일본인이 번역하여 연재한 소설이다. 「누구」는 『경성일보』가 처음 연재한 탐정소설이다. 신문사 홍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문사가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간판 소설로 탐정소설을 연재한 첫 시도가 이 책에서 번역한 「누구」이다. 이처럼 「누구」는 탐정소설이 재조일본인의 독서 공간에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학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시발점이 된 작품이다. 서양의 탐정소설이 일본을 거쳐 식민지 조선으로 유입된 실례이며 그간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재조일본인의 문학을 재조명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식민지 학지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라 사료된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1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7011	중국현대문학	저널논문	[Redacted]	«일요일식 산보자»	LeMoulin (2015)
							② 동아시아의 식민 네트워크와 이동하는 초현실주의 - 타이완의 문학 다큐멘터리 영화 <일요일식 산보자>를 중심으로	풍차시사(風車詩社)	Le Moulin Poetry Society (Fengche Shishe)
							③ 중국학논총	타이완 문학의 초현실주의	Literary Surrealism in Taiwan
							④ 75, pp.143-180	타이완 다큐멘터리 영화	Taiwan Documentary Film
							⑤	타이완 문학의 공시성	Synchronicity of Taiwan Literature
							⑥ 2022.3.		
							⑦		
<p>본 논문은 이 영화에 담긴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풍차시사가 초현실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학사적 배경을 탐구하여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 측면을 검토하였다. 둘째, 본 영화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예술작품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의 특성과 오브제의 미학적 속성에 의해 아카이브와의 연결고리로 삼입된 브리지 드라마에서의 표현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관점을 고찰하기 위해, 맥락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다큐멘터리가 의도한 대만 모더니즘에서의 동기화 구현이 갖는 함의를 몇 가지 확장된 관점을 통해 분석하였다. 근대화 수용의 식민지적 굴절 양상이나 본토성 주체의 성격 등 확정된 관점을 통해 <일요일식 산보자>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분석대상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창의적이며, 동아시아적인 보편성 문제 등으로 연구테마가 확장될 수 있어 본 교육연구단의 '트랜스-동아시아' 어젠다 연구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2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7011	중국현대문학	저널논문	[REDACTED]	중국의 북한 영화 수용	China's Acceptance of North Korean Films
							② 문혁시기 중국의 북한영화 수용과 신세기 전후 중국영화 속의 잔영	문화대혁명기의 영화문화	Cinema Culture in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③ 중국현대문학	북-중 영화교류사	History of North Korea-China Film Exchanges
							④ 97, pp.135-160	중국 신세기 영화 속 북한 이미지	North Korean Images in the Chinese New Century Films
							⑤	중국 문화혁명배경 영화의 향수와 키치	Nostalgia and Kitsch in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ackground Movies
							⑥ 2021.4.		
							⑦ 10.46487/jmcl.2021.4.97.135		
<p>본 논문은 중국 내 북한 영화의 수용성, 특히 문화대혁명기 일반 대중의 비관적 측면을 탐색한다. 당시 중국 관객들은 신세기를 전후해 등장한 문화대혁명을 소재로 한 중국 영화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열광적이었다. 북한 영화가 중국 관객들에게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북한의 문화대혁명 이미지를 다룬 중국 영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으로 우선 문화대혁명기 북한 영화의 수용성을 살펴본 후, 신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에서 개봉된 일련의 문화대혁명 영화에 나타난 맥락과 의미를 추적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신세기 전후의 문화대혁명을 다룬 영화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문화대혁명기의 삶의 역사를 향수와 키치의 방식으로 재현한 작품들이다. 기존 메타 서사와는 다른 이들 영화의 일상을 탐색적으로 바라보는 창의적 시선은 북한 영화의 이미지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으며, 북한 영화 연구의 후속세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23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31978	일본문화학	번역서	[REDACTED]	제국일본	Imperial Japan
							② 남양 / 남방의 일반개념과 우리들의 각오	남양	South Sea
							③ 보고서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④ 979116587172794300	트랜스 동아시아	Trans-East Asia
							⑤	남방	The South
							⑥ 2021.4.		
							⑦		
							<p>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는 '트랜스 동아시아'이다. 본 역서는 이러한 사업단의 어젠다에 토대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본 저역서를 통해 메이지시대부터 일본은 동남아시아 각지에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어떤 방식을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본 역서는 동남아시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재 근대 일본 동남아시아 관련 후속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는 연구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4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31978	일본문화학	저널논문	[REDACTED]	경성일보	Keijonippo
							② 일제강점기 한반도 일본어 미디어의 '남양(南洋)' 표상 『경성일보(京城日報)』의 동남아시아 기사를 중심으로	남양 지역	South Seas area
							③ 일본연구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④ 35, pp.149-178	일제강점기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⑤	제국일본	Imperial Japan
							⑥ 2021.2.		
							⑦		
<p>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경성일보』에 다수 등장하는 남양과 동남아시아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는 동남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제국일본과 조선, 조선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트랜스-동아시아'라는 본 사업단의 어젠다에 입각한 연구 논문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5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43966	중국소설	저널논문	[REDACTED]	좌전	Zuo Zhuan
							② <<左>> 引究	속담	proverb
							③ 중국학논총	시	poem
							④ 74, pp.1-23	춘추 수사학	Spring and Autumn rhetoric
							⑤	담화	discourse
							⑥ 2021.12.		
							⑦ 10.26585/chlab.2021..74.001		
<p>본 논문은 기존 춘추 수사학의 연구 대상으로 주로 인용시에 한정되었던 영역을 인용 속담으로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그 창의성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고전 문학의 수사기법 측면에서, <<좌전>>에서 제시하는 춘추 수사학은 언제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기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거 인용"이다. <<좌전>>의 텍스트는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과 서사 기교의 형성 과정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해당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 영역을 조망하는 본 교육연구단의 어젠다에 입각한다고 할 수 있다. <<좌전>>에 인용된 속담은 등장인물의 담화와 서술자의 담화에 모두 등장하는 인용시와 달리 등장인물의 대화나 등장인물의 논평에 대부분 등장하며, 그 담화 기능도 다르다. 본 논문은 해당 인용 속담의 담화 기능과 춘추 수사학 양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문학과 어학 관련 전공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26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43966	중국소설	저널논문	[REDACTED]	게이	gays
							② 男小中の子嗣—以『弁而』、『宜春香』中心	결혼	marriage
							③ 중국학논총	남성상속인	male inheritors
							④ 78, pp.29-51	서술	narration
							⑤	인간의 욕망	human desire
							⑥ 2022.12.		
							⑦		
							<p>지난 몇 년 동안 고대 중국에서 동성애 소설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 현상에 대한 인상적인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그러한 연구는 분명 결실이 많고 심오하다. 하지만 '동성애 남성과 그들의 아들' 문제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명 시기의 『弁而』과 『宜春香』를 중심으로 동성애 소설 속의 부자 관계 서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이 양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남성이 결혼을 하고 개별적으로 아들을 출산한다. 엄마처럼 행동하는 남성이 아들을 교육한다. 아들이 입신양명하고 상속자의 신분을 부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동성애 소설이 가부장제 사회의 성윤리 개념, 자신의 욕망을 탐닉하는 태도에 대한 공감, 마지막으로 남성 자녀를 양육하려는 열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아들을 양육하는 서사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깊은 이유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조명 받지 못한 동성애와 부자 관계를 분석하는 본 논문은 창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성애-가부장제를 결부시켜 조망함으로써 후속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27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21705	일본어교육	저널논문	[REDACTED]	초중급 일본어학습자	beginner/intermediate level Japanese language learners
							② 初中級日本語習者の Eメールにおける言いさし表現の使用態-日本語母語話者との比較を通して-	중도종료형발화	incomplete utterances
							③ 日本語文學	이메일	E-mail
							④ 91, pp.109-130	일본어모어화자	Japanese native speakers
							⑤	영어모어화자	English native speakers
							⑥ 2021.12.		
							⑦ 10.18704/kjil.2021.12.91.109		
							<p>본 논문은 본 참여교수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코퍼스 I-JAS의 E-메일 과제에 나타난 영어모어화자, 중국어모어화자, 한국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문말의 생략표현의 사용을 밝히고 있다. 한국어모어화자의 일본어습득, 중국어모어화자의 일본어습득, 영어모어화자의 일본어습득을 일본어모어화자의 언어와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여, 일본어학습자의 언어습득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초급중급 수준의 일본어학습자에게는 각 모어와 지도내용의 영향에 따른 특유한 기능이나 표현이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이는 본 교육연구단이 중국어와 일본어라는 점에서 두개 집단을 비교 연구한 성과와 더불어 영어모어화자를 포함시켜, 동아시아를 넘어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같은 영어권 일본어학습자도 시야에 둔 연구로서 인간의 언어습득 과정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본 논문은 세계 일본어교육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8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21705	일본어교육	저서	[REDACTED]	일본문화	Japanese culture
							②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애매한 말투	vague way of speaking
							③ 지식의 날개	일본인	Japanese
							④ 9788920040368, pp.353-362	맞장구	response
							⑤	소통방법	communicate way
							⑥ 2021.5.		
							⑦		
<p>본 저서는 일본문화라는 키워드를 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저작진들과 공동으로 제작되었다. 한국인이 일본어의 기초적인 문법을 습득하고 나서도 일본인과의 대화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일본인의 애매한 말투와 맞장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탐색하였다. 특히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저서는 본 참여교수의 박사논문의 연구 성과를 대중에 맞추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한 것으로, 연구의 대중화로 연결시킨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29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34284	의미론(일본어학)	저널논문	[REDACTED]	명사술어문	Nominal Predicate Sentence
							② 동사적 명사를 포함한 일본어 명사술어문에 관한 일고찰	동사적명사	Verbal Noun
							③ 일본연구	연용형명사	infinitive-derived noun
							④ 39, pp.205-225	의미론	Semantics
							⑤	구문론	Syntatics
							⑥ 2023.2.		
							⑦		
<p>본 논문은 일본어의 동사적명사가 명사술어문에 출현하였을 경우의 다양한 구문론적, 의미론적 특징을 바탕으로 명사술어문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명사술어문에 관한 연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종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온 반면, 동사적 명사를 포함한 명사술어문의 실체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명사술어문이 갖는 특징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향후 동종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30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134284	의미론(일본어학)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Redacted]	일본문화	Japanese Culture
							② 문화로 보는 일본어	일본어	Japanese
							③ 술과학	문화적 차이	cultural difference
							④ 9791187124849	전통문화	traditional culture
							⑤	대중문화	popular culture
							⑥ 2021.5.		
							⑦		
							<p>기존의 일본문화를 다룬 텍스트는 대부분 과거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저서에서는 일본어라는 어학적 내용과 문화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문화를 조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후속세대에게도 일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31	[REDACTED]	20200901	20210831	10015136	통사론(중국어학)	저널논문	[REDACTED]	문장형식	sentence-final form
							② 현대중국어의 '종결성'과 '종결성분' — 어기조사와 보어 구문을 중심으로	종결성분	ending markers
							③ 중국어문논총	양상	Modality
							④ 120, pp.69-88	화용적 기능	pragmatic function
							⑤	중국어의 보어 구조, 문장 유형	Complement Structure in Chinese, Sentence types
							⑥ 2020.12.		
							⑦		
<p>본 논문은 중국어 설명을 제공하는 '문장-최종 형태(또는 문장-최종 분위기)'와 '종결성분'을 조사한 것이다. 서술어는 문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그것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청취자에 대한 그들의 의도와 관점을 묘사하는 문법적 요소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술어와 관련하여 형식적이고 의미적으로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종결성분이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끝말은 문장의 명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다는 화자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구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청자에게 명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와 관련이 있다. 중국어의 종결어 중 하나로, 어기조사는 화자의 음운 변화와 뉘앙스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이 형식적, 의미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문법적인 형태임이 밝혀졌다. 또한, 중국어에서 표현될 문장의 종류는 화자의 종료 발언의 선택, 즉, 어기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이 결정은 문장의 명제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공기하는 성분들과 종결성분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함으로써 중국어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창의적인 시야는 종결성분과 관련된 후속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32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9130	중국고전문학	저널논문	[REDACTED]	북묘묘정비	Northern Shrine Memorial Stone for GuanYu
							② 조선 고종 <북묘묘정비(北廟廟庭碑)> 주석과 번역(3)	조선	Joseon
							③ 중국어문논총	고종	King Gojong
							④ 109, pp.173-193	관우	GuanYu
							⑤	삼국연의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⑥ 2022.4.		
							⑦		
<p>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계 최초로 <북묘묘정비>에 주석을 달고 완역하였다. 둘째, 본 논문의 번역을 통하여, 임오군란과 갑오정변이 벌어졌을 때, 고종과 민비는 관우의 넋이 도와주어서 살아나게 되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고종의 관우에 대한 인식은 소설 『삼국연의』모종강 본에 바탕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은 <북묘묘정비>에 최초로 주석을 달았으며, 비문의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한 점에서 문헌사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내용을 주해하였다. 첫째, 관우 생전 조조의 7개 군단을 격파하는 업적을 남겼다. 둘째, 관우를 기리는 북묘가 '정주의 정신이 우뚝 서 있다'는 글귀가 새겨진 암벽 아래에 세워진 것은 하늘의 뜻이다. 셋째, 고종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때 관우가 나타나 그와 그의 아내 민비를 도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 넷째, 이 비문은 1887년 민영환(閔泳煥)이 고종의 명을 받아 지은 것이다.</p>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대표연구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대표연구업적물 우수성									
33	[REDACTED]	20200901	20230228	10029130	중국고전문학	저널논문	[REDACTED]	대한조충절무안왕찬양명	An inscription praising the loyal King WuAn
							② 조선 숙종 < 대한조충절무안왕찬양명(大漢朝忠節武安王贊揚銘) > 에 나타난 관우에 관한 의식의 근원	숙종	King Sukjon
							③ 중국학논총	관우	GuanYu
							④ 78, pp.53-86	동묘	Dongmyo
							⑤	삼국지통속연의	Popular Romance of Three Kingdoms
							⑥ 2022.12.		
							⑦		
<p>숙종은 조선의 임금들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관우의 팬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숙종의 < 무안왕찬양명 > 은 숙종 후대의 조선 국왕들에게 관우에 관한 기본적 의식의 기틀을 제공한 비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숙종의 < 무안왕찬양명 > 에 관한 최초의 연구 논문으로서, 그와 관련한 여러가지 기본 정보를 제시하여 이에 관한 이해를 높였다. 둘째, 조선 숙종의 관우에 관한 의식의 근원은 역사 『삼국지』 또는 모종강 본 『사대기서제일종』이 아니라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통속연의』였음을 최초로 밝혔다. 본 논문은 숙종의 < 무안왕찬양명 >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p>									

4단계 BK21 사업

Ⅲ.1.2.②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의 우수성

기타업적물 : <표3-3>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참여교수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연번	참여 교수명	참여기간		연구자 등록번호	업적물 분야	실적 구분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의 상세내용	키워드	
		시작일	종료일					한글	영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의 우수성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첨부자료

[첨부 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현황

연번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 연구업적물 분야	신입/ 기존	사범대/ 분교	임상/기초	외국인/ 내국인	참여 기간	총 참여 개월 수	환산 참여교수 수	대표 연구업적물 제출 요구량	비고
								건축학/건축공학						
								인문사회계열						
한글	영문													
1	[REDACTED]		11775130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	기존			외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일본어교육									
2	[REDACTED]		11506203	일본문화학	일본문화학	기존			외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일본문화학									
3	[REDACTED]		10972010	통사론(중국 어학)	통사론(중국어학)	기존			외국인	20200901 - 20220831	24	0.8	2	
					통사론(중국어학)									
4	[REDACTED]		10045567	중국현대문 학	중국현대문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중국문화학									
5	[REDACTED]		10015746	성운학(중국 어학)	성운학(중국어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성운학(중국어학)									
6	[REDACTED]		10180673	일본고전산 문	일본고전산문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일본고전산문									

연번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 연구업적물 분야	신입/ 기존	사범대/ 분교	임상/기초	외국인/ 내국인	참여 기간	총 참여 개월 수	환산 참여교수 수	대표 연구업적물 제출 요구량	비고
	한글	영문						건축학/건축공학						
								인문사회계열						
7			10030204	중국시	중국시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중국시									
8			10007211	극문학(일본 문학)	극문학(일본문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20831	24	0.8	2	
9			10167052	일본근현대 문학		신입			내국인	20230228 - 20230228	0	0	0	
10			10029969	일본	일본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일본									
11			11744175	통사론(중국 어학)	통사론(중국어학)	기존			내국인	20220301 - 20230228	12	0.4	1	
12			10136846	일본근현대 문학	일본근현대문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일본근현대문학									

연번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 연구업적물 분야	신입/ 기존	사범대/ 분교	임상/기초	외국인/ 내국인	참여 기간	총 참여 개월 수	환산 참여교수 수	대표 연구업적물 제출 요구량	비고
	한글	영문						건축학/건축공학						
								인문사회계열						
13	[REDACTED]		10027011	중국현대문 학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14			10031978	일본문화학	일본문화학 일본문화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15			10043966	중국소설	중국소설 중국소설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16	[REDACTED]		10121705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17			10134284	의미론(일본 어학)	의미론(일본어학) 의미론(일본어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18			10015136	통사론(중국 어학)	통사론(중국어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10831	12	0.4	1	

연번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대표 연구업적물 분야	신입/ 기존	사범대/ 분교	임상/기초	외국인/ 내국인	참여 기간	총 참여 개월 수	환산 참여교수 수	대표 연구업적물 제출 요구량	비고
	한글	영문						건축학/건축공학						
								인문사회계열						
19	[REDACTED]		10029130	중국고전문학	중국고전문학	기존			내국인	20200901 - 20230228	30	1	2	
			중국고전문학											

전체 교수 수	전체 참여교수 수	19	기존교수 수	전체 참여교수 수	18	신임교수 수	전체 참여교수 수	1
	총 환산 참여교수 수	16.4		총 환산 참여교수 수	16.4		총 환산 참여교수 수	0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	①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등 실적 / ② 연구비 / ③ 교육역량 대표실적 / ④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실적 / ⑤ 국제 공동연구실적	미포함
---------------	---	-----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0	2학기	1			2019020129	12664552	내국인	1995		석사	3	
2020	2학기	2			2019020939	12559497	내국인	1995		석사	3	
2020	2학기	3			2018010696	11524991	내국인	1991		박사수료	5	
2020	2학기	4			2020010782	11903196	내국인	1991		박사	1	
2020	2학기	5			2020010099	12557244	외국인	1987		박사	2	
2020	2학기	6			2020010091	12559039	내국인	1988		박사	2	
2020	2학기	7			2019020127	12487674	내국인	1989		석사	4	
2020	2학기	8			2020010093	11792563	내국인	1994		박사	2	
2020	2학기	9			2019010065	12423632	내국인	1992		박사	4	
2020	2학기	10			2020020114	12556774	내국인	1992		석사	2	
2020	2학기	11			2018010694	11319693	내국인	1989		박사수료	5	
2020	2학기	12			2020010096	11599516	내국인	1983		박사	2	
2020	2학기	13			2019020934	12556900	내국인	1996		석사	3	
2020	2학기	14			2015010032	11494756	외국인	1985		박사수료	7	
2020	2학기	15			2014010781	11494821	외국인	1984		박사	4	
2020	2학기	16			2019020935	12487582	내국인	1997		석사	3	
2020	2학기	17			2020020118	12556960	내국인	1998		석사	2	
2020	2학기	18			2020010774	12664359	내국인	1981		박사	1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0	2학기	19			2020010089	12664784	내국인	1979		박사	2	
2020	2학기	20			2017010696	11522820	내국인	1990		박사수료	7	
2020	2학기	21			2020010777	12664722	내국인	1970		박사	1	
2020	2학기	22			2020020121	12659183	외국인	1996		석사	2	
2020	2학기	23			2019010649	11849129	내국인	1986		박사	3	
2020	2학기	24			2020010098	11668537	외국인	1967		박사	2	
2020	2학기	25			2019020123	12422555	내국인	1986		석사	4	
2020	2학기	26			2020021064	12665088	내국인	1990		석사	1	
2020	2학기	27			2017010089	11777264	내국인	1979		박사수료	8	
2020	2학기	28			2020010092	11792988	내국인	1990		박사	2	
2020	2학기	29			2019010064	11656743	내국인	1988		박사	4	
2020	2학기	30			2020021063	12664232	내국인	1991		석사	1	
2020	2학기	31			2019010650	12655328	외국인	1991		박사	3	
2020	2학기	32			2020021070	12661041	외국인	1996		석사	1	
2020	2학기	33			2020021066	12664354	내국인	1987		석사	1	
2020	2학기	34			2018010695	11322005	내국인	1989		박사	3	
2020	2학기	35			2019020125	12490532	내국인	1993		석사	4	
2020	2학기	36			2020010778	11506552	내국인	1986		박사	1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0	2학기	37			2020020123	12668640	외국인	1997		석사	2	
2020	2학기	38			2020020115	12560681	내국인	1982		석사	2	
2020	2학기	39			2020010775	12487666	내국인	1994		박사	1	
2020	2학기	40			2017010698	12427093	외국인	1988		박사수료	7	
2020	2학기	41			2018010096	11848207	내국인	1970		박사수료	6	
2020	2학기	42			2020021067	12664431	내국인	1996		석사	1	
2020	2학기	43			2017010092	11738798	내국인	1980		박사	2	
2020	2학기	44			2019010067	12552119	외국인	1989		박사	4	
2020	2학기	45			2019020941	12556713	외국인	1997		석사	3	
2020	2학기	46			2019010069	11657342	외국인	1991		박사	4	
2020	2학기	47			2018010697	11657454	외국인	1993		박사수료	5	
2020	2학기	48			2020020119	12667678	외국인	1994		석사	2	
2020	2학기	49			2020010090	11849056	내국인			박사	2	
2020	2학기	50			2020010779	10977119	내국인	1984		박사	1	
2020	2학기	51			2019020940	12557064	외국인	1991		석사	3	
2020	2학기	52			2019010068	11112828	외국인	1981		박사	4	
2021	1학기	1			2019020129	12664552	내국인	1995		석사	4	
2021	1학기	2			2019020939	12559497	내국인	1995		석사	4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1학기	3			2018010696	11524991	내국인	1991		박사수료	6	
2021	1학기	4			2021010101	12423435	외국인	1992		박사	1	
2021	1학기	5			2020010782	11903196	내국인	1991		박사	2	
2021	1학기	6			2020010099	12557244	외국인	1987		박사	3	
2021	1학기	7			2020010091	12559039	내국인	1988		박사	3	
2021	1학기	8			2020010095	12556967	내국인	1988		박사	3	
2021	1학기	9			2020010093	11792563	내국인	1994		박사	3	
2021	1학기	10			2019010065	12423632	내국인	1992		박사수료	5	
2021	1학기	11			2020020114	12556774	내국인	1992		석사	3	
2021	1학기	12			2021020152	12724825	내국인	1998		석사	1	
2021	1학기	13			2018010694	11319693	내국인	1989		박사수료	6	
2021	1학기	14			2020010096	11599516	내국인	1983		박사	3	
2021	1학기	15			2019020934	12556900	내국인	1996		석사	4	
2021	1학기	16			2014010781	11494821	외국인	1984		박사	5	
2021	1학기	17			2019020935	12487582	내국인	1997		석사	4	
2021	1학기	18			2020020118	12556960	내국인	1998		석사	3	
2021	1학기	19			2020010783	12724153	외국인	1994		박사	2	
2021	1학기	20			2020010774	12664359	내국인	1981		박사	2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1학기	21			2020010089	12664784	내국인	1979		박사	3	
2021	1학기	22			2021020158	12724625	내국인	1991		석사	1	
2021	1학기	23			2017010696	11522820	내국인	1990		박사수료	8	
2021	1학기	24			2020010777	12664722	내국인	1970		박사	2	
2021	1학기	25			2020020121	12659183	외국인	1996		석사	3	
2021	1학기	26			2019010649	11849129	내국인	1986		박사	4	
2021	1학기	27			2020010098	11668537	외국인	1967		박사	3	
2021	1학기	28			2020021064	12665088	내국인	1990		석사	2	
2021	1학기	29			2020010092	11792988	내국인	1990		박사	3	
2021	1학기	30			2019010064	11656743	내국인	1988		박사수료	5	
2021	1학기	31			2017020122	12731721	내국인	1988		석사	2	
2021	1학기	32			2020021063	12664232	내국인	1991		석사	2	
2021	1학기	33			2019010650	12655328	외국인	1991		박사	4	
2021	1학기	34			2020021070	12661041	외국인	1996		석사	2	
2021	1학기	35			2020021066	12664354	내국인	1987		석사	2	
2021	1학기	36			2021020151	12724572	내국인	1999		석사	1	
2021	1학기	37			2021010096	12724565	내국인	1980		박사	1	
2021	1학기	38			2020010778	11506552	내국인	1986		박사	2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1학기	39			2020020123	12668640	외국인	1997		석사	3	
2021	1학기	40			2020020115	12560681	내국인	1982		석사	3	
2021	1학기	41			2020010775	12487666	내국인	1994		박사	2	
2021	1학기	42			2017010698	12427093	외국인	1988		박사수료	8	
2021	1학기	43			2018010096	11848207	내국인	1970		박사수료	7	
2021	1학기	44			2020021067	12664431	내국인	1996		석사	2	
2021	1학기	45			2017010092	11738798	내국인	1980		박사	3	
2021	1학기	46			2019020941	12556713	외국인	1997		석사	4	
2021	1학기	47			2021020163	12727410	외국인	1993		석사	1	
2021	1학기	48			2019010069	11657342	외국인	1991		박사수료	5	
2021	1학기	49			2018010697	11657454	외국인	1993		박사수료	6	
2021	1학기	50			2020020119	12667678	외국인	1994		석사	3	
2021	1학기	51			2020010090	11849056	내국인			박사	3	
2021	1학기	52			2020010779	10977119	내국인	1984		박사	2	
2021	1학기	53			2019020940	12557064	외국인	1991		석사	4	
2021	1학기	54			2019010068	11112828	외국인	1981		박사수료	5	
2021	2학기	1			2018010696	11524991	내국인	1991		박사수료	7	
2021	2학기	2			2021010101	12423435	외국인	1992		박사	2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2학기	3			2020010782	11903196	내국인	1991		박사	3	
2021	2학기	4			2020010099	12557244	외국인	1987		박사	4	
2021	2학기	5			2020010091	12559039	내국인	1988		박사	4	
2021	2학기	6			2020010095	12556967	내국인	1988		박사	4	
2021	2학기	7			2020010093	11792563	내국인	1994		박사	4	
2021	2학기	8			2021020156	12811918	내국인	1990		석사	2	
2021	2학기	9			2021020152	12724825	내국인	1998		석사	2	
2021	2학기	10			2018010694	11319693	내국인	1989		박사수료	7	
2021	2학기	11			2020010096	11599516	내국인	1983		박사	4	
2021	2학기	12			2021010872	12556900	내국인	1996		박사	1	
2021	2학기	13			2020020118	12556960	내국인	1998		석사	4	
2021	2학기	14			2021020157	12744376	내국인	1998		석사	2	
2021	2학기	15			2020010774	12664359	내국인	1981		박사	3	
2021	2학기	16			2020010089	12664784	내국인	1979		박사	4	
2021	2학기	17			2021010871	11494980	내국인	1989		박사	1	
2021	2학기	18			2021021211	12807973	내국인	1995		석사	1	
2021	2학기	19			2021020158	12724625	내국인	1991		석사	2	
2021	2학기	20			2020010777	12664722	내국인	1970		박사	3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2학기	21			2020020121	12659183	외국인	1996		석사	4	
2021	2학기	22			2019010649	11849129	내국인	1986		박사수료	5	
2021	2학기	23			2020010098	11668537	외국인	1967		박사	4	
2021	2학기	24			2020021064	12665088	내국인	1990		석사	3	
2021	2학기	25			2020010092	11792988	내국인	1990		박사	4	
2021	2학기	26			2021020155	12807933	내국인	1974		석사	2	
2021	2학기	27			2019010064	11656743	내국인	1988		박사수료	6	
2021	2학기	28			2017020122	12731721	내국인	1988		석사	3	
2021	2학기	29			2020021063	12664232	내국인	1991		석사	3	
2021	2학기	30			2019010650	12655328	외국인	1991		박사수료	5	
2021	2학기	31			2020021070	12661041	외국인	1996		석사	3	
2021	2학기	32			2020021066	12664354	내국인	1987		석사	3	
2021	2학기	33			2018010695	11322005	내국인	1989		박사	4	
2021	2학기	34			2021020151	12724572	내국인	1999		석사	2	
2021	2학기	35			2021010096	12724565	내국인	1980		박사	2	
2021	2학기	36			2020010778	11506552	내국인	1986		박사	3	
2021	2학기	37			2020020123	12668640	외국인	1997		석사	4	
2021	2학기	38			2020020115	12560681	내국인	1982		석사	4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1	2학기	39			2020010775	12487666	내국인	1994		박사	3	
2021	2학기	40			2020021067	12664431	내국인	1996		석사	3	
2021	2학기	41			2021021212	12808064	내국인	1996		석사	1	
2021	2학기	42			2017010092	11738798	내국인	1980		박사	4	
2021	2학기	43			2020021068	12733208	외국인	1999		석사	3	
2021	2학기	44			2021020163	12727410	외국인	1993		석사	2	
2021	2학기	45			2019010069	11657342	외국인	1991		박사수료	6	
2021	2학기	46			2018010697	11657454	외국인	1993		박사수료	7	
2021	2학기	47			2020010090	11849056	내국인	1982		박사	4	
2021	2학기	48			2021010873	11903070	내국인	1993		박사	1	
2021	2학기	49			2020010779	10977119	내국인	1984		박사	3	
2021	2학기	50			2021020160	12808340	내국인	1978		석사	2	
2021	2학기	51			2019010068	11112828	외국인	1981		박사수료	6	
2022	1학기	1			2018010696	11524991	내국인	1991		박사수료	8	
2022	1학기	2			2021010101	12423435	외국인	1992		박사	3	
2022	1학기	3			2020010782	11903196	내국인	1991		박사	4	
2022	1학기	4			2020010099	12557244	외국인	1987		박사수료	5	
2022	1학기	5			2020010091	12559039	내국인	1988		박사수료	5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2	1학기	6			2022010067	12487674	내국인	1989		박사	1	
2022	1학기	7			2020010095	12556967	내국인	1988		박사수료	5	
2022	1학기	8			2020010093	11792563	내국인	1994		박사수료	5	
2022	1학기	9			2019010065	12423632	내국인	1992		박사수료	7	
2022	1학기	10			2022010066	12487582	내국인	1997		박사	1	
2022	1학기	11			2020010774	12664359	내국인	1981		박사	4	
2022	1학기	12			2021020167	12824409	외국인	1984		석사	3	
2022	1학기	13			2021010871	11494980	내국인	1989		박사	2	
2022	1학기	14			2021021211	12807973	내국인	1995		석사	2	
2022	1학기	15			2021020158	12724625	내국인	1991		석사	3	
2022	1학기	16			2020010777	12664722	내국인	1970		박사	4	
2022	1학기	17			2019010649	11849129	내국인	1986		박사수료	6	
2022	1학기	18			2020010098	11668537	외국인	1967		박사수료	5	
2022	1학기	19			2020010092	11792988	내국인	1990		박사수료	5	
2022	1학기	20			2021020155	12807933	내국인	1974		석사	3	
2022	1학기	21			2019010064	11656743	내국인	1988		박사수료	7	
2022	1학기	22			2017020122	12731721	내국인	1988		석사	4	
2022	1학기	23			2019010650	12655328	외국인	1991		박사수료	6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2	1학기	24			2020021070	12661041	외국인	1996		석사	4	
2022	1학기	25			2020021066	12664354	내국인	1987		석사	4	
2022	1학기	26			2021020151	12724572	내국인	1999		석사	3	
2022	1학기	27			2020010778	11506552	내국인	1986		박사	4	
2022	1학기	28			2020010775	12487666	내국인	1994		박사	4	
2022	1학기	29			2020021071	12886514	외국인	1996		석사	4	
2022	1학기	30			2021020154	12887188	내국인	1998		석사	3	
2022	1학기	31			2020021067	12664431	내국인	1996		석사	4	
2022	1학기	32			2021021212	12808064	내국인	1996		석사	2	
2022	1학기	33			2021021214	12886098	내국인	1996		석사	2	
2022	1학기	34			2022020153	12885902	내국인	1996		석사	1	
2022	1학기	35			2020021068	12733208	외국인	1999		석사	4	
2022	1학기	36			2021020163	12727410	외국인	1993		석사	3	
2022	1학기	37			2019010069	11657342	외국인	1991		박사수료	7	
2022	1학기	38			2018010697	11657454	외국인	1993		박사수료	8	
2022	1학기	39			2020010090	11849056	내국인	1982		박사수료	5	
2022	1학기	40			2021010873	11903070	내국인	1993		박사	2	
2022	1학기	41			2020010779	10977119	내국인	1984		박사	4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2	1학기	42			2019010068	11112828	외국인	1981		박사수료	7	
2022	2학기	1			2021010101	12423435	외국인	1992		박사	4	
2022	2학기	2			2020010782	11903196	내국인	1991		박사수료	5	
2022	2학기	3			2020010091	12559039	내국인	1988		박사수료	6	
2022	2학기	4			2022010067	12487674	내국인	1989		박사	2	
2022	2학기	5			2020010095	12556967	내국인	1988		박사수료	6	
2022	2학기	6			2020010093	11792563	내국인	1994		박사수료	6	
2022	2학기	7			2019010065	12423632	내국인	1992		박사수료	8	
2022	2학기	8			2021010872	12556900	내국인	1996		박사	2	
2022	2학기	9			2022010066	12487582	내국인	1997		박사	2	
2022	2학기	10			2022010761	12556960	내국인	1998		박사	1	
2022	2학기	11			2020010783	12724153	외국인	1994		박사수료	5	
2022	2학기	12			2021021213	12963551	내국인	1982		석사	3	
2022	2학기	13			2020010774	12664359	내국인	1981		박사수료	5	
2022	2학기	14			2021010871	11494980	내국인	1989		박사	3	
2022	2학기	15			2021021211	12807973	내국인	1995		석사	3	
2022	2학기	16			2020010780	11348731	내국인	1988		박사수료	5	
2022	2학기	17			2021020158	12724625	내국인	1991		석사	4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2	2학기	18			2020010777	12664722	내국인	1970		박사수료	5	
2022	2학기	19			2020010098	11668537	외국인	1967		박사수료	6	
2022	2학기	20			2022020158	12538352	내국인	1997		석사	2	
2022	2학기	21			2020010092	11792988	내국인	1990		박사수료	6	
2022	2학기	22			2019020938	12965893	내국인	1996		석사	3	
2022	2학기	23			2021020155	12807933	내국인	1974		석사	4	
2022	2학기	24			2019010064	11656743	내국인	1988		박사수료	8	
2022	2학기	25			2022020162	12963970	외국인	1997		석사	2	
2022	2학기	26			2018010695	11322005	내국인	1989		박사수료	6	
2022	2학기	27			2021020162	12965854	외국인	1998		석사	4	
2022	2학기	28			2021020151	12724572	내국인	1999		석사	4	
2022	2학기	29			2020010778	11506552	내국인	1986		박사수료	5	
2022	2학기	30			2022010069	11905056	내국인	1987		박사	2	
2022	2학기	31			2020021072	12969416	외국인	1987		석사	4	
2022	2학기	32			2021020154	12887188	내국인	1998		석사	4	
2022	2학기	33			2021021212	12808064	내국인	1996		석사	3	
2022	2학기	34			2021021214	12886098	내국인	1996		석사	3	
2022	2학기	35			2021020163	12727410	외국인	1993		석사	4	

[첨부 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현황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연구자 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재학 학기 수	비고
			한글	영문								
2022	2학기	36	[REDACTED]		2019010069	11657342	외국인	1991	[REDACTED]	박사수료	8	
2022	2학기	37	[REDACTED]		2020010090	11849056	내국인	1982	[REDACTED]	박사수료	6	
2022	2학기	38	[REDACTED]		2020010779	10977119	내국인	1984	[REDACTED]	박사수료	5	
2022	2학기	39	[REDACTED]		2019010068	11112828	외국인	1981	[REDACTED]	박사수료	8	

2020년 2학기	전체	석사	20	2021년 1학기	전체	석사	22	2021학년 2학기	전체	석사	21	X		
		박사	32			박사	32			박사	3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계	52			계	54			계	51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6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7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5			
		박사	10			박사	10			박사	7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계	16			계	17			계	12			
2022년 1학기	전체	석사	16	2022학년 2학기	전체	석사	14	전체 참여 대학원생 수	전체	석사	93	5개 학기의 평균 (전체)	석사	18.6
		박사	26			박사	25			박사	145		박사	29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계	42			계	39			계	238		계	47.6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5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4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석사	27			
		박사	7			박사	5			박사	39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석박사통합	0			
		계	12			계	9			계	66			

[첨부 3]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

구분	참여 연도	연번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외국인/내국인	생년	자교/타교	참여기간		총 참여 개월 수
			성명	성명					시작일	종료일	
박사후 과정생	2020				11324319	내국인	1986	타교	20200901	20210228	6
박사후 과정생	2020				10637920	내국인	1972	자교	20200901	20210228	6
박사후 과정생	2021				11324319	내국인	1986	타교	20210301	20220228	12
박사후 과정생	2021				10637920	내국인	1972	자교	20210301	20210831	6
박사후 과정생	2021				12656556	내국인	1983	타교	20210901	20220228	6
박사후 과정생	2022				11324319	내국인	1986	타교	20220301	20230228	12
박사후 과정생	2022				12656556	내국인	1983	타교	20220301	20220831	6
박사후 과정생	2022				12604850	내국인	1988	타교	20220701	20230228	8
계약교수	2020				11219962	내국인	1978	자교	20200901	20210228	6
계약교수	2020				11562717	내국인	1973	자교	20200901	20210228	6
계약교수	2021				11219962	내국인	1978	자교	20210301	20210831	6
계약교수	2021				11562717	내국인	1973	자교	20210301	20210831	6
계약교수	2021				11092159	내국인	1975	타교	20210901	20220228	6
계약교수	2021				11918216	내국인	1983	타교	20211001	20220228	5

구분	참여 연도	연번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외국인/ 내국인	생년	자교/타교	참여기간		총 참여 개월 수
			한글	영문					시작일	종료일	
계약교수	2022	1	[REDACTED]		11918216	내국인	1983	타교	20220301	20230228	12
계약교수	2022	2	[REDACTED]		11092159	내국인	1975	타교	20220301	20230228	12

신진연구인력 수(명)	박사후 과정생	총 인원 수	4	X	
		총 참여 개월 수	62		
		1인당 평균 참여 개월 수	16		
	계약교수	총 인원 수	4		
		총 참여 개월 수	59		
		1인당 평균 참여 개월 수	15		
	합계	총 인원 수	8	실적 제출 건수	2~4
		총 참여 개월 수	121		
		1인당 평균 참여 개월 수	15		

[첨부 4]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졸업 및 취(창)업 실적)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생년	지도교수 성명	취득학위	입학년월	진로 및 취(창)업 구분	취(창)업 정보		
			한글	영문							회사명	취(창)업 형태	근무 지역
2021	8	1			2019020939	1995		석사	201909	취업	히얼정보통신	정규직	서울
2021	8	2			2021010872	1996		석사	201909	국내진학			
2022	2	1			2019020129	1995		석사	201903	국외진학			
2022	2	2			2022010067	1989		석사	201903	국내진학			
2022	2	3			2022010066	1997		석사	201909	국내진학			
2022	2	4			2017010698	1988		박사	201709	취업	닝보대학교	정규직	해외
2022	8	1			2020020114	1992		석사	202003	기타			
2022	8	2			2022010761	1998		석사	202003	국내진학			
2022	8	3			2017010696	1990		박사	201709	취업	고려대학교	비정규직	서울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생년	지도교수 성명	취득학위	입학년월	진로 및 취(창)업 구분	취(창)업 정보		
			한글	영문							회사명	취(창)업 형태	근무 지역
2022	8	4			2020020121	1996		석사	202003	국내진학			
2022	8	5			2019020125	1993		석사	201903	기타			
2022	8	6			2019020941	1997		석사	201909	기타			
2022	8	7			2018010697	1993		박사	201809	취업	고려대학교, 한양 사이버대학교, 서 일대학교	비정규직	서울
2023	2	1			2018010694	1989		박사	201809	취업	고려대학교, 한양 여자대학교, 광운 대학교	비정규직	서울
2023	2	2			2021020158	1991		석사	202103	기타			
2023	2	3			2020010098	1967		박사	202003	취업	고려대학교	비정규직	서울
2023	2	4			2020021064	1990		석사	202009	기타			
2023	2	5			2017020122	1988		석사	201703	기타			

연도	기준월	연번	성명		학번	생년	지도교수 성명	취득학위	입학년월	진로 및 취(창)업 구분	취(창)업 정보		
			한글	영문							회사명	취(창)업 형태	근무 지역
2023	2	6	[REDACTED]		2021020151	1999	[REDACTED]	석사	202103	기타			
2023	2	7			2021020154	1998		석사	202103	기타			
2023	2	8			2019010069	1991		박사	201903	기타			
2023	2	9			2020010779	1984		박사	202009	취업	고려대학교	비정규직	서울

졸업생	2021년	구분	2월	8월	2022년	구분	2월	8월	2023년	구분	2월	전체 기간	구분	합계	
		석사	0	2		석사	3	5		석사	5		석사	15	
		박사	0	0			박사	1	2			박사	7		
		계	0	2			계	4	7			계	9		
비취업자	2021년 2월 졸업자	석사	0	국내 진학자 소계	0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1	국내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박사	0	입대자 소계	0		박사	1	입대자 소계	0					
취(창)업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3	국내 진학자 소계	2		2022년 8월 졸업자	석사	2	국내 진학자 소계	2				
				국외 진학자 소계	1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창)업 대상자	0					취(창)업 대상자	3				
				취(창)업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0				
		박사	1	입대자 소계	0		취(창)업	100	박사		입대자 소계	0			
				취(창)업 대상자	1						취(창)업 대상자	2			
				취(창)업자 소계	1						취(창)업자 소계	2			
		취(창)업률				100		취(창)업률				40			
		실적제출요구량													

[첨부 5-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0.9.1.~2021.2.28.	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30204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40,695,000	11	20201118
2020.9.1.~2021.2.28.	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07211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15136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7011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15746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31978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4284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8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969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9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3966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0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6846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21705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첨부 5-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0.9.1.~2021.2.28.	1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REDACTED]		10180673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972010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130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506203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775130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0.9.1.~2021.2.28.	1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5567	20200901	20210228	공동	366,255,000	366,255,000	20,347,500	6	20201118	
2021.3.1.~2022.2.28.	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30204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81,390,000	11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07211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15136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7011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15746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첨부 5-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1.3.1.~2022.2.28.	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REDACTED]		10031978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4284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8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969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9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3966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0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6846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21705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80673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972010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130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506203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1.3.1.~2022.2.28.	1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775130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첨부 5-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1.3.1.~2022.2.28.	1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5567	20210301	2022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10316, 20210920
2022.3.1.~2023.2.28.	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30204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81,390,000	11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07211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7011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15746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31978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4284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969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8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3966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9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36846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0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121705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첨부 5-1]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정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 번	주관 부처	사업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2.3.1.~2023.2.28.	11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REDACTED]		10180673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2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972010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3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29130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4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506203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5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775130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6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0045567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7	교육부	4단계BK21	4단계 BK21 중일어 문학교육연구단 국 고지원금		11744175	20220301	20230228	공동	732,510,000	732,510,000	40,695,000	6	20220318, 20221020	
2022.3.1.~2023.2.28.	18	한국연구재단	(인문)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사망사의 계보학 : 공강 사회를 위한 동시성 사망사의 상호교차 연구		10030204	20220701	20230331	공동	92,775,000	92,775,000	15,462,500	17	20220718	
2022.3.1.~2023.2.28.	19	한국연구재단	(인문)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	일본 점령기 전후 인도네시아 이중언 어문학 연구		10031978	20220701	20230331	공동	76,254,000	76,254,000	25,418,000	33	20220718, 20230202, 20230214	
2022.3.1.~2023.2.28.	20	한국연구재단	(인문)명저 번역지원	現代史資料 -東大震 災と朝鮮人		10031978	20220701	20230630	단독	16,853,000	16,853,000	16,853,000	100	20221223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원)	2020.9.1.~2021.2.28	366,255,000
	2021.3.1.~2022.2.28.	732,510,000
	2022.3.1.~2023.2.28.	790,243,500
	계	1,889,008,500

[첨부 5-2]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번	산업체명	산업체 구분	지역구분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원)</p>	2020.9.1.~2021.2.28	0
	2021.3.1.~2022.2.28.	0
	2022.3.1.~2023.2.28.	0
	계	0

[첨부 5-3] 평가 대상 기간(2020.9.1.-2023.2.28.) 내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실적

산정 기간	연번	해외 기관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번호	연구기간		연구 형태	총 연구비(원)	총 연구비 중 입금액(원)	총 입금액 중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원)	사업 참여 교수 지분(%)	환산 입금액 (원)	연구비 입금일
								시작일	종료일							
2021.3.1.~2022.2.28.	1	공익재단법인 도시바국제교류 재단	일본	동아시아와 동시대 일본어문학 포럼 제9회 국제학술회의와 8차과일/일본어문학연구8차 특집호 간행			10136846	20211001	20220930	단독	15,279,300	15,279,300	15,279,300	100	30,558,600	20211101

해외기관 연구비 총(환산) 입금액(원)	2020.9.1.~2021.2.28	0
	2021.3.1.~2022.2.28.	30,558,600
	2022.3.1.~2023.2.28.	0
	계	30,558,600